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학위논문

망자의 공간, 그 재편과 의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를 중심으로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이 도 정

망자의 공간, 그 재편과 의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정 원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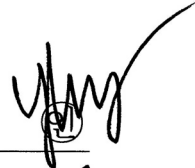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이 도 정

이도정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강 윤 희



부위원장 강 정 원



위 원 권 현 익



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장묘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금, 전통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던 촌락 마을에서 망자의 공간이 재편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이 논문은 장묘제를 다룸에 있어 죽음의 상반된 두 측면 중 한 측면에만 집중해온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 망자는 산자가 기피해야 하는 존재인 동시에, 산자와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전통적인 공간 질서와 현재 나타나는 공간 질서의 변화를 살피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 논문은 장묘제 변화의 중심에 도시를, 전통적 질서의 중심에 촌락 마을을 상정하던 관점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특히 장묘제라는 제도적·관습적 맥락보다는 망자를 안치한 장소의 공간적 배열에 초점을 두어 현재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산자가 촌락 마을 밖으로 진출한 현실적 맥락에서 망자는 오히려 촌락 마을로 모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촌락 마을을 중심으로 혈연적·지연적 연대를 재확인하는 것임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진도의 농촌 마을인 칠전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질서를 파악하고 그 변화상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은 망자와의 연계가 강조되는 조상의 장소와 망자와의 단절이 강조되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로 나타난다. 이때 조상의 장소는 정상적인 죽음을 맞은 조상이 개별성과 혈연적 집단성이라는 전통적 질서에 따라 묻힌 장소가 된다. 반면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아장터처럼 비정상적 죽음을 맞은 망자가 묻히거나, 공동지처럼 다양한 죽음을 맞은 망자가 혼란스럽게 묻힌 곳이다.

현재 망자의 공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변화의 한 측면은 칠전리가 생활의 중심이었던 과거에 조상의 장소는 마을을 넘어 진도 전역으로 퍼졌으나, 많은 칠전리 출신자가 마을 밖으로 이주한 지금 조상의 장소가 마을로 다시 모이는 역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망자의 공간 전체에서 공간을 조직하던 단위가 마을 단위였던 이전과 달리 더 넓은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이 마을을 중심으로 조상의 장소와 소외된 망자의 장소를 모두 품고 있었다면, 현재 망자의 공간은 칠전리를 중심으로 조상의 장소가 모이고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마을 밖으로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도시 주변 망자의 공간이 칠전리 주민들에게는 공동지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현재 망자의 공

간이 촌락에서는 조상의 장소가, 도시 주변에서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양 측면의 변화 중 칠전리로 모이는 조상의 장소에 초점을 맞춰 공간적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며, 행위자인 주민들이 그 시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과정은 두 가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한 가지는 토지의 활용을 위해 묘지를 없애려는 정부의 정책과 조상의 장소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주민들의 충돌이다. 다른 하나는 영속성 부여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전통적 규율과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마찰이다. 칠전리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변화는 양 측면의 타협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혈연적·지연적 측면의 공동체를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것은 마을 밖으로 흩어진 친족을 모으는 구심점을 조성하는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 타지에 나간 향우들이 고향과 연결되는 고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 지점에서 조상의 장소라는 혈연적 중심점은, 자연히 고향이라는 지연적 중심점과 일치된다.

본 연구는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촌락과 도시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의 기반에는 죽음을 이해하는 양면적인 시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망자의 공간을 소멸의 대상으로 규정한 현재 정부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재편되는 조상의 장소가 쇠락해가는 촌락 마을을 지탱할 또 다른 기반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요어: 공동묘지, 망자의 공간, 선산, 소외된 망자의 장소, 아장터, 장묘제, 조상의 장소, 죽음의 공간

학번: 2013-20089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5
1) 죽음, 상징, 공간	5
2) 망자의 공간과 변화	8
3. 연구 지역 소개	10
4. 연구 대상 및 방법	24
II.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	27
1. 칠전리 주변 망자의 공간	27
1) 묘소의 배열 양상	27
2) 조상의 장소	31
3) 소외된 망자의 장소	39
4) 장소의 성격 구분 원칙	49
2. 칠전박씨 중심 망자의 공간	52
1) 확장되는 조상의 장소	52
2) 친족 집단과 위계의 재확인	57
III. ‘망자의 공간’에서의 변화	61
1. 칠전리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 양상	61
2. 사라지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	65
3. 변화하는 조상의 장소	69

1) 돌보기 어려운 묘지, 돌볼 사람 없는 마을	69
2) 명당에 대한 믿음의 약화	78
3) 칠전리로 모이는 묘지: 다양한 변화 양상	83
4. 확대·재편되는 망자의 공간	88
IV 망자의 공간 변화의 역학	91
1. 변화의 도입과 타협	91
1) 납골당의 등장과 쇠퇴	91
2) 상이한 관점의 잠정적 타협	99
2. 혈연과 지연의 재확인	107
1) “성지 조성”으로서의 묘지정리	107
2) 고향에 닿는 “마지막 고리”	112
V 결론	118
참고문헌	123
Abstract	128
감사의 글	131

이 연구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민속학전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논문에서 등장하는 지명과 본관은 모두 실제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만, 익명성 보장이 필요하여 가명을 쓴 경우 괄호 안에 가명임을 표시하였다.

· 지명은 칠전리 주민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동일한 지명을 나타내기 위한 한자어가 있으면 이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큰깍금”은 족보에 “大山”으로 표기되는데, 본 글에서는 “큰깍금(大山)”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동일한 지명으로 여러 명칭이 동시에 쓰일 때에는 “포전들/개들”처럼 “/”를 사용하여 함께 표기하였다.

· 본 논문에 등장하는 인명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마을 주민 중 밀양박씨는 대부분 이름의 앞 자를 돌림자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문에서는 이름의 뒷 글자를 돌림자로 바꾼 이름으로 수정하였다. 남성 중 성이 밀양박씨인 경우 이를 그대로 표기하였으나, 밀양박씨 외의 다른 성씨의 인물과 여성에 대해서는 성명 모두를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여성 중 성이 박씨인 경우 개인을 추측하기 수월하여, 이 경우에도 성을 다른 성으로 표시하였다.

· 본 논문에서 사용한 지도는 다음 지도(<http://map.daum.net>)와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에서 캡처한 원본 위에 연구자가 논문의 기술상 필요한 부분을 가공한 것이다. 각각의 지도에는 원본의 출처를 표기하였다.

살은 썩어서 물이 되고 뼈는 썩어 흙이 되는
북망산천을 내 어이 갈거나

우리 인생도 한 번 가면 한 번 한 척 죽어지며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친구 벗네들 잘 있거라 동네방네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북망산천

예늬은이 말 들으면 북망산이 머다더니
오날 보니 앞동산이 북망이네

- 진도 상여소리 중 애소리의 매김소리에서

I. 서론

1. 연구 목적

죽음은 살아있는 인간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고민하는 동시에 수많은 타인의 죽음을 접하며, 나아가 자신과 친밀한 사람의 죽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망자와 의례적인 이별을 고하는 장례(葬禮)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숨이 끊어진 시신(屍身)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둘 것인가를 다루는 장법(葬法)의 문제와 망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다루는 추모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때 시신을 모신 장소(place)는 장묘제(葬墓制)¹⁾

1) 기존의 묘지에 대한 연구는 의례 방식인 장법과 시신을 모신 장소에 대한 제도를 여러 개념으로 다루어 왔다. 송현동과 김명희는 이를 장묘제라는 개념으로 살핀다. 김명희(2003: 1)는 장묘제에 대하여 “시체의 처리 방식인 장법(葬法)과 그 장소에 관한 제도인 묘제(墓制)를 포괄하는 말”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송현동(2001)의 경우 ‘장묘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김명희의 정의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김시덕(2005)은 ‘상장례’라는 용어로 이 부분을 다루는데, 그는 ‘상장례’ 혹은 ‘상장례 문화’를 “상례의 전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고 시신을 처리하는 장사(葬事)만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를 감안하여 ‘장사와 상례’의 복합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상례와 매장 방식이 강조되는 상장례 보다는 장법과 그 장소에 대한 강조가 들어있는 용어인 장묘제를 김명희가 정의한 바를 따라 사용할 것이다.

의 질서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장소를 포괄하는 망자의 공간(space)은 마을의 공간 질서라는 더 큰 질서 내에 포함된다. 본 논문은 장묘제라는 제도 자체보다는 이것이 구현된 공간적 질서와 그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즉, 이 논문에서는 살아서는 먼 것 같은 북망산(北邙山)이지만 죽은 뒤에는 “앞동산이 북망”이 되는, 한 시골 마을에서 나타나는 망자의 공간과 그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공간은 인간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고, 인간의 활동과 상호작용한다. 인간이 만든 문화는 공간을 구획하고, 이렇게 구획된 공간은 다시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 죽음과 공간을 함께 다룬 연구는 한경구와 박경립(1998: 783)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죽음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다루고자 했다. 이들은 ‘죽음의 공간’을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례로 “병원과 영안실, 장례식장, 화장터, 묘지 등”을 들었다. 여기에서 ‘죽음의 공간’이라는 용어를 죽음을 맞는 장소, 막 죽은 망자의 임시 안치 장소, 망자를 영속적으로 안치한 장소 모두를 포괄하는 말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현동(2005, 2006a, 2006b)의 논문에서 ‘죽음의 공간’ 또는 ‘죽음의 경관’은 이 중에서 망자의 임시 안치 장소(장례식장) 및 망자의 영속적 안치 장소에 초점을 둔 용어로 사용되었다. 박성용(2002)은 ‘묘지의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상을 모신 장소만을 한정적으로 가리킨다. 이 논문에서는 ‘망자의 공간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중간의 영역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는 조상은 물론, 한 지역에서 죽은 모든 망자를 영속적으로 안치한 장소를 포괄한다. 또한, 그 범위에는 묘지 외에도 소외된 망자를 묻은 곳, 납골당, 수목장지, 산골장지도 해당된다. 즉 이 글에서는 ‘망자의 공간’을 한경구·박경립과 송현동의 ‘죽음의 공간’보다 한정적으로, 박성용의 ‘묘지의 공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망자의 공간은 장묘제라는 의례적·제도적 관습이 공간과 뒤얹히며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망자의 공간은 장묘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장묘제 자체로는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 대한 문화적 규범을 함축한다. 따라서 망자의 공간을 살펴보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무덤의 공간적 분포와 이동을 이해

2) 충남역사문화연구소의 오석민은 이광규·이두현이 수업 때 망자를 영속적으로 안치하는 장소로 “망자의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기억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용어에 착안하여 “망자의 공간”이라는 용어로 변형하였다. “영역”을 그대로 쓰지 않은 것은 이 용어를 기존의 개념에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영역”에 비해 이론적 배경이 더 두터운 “공간”을 차용하여 이를 변형한 “망자의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 수 있게 하며, 장묘제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질서의 변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현재 변하는 것은 장묘제라는 제도적 규범만이 아니며, 망자의 공간이 구획되는 방식 역시 함께 변하고 있다. 따라서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상을 추적하는 것은 현재 나타나는 장묘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인류학 연구의 초점이었던 망자에 대한 의례보다는 실제로 망자를 묻었던 장소와 이를 포괄하는 공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망자의 공간을 다루는 것에 있어, 에르츠(Hertz 1960[1909])가 강조한 양손잡이의 논의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오른손의 우위(The Pre-eminence of The Right Hand)”라는 논문에서 에르츠는 오른손과 왼손에 상반되는 평가와 상징이 부여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오른손에는 안·평화·선·삶과 같은 긍정적 상징이, 왼손에는 박·적대·악·죽음 같은 부정적 상징이 부여되는 양상은 많은 문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오른손을 신성시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왼손을 터부시하여 그 사용을 막는 것처럼, 많은 사회에서는 양극적 측면 중 한 측면에 우위를 주고 부각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 측면은 터부시하고 억압한다. 현재 장묘제와 망자의 공간에 대한 연구 역시 양 측면 중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전통적인 죽음의 방식을 다룰 때에는 주로 조상의 장소(박성용 2002; 권선정 2011)를 다루며, 소외된 망자에 대한 관심은 없거나 간단하게 언급만 하였다. 현대적 죽음을 다룰 때는 이를 대체하는 장소로 공동묘지나 납골당 같은 새로 등장한 장소에만 초점(송현동 2005; 김시덕 2007)을 맞춰 다뤄왔다. 본 연구자는 공존하는 양극적 측면을 전통적 시기와 현대 모두에서 함께 다루고자 하며, 기존의 연구가 주로 다루온 조상의 장소와 함께 소외된 망자의 장소³⁾에 대한 것 역시 포괄하여 연구할 것이다. 양 축의 변화를 함께 검토할 때 장묘제의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망자의 공간을 실제 장소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실천한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간 구성 방식과 그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행위자들의 의도이다. 상장례와 장묘제의 급격한 변화를 포착한 기존 연구는 주로 국가와 거시적 측면을 강조(송현동 2001, 김명희 2003)하였다.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망자의

3)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중 한 방향은 권현익(Kwon 2012[2007])의 연구처럼 국가의 추모 대상에서 소외된 전쟁의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 글은 이러한 방향과 달리 한국의 전통적인 죽음 구분 방식과 연관되는 공간 분류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피되 행위자들이 보이는 세부적인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나 거시적 지표의 압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항상 이를 실천하는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망자의 공간 변화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과 그 정책적 영향을 배경으로 두고,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행위자들에게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행위자들이 국가권력의 정책적 압력에 직면하여 어떤 변화를 겪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다.

장묘제 변화의 핵심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촌락사회이다. 기존의 묘지 연구(한경구·박경립 1998; 박성용 2002; 권선정 2011)에서 촌락사회는 전통이 잔존하는 곳으로 여겨졌을 뿐,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중심으로 여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 도시민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로 편입된 이들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촌락사회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망자의 공간 변화는 도시와 촌락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촌락 마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촌락사회는 전통적인 질서를 그대로 구현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은 새로운 변화를 잉태하고 그것이 구현되는 공간으로 상정된다. 촌락 마을은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 질서가 구현된 곳임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시도와 그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본 연구는 망자의 공간을 살피는 것을 통해 그 구조적 변화와 행위자들의 의미가 연결되는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한 시골 마을을 통해 살피는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우선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 “전통적” 질서는 조선 후기에 성립되고 일제 강점기를 통해 변형되어 해방 후 정착된 묘지 질서를 포괄적으로 말한다⁴⁾. 이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혹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인식하는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상의 장소 외에 기존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외된 망자

4) 여기서 “전통적” 질서에 대한 시간 범주는 해당 마을의 역사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임을 밝힌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의 장묘문화가 결코 고정되어 이어진 것이 아니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해온 결과물이라는 관점의 연장이다. 다만, 이러한 질서의 변화 양상을 주민들의 면담만으로는 시대에 따른 순차적 변화로 세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주민들이 말하는 “전통적” 질서를 해당 마을의 형성 시점인 17세기 초 이후의 역사가 담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정적인 시간 범주를 제시하였다.

의 장소를 함께 다룸으로써 망자의 공간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것이다. 다음 질문은 이러한 변화에서 강조되는 원칙과 주민들이 이를 통해 구현하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현재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에 담긴 행위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죽음, 상징, 공간

타문화의 상례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은 초창기부터 인류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프레이저(Frazer 2002) 같은 초기 인류학자들은 죽음의 상징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유럽 신화에 대한 관심과 맞물린 이러한 흐름은 죽음의 상징에서 나타나는 풍요(fertility)의 재생이라는 의미를 밝히는 것에 초점(Bloch&Perry 1982: 6)을 두었다. 에르츠(Hertz 1960[1909])는 죽음에 대한 상징적 접근이라는 유사한 방식을 통해 다른 해석을 시도했다. 뒤르켐의 제자인 그는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나타나는 복장제(複葬制, double burial)⁵⁾를 중심으로 죽음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그는 망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변화가 그 영혼의 상징적 변화, 그리고 애도자의 상징적 변화와 병행되는 양상을 통해, 죽음이 일종의 정신적인 ‘해체(disintegration)’와 ‘결합(synthesis)’의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현상(Hertz 1960: 86)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례가 죽음의 사회적 극복임을 보여주며, 장례는 사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사회조직적 측면의 상징적 해석으로 이해된다(Bloch·Perry 1982: 6).

이후 학자들은 주로 에르츠의 논의를 중심으로 장례를 해석(Bloch&Perry 1982; Metcalf&Huntington 1991; 内堀基光·山下普司 2006)하였다. 특히 블로흐와 페리(Bloch&Perry 1982)는 죽음에 대한 상징 해석에서 나타나는 프레이저류와 에르츠라는 두 갈래의 해석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이 둘을 병합해야 함을

5) 복장제(複葬制)는 이중장제(二重葬制)라 불리기도 한다. 한상복과 전경수(1969: 75)는 이중장제를 “사자의 장례를 두 번 행하되 가장(假葬)으로 생각되는 1차장에서 시체를 완전히 썩혀서 탈육(脫肉)된 유골을 본장(本葬)으로 여겨지는 2차장으로 처리하는 장제(葬制)”라고 정의하였다. 세키네(2012: 237)의 경우 복장제를 “매장된 시체를 파내서 뼈를 씻어 장의를 한 다음 다시 뼈를 매장하는 것”으로 세골장(洗骨葬)과 동의어로 파악하고 있다.

강조한다. 즉, 상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재생(regeneration)과 풍요(fertility)라면, 상례로 실행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극복과 공동체의 재생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결합을 강조하는 이들의 시각을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관점으로 삼았다.

죽음의 해석과 의미부여 방식은 기본적으로 양극적이다. 말리노브스키(Malinowski 1948: 47~53)는 원시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상반된 양상이 동시에 나타남을 보였다. 하나는 망자와 그 몸에 대한 공포·기피로, 망자와의 결속을 끊고자 하는 욕망이다. 다른 하나는 망자에 대한 사랑으로, 망자와의 결속을 유지하려는 욕망이다. 망자에 대한 양극적 인식은 상례에서도 나타난다. 에르츠(Hertz 1960[1909])는 1차장 직후 망자의 몸이 부정적인 것이자, 공포의 대상이며 기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보였다. 그러나 살이 썩고 뼈만 남으면, 망자의 몸은 조상으로 수용되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후손들과 결속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 의례적 표현이 2차장이다. 블로흐와 페리(Bloch&Perry 1982: 32~38)는 더 나아가 1차장에서 망자의 개별적인 속성이 없어지고, 2차장을 통해 망자는 개인이 아닌 조상이라는 집단적인 성격을 얻는다고 보았다. 무덤에서도 망자의 개별성은 사라지고 조상으로서의 집단성이 강조되며, 이는 무덤의 상징이 친족 집단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표상으로 자리함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양극적 인식은 상례의 상징적 전환 외에 다양한 죽음의 구분과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블로흐와 페리(Bloch&Perry 1982: 15~18)는 ‘좋은 죽음(good death)’과 ‘나쁜 죽음(bad death)’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좋은 죽음’은 사회적 재생과 풍요를 가져온 개인의 죽음을 말하며, ‘나쁜 죽음’은 사회적인 재생을 가져오지 못한 개인의 죽음을 나타낸다. 그에 따르면 ‘좋은 죽음’은 자손을 낳고 잘 키워낸 이의 죽음이며, ‘나쁜 죽음’은 그렇지 못한 모든 이의 죽음을 의미한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극단적인 나쁜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태도를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으로 구분한 송현동(2006)의 연구는 위와 유사한 구분을 보여준다. 여기서 ‘정상적 죽음’은 조상의 요건을 갖추어 유교식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이의 죽음이다. 한국에서는 성혼(成婚)과 제사를 지낼 자식의 존재가 갖춰져야 조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비정상적 죽음’은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의 죽음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죽음은 원혼을 낳는다.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의 구분은 장례 과정만이 아니라 시신을 안치하는 위치 규범에도 영향을 미친다(岩田重則 2009[2006]: 167). 그러나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양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

죽음’에 속하는 조상의 장소에 집중한 연구(장철수 1995; 한경구·박경립 1998; 박성용 2002; 송현동 2005, 2006b; 권선정 2011)를 이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이라는 양극적인 규범이 한 마을에서 망자의 공간을 구획해온 양상을 살피되, 현재의 공간적 변화와 구현되는 의미의 관계 속에서 이를 고찰할 것이다.

한국에서 죽음과 공간을 다룬 연구는 한경구와 박경립(1998)이 건축인류학적인 시각에서 ‘죽음의 공간’을 살펴야 한다는 제언을 통해 촉발되었다. 이들은 기존 연구에서 “한국인의 공간 관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ibid.:787~788)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은 죽음과 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타당한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강조하였다.

망자의 공간에 대한 연구에 앞서 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문지리학자인 랠프(Relph 2005)는 공간을 해석학적인 방식을 통해 다루었다. 그는 공간(space)이 그 의미를 특정한 장소(place)로부터 얻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공간은 다양한 장소들의 결합이며, 장소는 행위와 의도의 중심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공간과 장소의 관계는 중요하게 나타난다. 한편 투안(Tuan 1995)은 공간과 장소의 차이에 집중한다. 그에게 공간은 자유와 개방의 상징(ibid.: 87)으로 폭넓은 가능성을 갖는 추상적인 영역으로 정의된다. 반면 장소는 구체되고 인간화된 공간(ibid.: 94)이자 구체화된 공간으로 정의된다. 이는 공간을 포괄적 용어로 보고, 이것이 구체되고 가치가 부여될 때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는 관점이다. 투안의 관점에서 공간과 장소는 연결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논의에서 공간의 논의가 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간의 추상성과 장소의 구체성에 대한 투안의 시각을 큰 맥락에서 수용하며, 세부적인 양상에서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랠프의 시각에 보다 초점을 둔다. 랠프는 특히 장소가 정적인 물리 환경,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 장소에 대한 의미라는 세 요소의 변증법적 과정에서 해당 장소의 특성인 ‘장소 정체성’이 나타난다고 주장(Relph 2005: 114~115)하였다. 연구자는 ‘망자의 공간’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장소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그 장소의 핵심인 상징적 의미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죽음과 공간에 대한 연구는 경관(landscape)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송현동 2005, 2006a)와 부르디외(Bourdieu 1979)의 관점에 착안하여 사회공간으로

다른 연구(박성용 2002)가 있다. 송현동(2005, 2006a)은 한 시대의 포괄적이고 특징적인 죽음과 연관되는 시설에 초점을 두고 그 경관적 양상을 통해 한 시대의 ‘죽음의 경관’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살폈다. 그러나 송현동은 어디까지나 ‘죽음의 경관’이라는 외관을 중심으로 조상의 장소 전반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경관 변화와 태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죽음의 양극적 측면이 공간적으로 분포되는 양상과 그 변화를 다루지 못했다. 박성용(2002)의 연구는 죽음의 공간과 삶의 공간 사이에 나타나는 연관 관계를 세밀히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묘지를 제외한 망자의 공간은 제외되었기에, 망자의 공간이 구성되는 전체적인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기존의 한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 중 상징적 질서의 변화를 해석하기에 더욱 적합해 보이는 랐프의 접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개별 장소를 중심으로 그 환경·인간의 활동·의미의 결합에 초점을 두는 랐프의 접근이 공간변화와 의미를 이해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2) 망자의 공간과 변화

망자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구도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현재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질서의 재현으로 망자의 공간에서 전통적 질서를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우선 전자에 속하는 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경구와 박경립(1998: 792~800)은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대조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전통사회에서 죽음의 공간과 삶의 공간이 융합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요소가 분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삶의 공간에서 죽음의 공간이 쫓겨나고, 이 과정에서 죽음의 공간은 더욱 부정적인 공간이 되어 기피하는 장소가 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대비이며, 전통사회는 두 요소의 융합을, 근대사회는 그 분리를 나타낸다. 이들은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명희(2003)의 논문은 장묘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근대국가에 주목한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김명희는 푸코(Foucault 1980)의 논의를 바탕으로 변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장묘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조선 시대의 유교 중심적인 군주

국가에서 형성되어 근대국가의 맥락 속에서 변해온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근대국가의 통치 기술로 하나는 “기계로서의 신체”를 중심에 둔 해부학적 정치(anatomic-politics)로 이는 국가의 훈육을 통한 개입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종으로서의 신체”에 중심을 둔 생체-정치(bio-politics)로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의 수단 중 하나가 법(김명희 2003: 12에서 재인용)이다. 이처럼 국가는 법과 다른 훈육적 제도를 통해 죽음의 영역인 장묘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전에는 기피되던 화장이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송현동(2001)의 연구는 장묘제의 변동을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과 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송현동은 여기서 국가, 사회구조의 변화, 시민사회의 반응, 자본이라는 네 가지 변수를 상정하고, 그 요인들의 조합 속에서 장묘문화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변수인 국가는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 지금에 이르는 장묘제 변화의 핵심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장묘제 변동에 대한 거시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장례를 다룬 멀라니(Malarney 1996)의 사례는 국가가 새로운 이념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장례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어디까지나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가치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망자의 공간에 대한 국가의 통제 역시 한계가 있다. 물론 메리나의 성인식에 대한 블로흐의 연구(Bloch 1986)가 보여주는 것처럼 의례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개입은 기존의 의례를 재구성시키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코마로프의 지적(Comaroff and Comaroff 1993: xxii)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나 낯선 것도 기존의 질서 안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인류학의 선행연구는 변화의 현장에서 국가와 행위자라는 양자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볼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의도한 변화는 그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반복된 정책적 강조는 기존의 전통적인 맥락과의 결합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박성용(2003)과 권선정(2011)의 연구는 전통적인 질서가 구현된 장소로서의 촌락 마을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선산이 조선 후기부터 형성되고 유지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주변 망자의 공간을 전통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질서를 전통적인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 방식으로 상정하고 해석한다. 이들의 연구는 과거와의 연결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촌락 사회의 주변 공간을 지나치게 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상정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을 담지한 행위자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촌락 마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촌락 마을이 단순히 전통사회의 잔재가 아닌 현재의 사회적 변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임을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할 때에 현재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다.

3. 연구 지역 소개

1) 전라남도 진도(珍島)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진도군의 한 농촌 마을인 의신면 칠전리를 중심으로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질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는 공간 질서 변화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연구자가 진도(珍島)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59.3%), 전라남도(60.8%), 제주도(59.9%)가 60%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보건복지부 2014: 351)이다. 특히 진도는 현재 화장률이 44%⁶⁾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연구자는 진도가 현재 나타나는 장묘제의 변화에 충분히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 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하므로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논란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진도가 속한 서남해의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복장제(複葬制, double burial)의 흔적인 초분(草墳)⁷⁾이나 구토롱 관행에 대한 보고(민속박물관 2003)가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진도군지는 이 지역의 독특한 어린이 장례 방식으로 독에 아이를 넣어 돌무덤을 만드는 “돌아장”과 아이의 시신을 “오장치”에 넣어 마을 밖 외진 곳 나뭇가지에 걸어 방치하는 “오장치장” 같은 다양한 주검의 처리 방식이 있었음(진도군지 2007: 861)을 밝힌다. 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죽음에 대한 처리 방식과 이에 따른 공간 분류 방식이 진도

6) 현재 진도의 화장률은 정확한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다. 진도 내에 화장장이 없으며, 진도에서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타지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화장률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화장률 통계는 진도 내 전체 사망자 수에 대한 진도 내 장례식장에서 화장한 것으로 보고된 화장자 수의 비율이다. 따라서 실제 화장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7) 복장제의 과정에서 시신을 육탈(肉脫)하기 위해 1차장을 할 때 관을 채돌이나 통나무 위에 얹고, 이영과 용마름 등으로 덮은 초가 형태의 임시무덤(한국의 초분 2003: 14)을 말하며, 흙으로 임시 매장하는 구토롱 관습과 함께 현재에도 한국의 서남해안 지방에서 주로 나타난다.

에서 발달했거나 남아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진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최남단의 큰 섬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 시대 이전부터 주요 유배지였다. 김미경(2006: 152~153)은 한국인명록에 수록된 조선 시대 유배자 총 700명 중 129명이 전라남도도 보내졌고, 그중에서 30명이 진도로 왔으며, 역사적 기록에 나온 수를 고려하면 그 수가 총 10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유배문학 작품⁸⁾을 남겼고, 지역 토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으며 서당을 세워 교육에 힘썼다. 따라서 진도는 섬으로서 갖는 독특한 장묘제도를 품은 공간임과 동시에, 조선 시대의 유교적 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받은 장소인 것이다.

연구자는 진도에서 여러 작은 섬에서와 달리 육지와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일부 섬에서는 섬 자체가 공동화되는 양상 속에서 죽음의 공간이 송두리째 육지로 빨려나가는 경우⁹⁾도 나타난다. 그러나 진도는 1980년대 중반 진도대교가 완공되면서 연륙되어 망자의 공간 자체가 육지로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육지의 촌락과 비슷한 변화를 겪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도는 다양한 죽음을 포괄하는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질서를 파악하고, 현재 나타나는 공간의 재편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진도는 섬 지역이나, 과거 여러 유배자들의 영향과 일제강점기 이후 이루어진 많은 간척사업의 결과 조선 시대부터 어업보다는 농업이 그 중심을 이루어왔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지로 어촌보다는 진도 섬 내륙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8)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주(李胄, 1468~1504)의 『금골산록(金骨山錄)』,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의 『옥주이천언(沃州二千言)』, 정만조(鄭萬朝, 1858~1936)의 『은파유필(恩波濡筆)』 등이 있다.

9)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장례의 공간과 묘지 공간이 섬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 예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 섬에서는 물으로 나간 자손이 늘면서 더는 섬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으며, 섬에서 죽은 망자를 육지에 있는 가까운 큰 도시(연평도의 경우 인천, 영산도의 경우 목포)로 옮겨서 장례를 치른다. 그뿐만 아니라 묘소 역시 인천과 목포에서 가까운 곳에 두어 자손들이 더는 섬에 들어오지 않아도 조상의 묘소를 찾을 수 있도록 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2) 칠전리의 개요 및 지형

본 연구는 진도군(珍島郡) 의신면(義新面) 칠전리(七田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의신면은 진도 본도 내의 진도읍(珍島邑), 고군면(古郡面), 군내면(郡內面), 임회면(臨淮面), 지산면(智山面) 그리고 본도 밖의 여러 섬을 묶은 조도면(鳥島面) 등 7개 읍면 중의 한 곳이다. 진도읍에서 동남쪽에 있는 의신면의 면적은 66.17 km²로 7개 읍면 중 3번째로 크며, 15개 법정리와 41개 자연마을이 있다(의신면 2009). 의신면은 1889년에 명금면(鳴琴面/明今面)과 의신면(義新面)의 두 면으로 분리되었고 칠전리는 명금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 시 다시 의신면으로 통합되었다.

칠전리는 진도읍에서 남쪽으로 약 4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진도 지도상 중앙에 자리 잡은 곳으로, 주변의 중굴(中屈), 하굴(下屈), 신생동(新生洞)과 함께 하나의 법정리를 이룬다. [표 I -1]에서처럼 칠전리는 법정리 내에서 제일 큰 자연마을이며, 밀양박씨 집성촌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리가 아닌 자연마을 칠전리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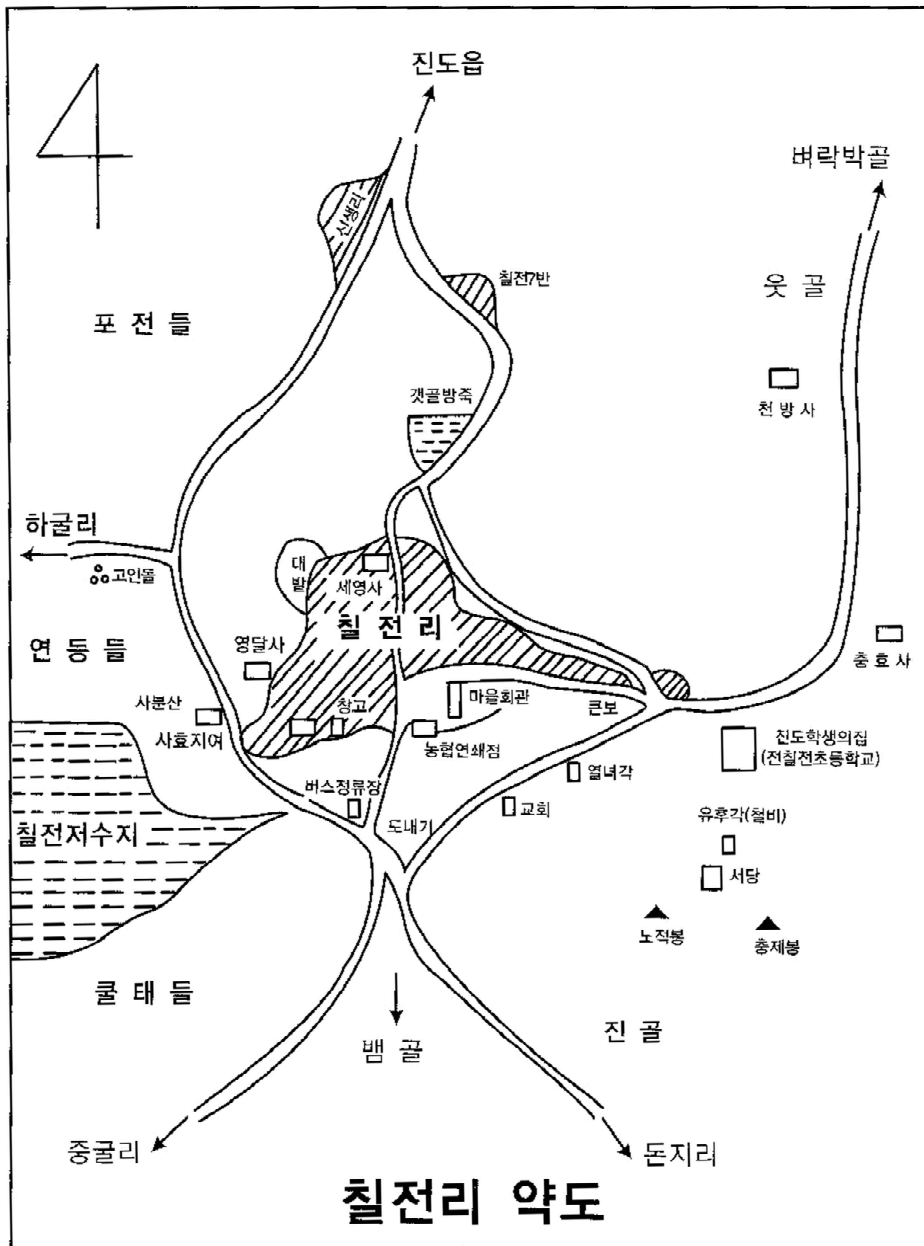
[표 I -1] 칠전리의 가구 및 인구 현황 (진도군지(상) 2007: 775)

법정리	칠전리			
자연마을	칠전	중굴	하굴	신생
가구 수	140	29	26	19
인구 수	256	52	41	37
주요 성씨	밀양박씨	혼성	밀양박씨, 무안박씨	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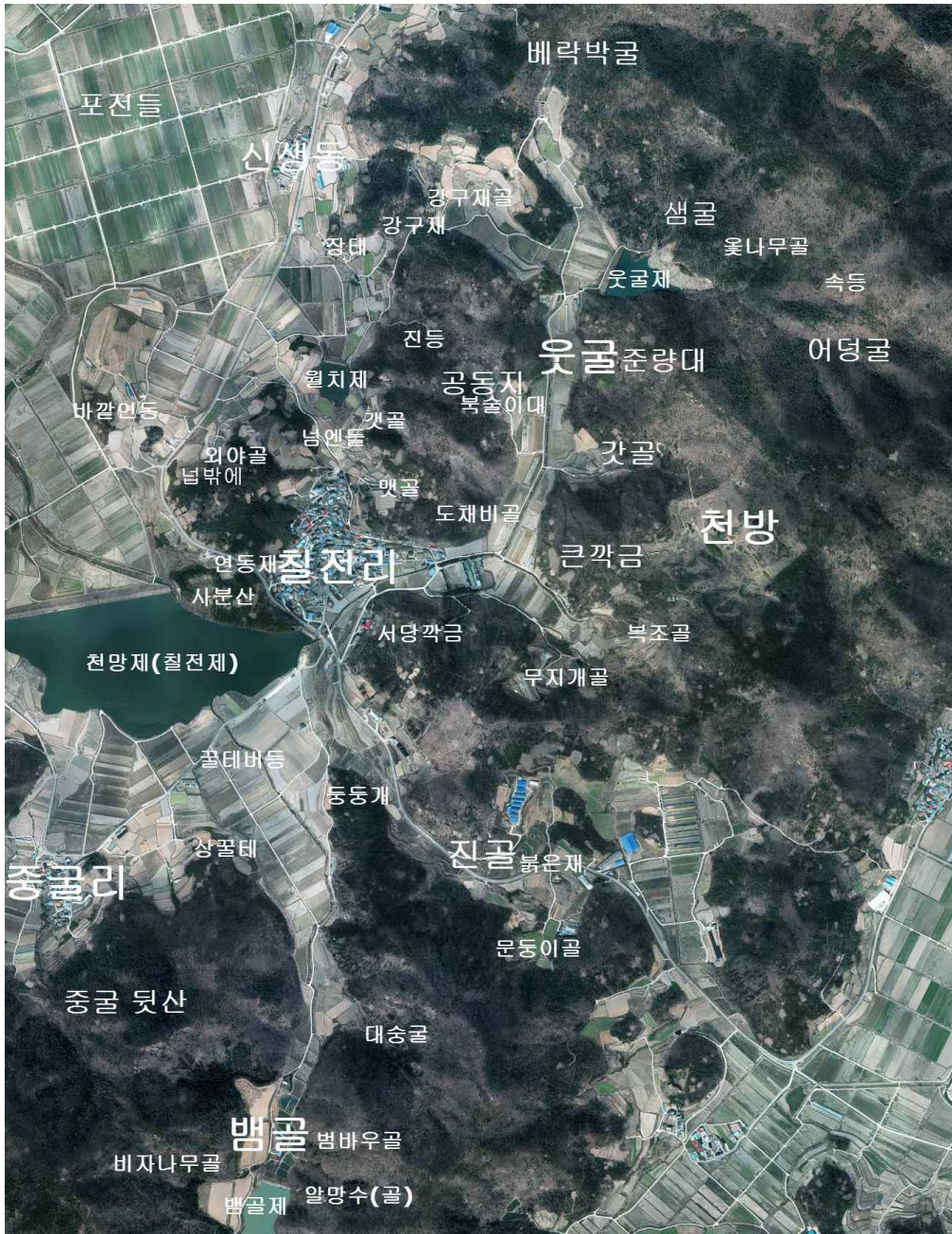
칠전리는 총면적 363km²에 이르는 큰 섬¹⁰⁾의 한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어업과는 무관하고 농업이 중심인 곳이다. 이곳은 마을 주변으로 깊은 골짜기가 많고 그 안쪽으로 넓은 들판을 끼고 있다. 간척이 많이 진척되기 이전에는 깊은 골짜기 안쪽까지 경작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점에서 칠전리는 주변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족한 곳이었다. 현재는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기계로 작업하기 어려운 깊은 골짜기 안쪽의 토지는 점차 “목고(경작하지 않고)” 있다.

10) 현재 진도는 제주도, 거제도에 이어 한국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그림 I -1] 칠전리 주변 약도 (박병훈 2002: 4)



[그림 I -2] 칠전리 주변 지명 (출처: 다음지도)



대신 간척을 통해 경지정리가 된 “개들/포전들”이 생겼고, 칠전리의 주민들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이용한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다만, 이곳 주민들은 아직도 텃밭을 가꾸고 있으며, 집 주변의 텃밭은 농기계를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가꾸는 경우가 많다.

마을 주변 지역은 골짜기와 들녘을 기준으로 크게 다섯 지역으로 나뉜다. [그림 I-2]에서 큰 글씨를 중심으로 보면, 마을 북쪽을 가로막는 “뒷잔등” 너머 “넘엔들”, 마을의 동북쪽의 깊은 골짜기인 “웃굴(上谷)”¹¹⁾, 마을 동쪽을 가로막는 산악 지역을 말하는 “천방(天防)”, 마을 남쪽의 “서당각금¹²⁾(書堂山)” 너머로 난 골짜기인 “진굴(泥洞)”, 진굴 옆의 더 깊은 골짜기인 “뱀굴(巳谷/巳洞)”, 그리고 칠전 마을의 동쪽으로 넓은 평야 지대인 “개들/포전들”, “꿀테버등”의 지역이 있다. 특히 깊은 골짜기인 웃굴과 뱀굴은 그 안에 5개 이상의 작은 골짜기와 세부 지명¹³⁾이

-
- 11) 주민들은 골짜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일상적 명칭보다는 족보상 명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같은 골짜기라도 “동(洞)”과 “곡(谷)”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곡(谷)”은 그 안에 여러 골짜기를 포함하는 상위명칭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동(洞)”은 “곡(谷)”의 하위명칭으로 세분화된 지역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설명과 달리 칠전리 주변에서 상위명칭으로 쓰이는 “웃굴(上谷)”, “뱀굴(巳谷, 巳洞)”, 진굴(泥洞)“ 중 웃굴만 상곡으로 족보상 일관되게 표기된다. 뱀굴은 표기가 사동과 사곡을 오가며, 진굴은 상위명칭이지만 니동으로만 표시된다. 이런 점에서 칠전리 주민의 생활 공간 중 가장 중시된 곳이 웃굴이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 12) “각금”은 진도에서 “산”, “등”과 함께 평지와 구분되는 산지를 지칭하는 명칭의 하나이다. 이 중에 “등”이 가장 낮은 언덕을 말하는 표현이라면, “산”과 “각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를 말한다. 한자로는 동일하게 “山”으로 표기하나 일상에서 두 용어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높고 멀리 있는 곳은 산으로, 작고 가까운 곳은 각금으로 표현된다. 각금에 대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하나는 진도의 향토사학자가 제시해준 가설로 직각으로 굽는 것을 자른다고 하고, 사선으로 굽는 것은 깎는다고 한다. 따라서 각금이란 사선으로 깎아낸 급경사지를 말한다는 것이다. 다른 두 해석은 칠전리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다. 우선 하나는 앞의 가설과 비슷하게 가파른 지역을 말할 때 “깎지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각금이란 경사가 심한 곳을 말한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각금이란 나무가 많은 곳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과거 이 지역에서는 “한 깎지 금”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고 하였다. 이는 나무를 묶어내는 단위인 “깎지”로 묶어 말아 둔 나뭇더미가 금처럼 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금”은 이처럼 귀한 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각금되다”라는 일상적 표현과도 연관된다. 이들은 나무나 풀이 갑자기 크게 자라 무성해져 다니기 어려워진 것을 보고 “각금 되야 버렸어”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시각의 연장으로 타인 소유의 산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무개네 각금”이라 한다. 위치상 이는 칠전리 가까운 지역의 산만을 말하게 되는데, 고유명사로 자주 쓰는 명칭은 “큰각금(大山)”, “서당각금(書堂山)”, “뒷각금(後山)”의 세 곳이 있었다.
- 13) 웃굴은 “어덩굴(暗洞)”, “웃나무굴(창)(漆洞)”, “샘굴(泉洞)”, “강구재굴(姜具峙)”, “갓굴(笠洞)”, “도채비굴(道疊洞)”의 골짜기와 “준양밑에(俊梁(之)堡)”, “북술이대(北述里堡)”의 지대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족보상 “벼락박굴(雷岩洞)”은 한 때 웃굴의 하위범주로 구분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웃굴과 구분되는 지역으로 여겨진다. 뱀굴은 “절굴”, “뱀바우굴”, “비지(자)나무굴”, “뱀나무굴”, “대송굴”, “안굴”, “알망수(굴)”, “양애굴” 등으

있다.

칠전 마을 남쪽으로는 “서당각금(書堂山)”이 있으며, 이곳의 작은 봉우리는 “노적봉(露積峰)”이고, 그 옆의 큰 봉우리는 “충제봉(蟲祭峰)”이다. 충제봉에서는 80년대까지 칠전·중굴·하굴·신생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곡식에 병충해가 없도록 제관을 임명하여 봉우리 위에서 충제(蟲祭)¹⁴⁾를 지냈다. 중굴 뒷산 역시 칠전리에서 중요했던 곳으로, 가뭄이 질 때 이곳에서 불을 피워 주변 네 마을 주민들이 기우를 빌었다¹⁵⁾.

또한 칠전리 서쪽으로는 “칠전 방죽/천망제(泉望堤)”, 북쪽에는 “웃굴 방죽/칠전제(七田堤)”와 “넘엔들 방죽/월치제(越峙堤)”, 남쪽에는 “뱀굴 방죽/사곡제(巳谷堤)” 등 여러 저수지([그림 1-2] 참조)를 끼고 있어서 물이 풍족했다. 웃굴 방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마을 동쪽의 천방 지역에서 내려오는 “천방넷”과 합류하여 마을 남쪽으로 흘러 현재의 칠전 방죽으로 흘러들어 간다. 현재 칠전 방죽과 “사분산(巳奔山)”이 맞닿는 곳에는 용의 입으로 여겨지는 바위가 있다. 과거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현재는 이 지역이 모두 간척되었고, 이전에 바다였던 지역이 들녘으로 변하여 “개들(과거 바닷가였던 들녘)”로 불린다.

이처럼 간척 이전에도 칠전 주변에는 물이 많았고, 깊은 골짜기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았기 때문에 칠전리 남성들은 칠전리가 주변에서 손꼽히는 부촌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주민들은 그 예로 “칠전으로 시집간다는 것은 부자동네로 시집가는 것으로 다들 부러워 했”다거나, 주변 어촌에서 “잡힌 물고기를 이고 칠전으로 와야 다 팔고 간다”는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칠전리로 시집온 많은 여성들은 칠전리가 진도읍의 다른 마을에 비해 가난한 동네로 “개똥마을”로 불렸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많은 여성들은 시집와서 처음 했던 일이 다른 마을에 가서 개똥을 주워오는 일이었다고 기억했다. 당시 개똥은 연료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의 인구가 많고 장작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다른 마을까지 가서

로 구성되어 있다.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뱀굴의 세부명은 족보상에서 전혀 쓰이지 않으며 모두 “巳洞” 혹은 “巳谷”으로만 기술되어 이 두 곳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랐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인 위치는 [그림 1-2]에 표시하였다.

14) 진도의 충제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은 전경수(1997: 159~163)의 글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칠전리에는 아직도 당시 충제를 지내던 제문의 “완문(完文)”을 보관하고 있으며, 당시 충제시에 사용했던 제물의 목록 역시 동계지에 함께 기록했다.

15) 칠전리 주민들은 당시 가뭄이 들면 중굴 뒷산에 올라가 불을 피워 올렸다고 기억한다. 이때 특별히 제를 지냈던 것은 아니었다. 불을 피워 올리면 머지않아 비가 내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불을 피운다는 점이다. 또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불을 피워 올리는 산 주변에 명당을 찾아 새로 묘를 쓴 집 탓에 하늘이 노한 것이라 하여 마을의 여성들이 해당 산 주변의 묘를 파헤치는 경우도 있었다.

개똥을 주워왔다. 이는 칠전리의 상대적인 위치를 잘 보여준다. 칠전리는 가까운 읍내나 다른 부유한 농촌 마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주변의 다른 마을이나 진도의 어촌마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마을이었던 것이다. 현재 진도에서 이루어진 간척사업의 결과 농토가 급격히 넓어졌으며, 농업보다 어업에서 생산되는 부가 커지면서 과거보다 “그래도 칠전리는 부촌”이라는 자부심은 크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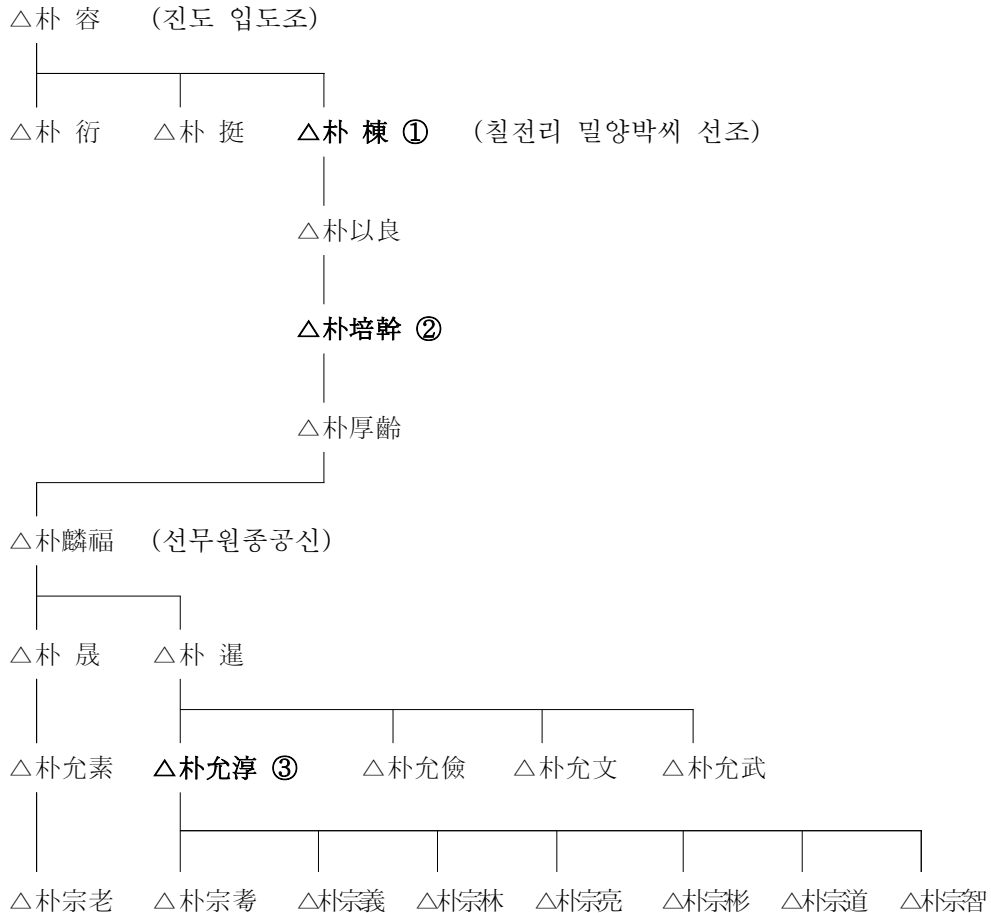
3) 칠전리의 역사

칠전리는 마을 주변에 옷나무가 많다고 하여 “옷밭”로 불렸고, 이에 따라 마을 이름이 “칠전(漆田)”이 되었다. 현재 마을 주변에 옷나무는 거의 없으나 이전에는 마을 주변으로도 옷나무가 많이 있었다. 이후 1914년 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옷칠자(漆)와 음성이 같고 쓰기 쉬운 일곱칠자(七)를 사용하여 칠전리(七田里)로 개칭되어, 현재도 개정된 명칭을 쓴다. 칠전에 처음 정착한 것은 장흥임씨¹⁶⁾였다. 그러나 “지나가는 도사가 박씨(식물)를 심지 말라고 하였으나 박씨(식물)를 심은 뒤로 (밀양)박씨가 번성”했다는 마을의 전설은 “장흥임씨가 이곳에 머물기 시작한 50년가량 뒤에 밀양박씨가 이곳에 자리 잡아 자손을 퍼트려”서 칠전리가 밀양박씨 집성촌이 되었다고 전한다.

칠전리의 거주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마을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칠전리 출신으로 진도의 향토사가이기도 한 박병훈은 『칠전리 마을지』(2002)에서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칠전박씨가 속한 계파 문중의 시조 박동(朴棟, [표 I-2]의 ①)이 있던 시기에 칠전리로 이주했을 가능성, 칠전리 대산소에 묘를 처음 쓰기 시작한 박배간(朴培幹, [표 I-2]의 ②) 시기에 이주했을 가능성, 마지막으로 박윤순(朴允淳, [표 I-2]의 ③) 대에 칠전리로 이주했을 가능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16) 『朝鮮の聚落(後編)』(善生永助 2008[1935])에서 겐쇼 에이스케는 1929년(소화 4년)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장이 각 도지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특색 있는 조선의 동족부락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칠전리는 “400년 전 임(任)·최(崔) 양성이 함께 부락을 구성하였고, 50년 뒤 밀양박씨가 이주하여 자손을 번성”시켰다고 기록(ibid.: 811)했다. 박광석(1997: 11) 역시 이를 인용하여 칠전리의 시거 성씨를 임씨와 최씨 양성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현재 마을 주민들은 최씨의 행적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1881년 작성된 동계안에 서명된 명부에서도 최씨는 등장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본 논문에서 최씨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다.

[표 I -2] 칠전리 밀양박씨 계보도



연구자는 그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인 박윤순과 그 아들 대에 칠전리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 시기는 1600년대 초이며 이 경우 칠전리의 역사는 약 400년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주장에 비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선 칠전리에 칠전박씨에 앞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 장흥임씨 족보와의 비교 결과이다. 장흥임씨는 칠전 입향조인 임기윤(任杞尹, 미상~1643) 시기에 칠전으로 옮겨왔다 전하며, 이 시기는 17세기 초반¹⁷⁾이다. 또한, 칠전의 한 “사문중(私門

17) 장흥임씨 족보(1980)를 살펴보면 임기윤의 생년은 명확하지 않으나 몰년은 계미(1643)년으로 나온다. 그의 아버지인 임숙(任淑)의 생몰년이 1572~1616년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그가 칠전리로 올 수 있는 시기는 그가 태어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을 1600년대 초가 넘어야 가능하다. 장흥임씨 족보상 칠전리 주변에 처음으로 묘를 쓴 것

中)¹⁸⁾에서 보관 중인 세계보(世系譜)에는 1605년 출생한 박윤순(朴允淳)에 대해 기록하며 “自西門外 移居于漆田(서외리로부터 칠전으로 이주했다.)”고 적어 약 17세기 중엽에 밀양박씨가 칠전으로 옮겨왔음¹⁹⁾을 보여준다.

또한, 밀양박씨 청재공파 족보에서 나타나는 웃굴과 천방 지역의 명칭 변화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족보상 기록에는 박윤순 이전의 묘에 대해서는 “천방(天防)”이라는 지명을 상당히 넓게 사용한다. 이 시기 천방이라는 지명은 현재 천방은 물론 웃굴의 “복조굴”, “큰각금(大山所)”을 모두 포괄하는 지명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박윤순의 자식 대에 이르면 처음으로 큰각금과 천방의 명칭이 분리되어 사용되기 시작한다. 생활공간과의 친화성은 공간의 의미를 보다 세분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명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기록되는 시기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지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칠전리 주변의 지역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세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칠전리의 시거시기를 17세기 초인 1600년대 초반으로 판단하였다.

이 임기윤 때이며, 현재 정리한 칠전리의 장흥임씨 묘역에서 가장 웃어른으로 모셔진 것 역시 임기윤으로 그를 칠전리 입향조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8) 이광규(1997)는 문중조직의 분류를 크게 소문중(小門中), 파문중(派門中), 대문중(大門中)으로 나눈다. 여기서 소문중은 파문중의 하위 문중으로 고유명칭이 없고, 문장·유사의 임원이 불분명한 조직을 말한다. 파문중은 이와 달리 중심이 되는 조상이 분명하며, 의사결정 총회인 종회가 있으며, 문중을 대표하는 문장과 업무를 처리하는 유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문중은 파문중과 구분되는 구조로, 파문중의 대표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체계를 갖는 연합체적 성격을 갖는 조직을 말한다. 칠전리의 사문중은 소문중과 파문중 사이의 중간적 형태로 보인다. 문중 소유의 재산과 의사결정 총회인 종회가 있으나,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는 문장과 유사가 있지는 않으며, 문중의 업무 처리와 족계(族契) 계책(契冊)을 관리하는 임사(任司)를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소문중과 파문중의 크기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사문중(私門中)”을 대문중과 구분되는 문중조직으로 표시하였다. 대문중은 이광규의 분류에 따라 문중간 연합체적 성격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보며, 밀양박씨 계파문중과 진도 밀양박씨 대문중 모두 여기에 속한다.

19) 밀양박씨가 칠전리로 이주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구술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혼란은 과거 뱀굴 입구에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전설상의 마을인 “상팔(上屈)”에 대한 이야기와 결합되어 있다. 한 갈래의 전설에서는 밀양박씨가 상팔에 이주했다가 터가 좋지 않아 후에 칠전으로 옮겨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팔에 있는 들보를 옮겨와 다시 지었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에 근거하여 마을의 시거시기를 잡는 이들은 칠전박씨의 이주가 17세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반면 다른 갈래의 전설에서는 상팔에 살던 사람들이 행패를 부려 관아에 토벌됐고 (혹은 마을이 불타고), 진도읍 주변에 거주하던 밀양박씨가 칠전리로 집단 이주하는 과정에 집지를 나무가 부족하여 상팔 쪽에 남은 나무를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전설이 옳은지 확인할 수 없어 이주 과정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칠전에 자리 잡은 밀양박씨는 규정공(糾正公) 박현(朴鉉)의 5세손인 박심문(朴審問)을 파시조(派始祖)로 모시는 청재공파(淸齋公派)이다. 질정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그는, 세조 때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를 모의하였으나, 사육신의 처형 소식을 듣고 의주에서 자결하였다. 당시 그는 후손들에게 숨어 살 것을 당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재공파 4대손인 박용(朴容, [표 I-2]의 제일 위)은 세 아들을 데리고 진도로 왔다. 박용의 자식인 박연(朴衍)과 박정(朴挺)은 진도 설군 유공자로 진도 향현사(鄉賢社)에 배향되었고, 이들은 입도조 시기부터 진도의 토착세력이었던 창녕조씨와 통혼을 하면서 진도의 명문 씨족으로 부상하였다(진도군 2007: 300~301).

진도의 밀양박씨는 크게 입도조(入島祖) 박용의 세 아들인 박연(朴衍), 박정(朴挺), 박동(朴棟)에 따라 다른 계파로 나뉜다. 각각을 장파(長派), 중파(中派), 계파(季派)로 구분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사족계(私族契)를 형성하여 시제를 모신다. 칠전의 입향조는 이중 계파인 박동(朴棟)의 자손으로 여겨지며, 그를 주백으로 모신 충효사(忠孝社)가 칠전의 동쪽 큰각금(大山) 앞에 있다.

박동(朴棟)의 3, 4세손인 박후령(朴厚齡)과 박인복(朴麟福)은 모두 임진왜란에 참여하여 순절했다. 특히 박인복은 백의종군 했던 아버지에 이어 군관으로 참전하였으며, 이후 훈련관으로 명량해전에 참전하였고 해당 전투에서 전사하여 선조로부터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을 하사받아 칠전박씨의 핵심적인 인물이 된다. 또한 그의 두 아들인 박성(朴晟)과 박섬(朴暹) 역시 아버지의 덕으로 벼슬을 하였고, 박성은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복권을 위해 이인거가 일으킨 난을 진압하는 데에 공을 세워 소무원종공신녹권(昭武原從功臣錄券)을 하사받았다.

장흥임씨의 족보는 입향조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전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향조 임기윤(任杞尹)을 어매장군(禦侮將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밀양박씨와 혼인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 칠전리에 거주한 이들은 군공을 바탕으로 한 내력을 중심으로 칠전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인복의 장손인 박성의 자손은 대부분 의신면 돈지리(敦地里)에 자리 잡아 “돈지집”으로 불리며, 칠전리에는 주로 차남인 박섬의 자손들이 자리 잡게 된다. 칠전리의 핵심적인 인물은 박섬의 장남 박윤순(朴允純)의 일곱 아들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연구자는 칠전 마을의 시거 연대를 160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으며, 박윤순과 그 아들 대에 칠전리로의 본격적인 이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들 7형제는 박종구(朴宗壽), 박종의(朴宗義), 박종림(朴宗林), 박종량(朴宗亮), 박종빈(朴宗彬), 박종도(朴宗道), 박종지(朴宗智)이다. 칠전리는 특이하게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학계를 1684년에 만들어 서당교육에 힘썼고, 1714년에는 학계의 재산을 새긴 철비(鐵碑)²⁰를 서당 옆에 세웠다. 다른 진도의 마을들이 상대적으로 동계(洞契)를 먼저 만들었던 것과 달리 칠전리는 1881년 동계안이 처음 만들어지기까지 학계를 먼저 만들어 운영²¹하였다.

4) 칠전리의 인구 구성

현재 칠전리 인구는 140가구에 256명(2014년 12월)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밀양박씨가 다수를 차지한다. 주민들 스스로 “6.25 이전만 해도 300가구 중에서 임씨가 세 집, 윤씨 두 집, 조씨 두 집, 이씨 한 집, 정씨 한 집을 제외하고는 전부 박씨”라고 주장할 만큼 칠전리는 밀양박씨 단일의 집성촌이다.

다음의 [표 I -3]에서처럼 칠전리의 인구 구성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밀양박씨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이후로 타성의 유입이 늘기는 하였으나, 1976년에는 85%, 최근인 2013년에는 75%로 여전히 마을 대다수를 밀양박씨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 홍대한(2009: 5~6)은 조선 후기 철비 47개를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철비가 선정비나 불망비 등의 성격이었던 것에 비해 칠전리의 철비는 그중 유일한 학계비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한, 시기상으로도 대부분의 철비가 18세기 중엽 이후 만들어지는 것을 고려 할 때 상당히 이른 편에 속한다. 그는 “철비는 목비나 석비에 비해 귀중하게 다루어졌으며, 철비가 세워진 가문은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한다”(ibid. 15)고 지적한다. 이처럼 철비는 부를 축적한 집단이 그 부를 외부에 과시하는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칠전리에 자리 잡은 밀양박씨 역시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칠전리로 이주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철비를 세워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철비의 내용이 학계비였다는 점은 칠전리에서는 마을 초기부터 교육에 대한 열망이 상당했음을 잘 보여준다. 칠전리 외 진도의 다른 마을에도 철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공출되었다. 칠전리의 철비도 공출 대상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지켜내면서 보존될 수 있었다

21) 현재 칠전리의 학계에 대한 기록은 칠전리 서당의 유후각에 남겨진 철비의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학계 계획이 남아있으나, 보존된 시기가 1903년 이후로 초기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초창기 작성된 학계안과 진도로 귀향 온 홍계유(洪啓裕)가 칠전의 학계철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를 모신 제각에 ‘수비당(守碑堂, 현재의 유후각)’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남긴 수비당기(守碑堂記)는 원문이 사라진 상태로 1950년대 만들어진 필사본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표 I -3] 칠전리의 성씨 구성

연도	총 호수	밀양박씨	타성	참고자료
1881	118호	115호(97%)	3호(장흥임씨, 조씨, 양씨)	동계안 ²²⁾
1929	157호	150호(95%)	7호	조선의 취락(후편)(善生永助 2008[1935]: 811)
1976	222호	190호(85%)	29호(전주이씨 2호)	진도군지(1976: 838)
2013	129호	98호(75%)	31호	마을비상연락망 ²³⁾

칠전의 시거성씨인 장흥임씨는 칠전리에서 자손을 많이 퍼트리지 못하고, 단일 계보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현재 칠전리에는 장흥임씨가 한집 남아 있다. 임씨를 제외한 타성들은 “과거에는 대부분 머슴을 살던 사람들”이거나, 칠전에서 태어난 밀양박씨 아내를 따라 처가살이를 오거나, 개가한 어머니의 타성 자식이 따라온 경우가 많았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북한지역에서 진도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도 전역의 마을에 배정되어 셋방살이하였으며²⁴⁾, 이들 역시 칠전 타성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이후로 완전히 변하여 진도읍이나 진도 외부에서 칠전리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의 중심 성씨는 밀양박씨이며, 이들은 칠전리의 이장(里長)을 비롯하여 노인회장, 영농회장, 청년회장 등 마을의 주요 직책을 역임²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구성은 마을의 배치와도 연결된다. 칠전 마을의 중심은 옛집이 많은 “웃동네”와 50년대 이후 마을이 성장하면서 커진 “아랫동네”로 나뉜다.

22) 이 시기에 정확한 호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일종의 자치문서인 동계안에 서명한 사람들을 호주로 보아 수를 추산하였다. 실제로, 한 집안의 대표가 서명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으나, 18세기 후반의 인구 구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아 추가하였다.

23) 진도군에서 칠전리 밀양박씨 호수에 대한 통계를 구하지 못하여, 마을 비상연락망을 토대로 마을 내 타성과 밀양박씨 호수를 직접 통계로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신생동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장태”쪽의 호수(5호)는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24) 진도 주민들은 진도 내 북한 출신 사람들을 크게 피난민과 전재민으로 나눈다. 전자가 한국전쟁 이후 진도로 피난을 온 사람들을 말한다면, 후자는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내려온 사람들을 말한다. 칠전리에 정착한 사람들은 피난민이며 진도에는 피난민들만 모여 만든 마을로 안농(安農) 마을이 있다. 이와 달리 칠전리 북쪽의 신생동은 전재민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25) 칠전리 마을지(박병훈 2002)는 1916년 이래 역대 칠전리 이장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마을 이장은 현재까지 모두 밀양박씨가 담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마을의 요직 역시 모두 밀양박씨가 맡고 있다.

아랫동네 아래로 흐르는 냇가를 건넌 마을을 “냇가건네”로 칭하며, 이 지역에 밀양박씨와 장흥임씨 외의 타성이 살았다. 과거 상여를 놓던 “생이집(상여집)”과 농기구를 손봐주던 “성냥간(대장간)” 역시 이곳이 마을의 주변부임을 보여준다. 마을 넘어 넘엔들을 지나 신생동 가까이 위치한 “장테”는 과거 옹기막과 기와막이 있었고 장터였던 곳으로 전해지는데, 이곳 역시 마을의 주요 성씨가 아닌 타성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즉, 칠전리는 밀양박씨와 장흥임씨가 모여 살던 웃동네·아랫동네가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그 외의 타성이 모여 살던 냇가건네·장테는 마을의 주변부를 형성했다.

이처럼 마을의 핵심 성씨는 밀양박씨이나, 칠전리에서 이들은 다시 어떤 조상의 후손인가에 따라 세분된다. 특히 칠전박씨 계보의 핵심은 박윤순의 일곱 아들이다. 그중 맏이인 박종구와 넷째 박종량의 후손이 가장 번성하였으며, 박종량의 후손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박윤순의 나머지 자식인 박종의, 박종립, 박종빈, 박종도, 박종지 등은 상대적으로 자손의 수가 많지 않으며, 칠전 내에 거주하는 호수도 각각 다섯 집이 되지 않아 규모가 작다. 이밖에도 의신면 돈지리 쪽으로 갈라져 나간 것으로 전해지는 박성의 후손들 역시 칠전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총 여섯 집 정도가 현재 칠전에 살고 있다. 또한, 입도조 박용의 차남인 박정의 후손들도 칠전에서 여러 대 동안 살다가 최근에 칠전리 밖으로 이주했다.

현재 남은 후손들의 규모는 마을 안에서 해당 문중이 가진 활동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후손들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사문중이 더는 존속되지 못하고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위에 제시한 종자배 일곱 형제마다 사문중이 따로 있었으나, 현재까지 해당 사문중이 활발하게 유지되는 곳은 칠전 내에 자손이 가장 번성한 박종구와 박종량의 사문중이다. 이들 사문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문중 내에서도 복잡한 분화를 보이며, 사문계를 중심으로 한 문중 사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I-4]가 보여주는 것처럼, 칠전리는 1968년 기준으로 단일 마을이 1,464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의 마을이었다.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칠전국민학교가 칠전을 포함한 주변의 중굴, 하굴, 신생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것은 당시 칠전리의 규모를 보여준다. 당시 마을에는 “주막이 여섯 곳에, 점방(가게)만 해도 대여섯 곳”이 있을 만큼 큰 마을이었다. 마을의 인구는 70년대 이후 이어진 이혼향도로 급격히 축소된다. 현재 인구는 256명으로 통계상 가장 많았던 1968년에 비해 20%도 미치지 못하게 줄었다. 이 과정에서 칠전초등학교 역시 1993년 38기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폐교되었으며, “점방 하나 없는 마을이 되었어”라는 주

민들의 푸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표 I -4] 칠전리 연도별 인구변화

연도	인구	가구수	참고자료
1929	785	157	조선의 취락(후편)(善生永助 2008: 811)
1968	1,464	238	상주인구 조사보고 전라남도편
1979	1,119	205	상주인구 조사보고 전라남도편
1983	987	221	상주인구 조사보고 전라남도편
1999	401	167	진도군 통계 연보(39)
2009	297	157	진도군 통계 연보(49)
2014	256	140	의신면 자료

4.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9월 하순에 시작하여 2015년 2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크게 연구는 문헌조사, 지명자료 수집, 묘지답사, 의례 참여관찰, 인터뷰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조사는 밀양박씨 청재공파(淸齋公派) 족보²⁶⁾, 장흥임씨 족보 및 접근 가능한 가승보(家承譜)·세계보(世系譜)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묘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등기 및 구등기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구토지 대장이나 토지대장을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묘지에 대한 관공서의 문서, 관련 통계 등에 대한 확인을 문헌조사 과정에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지명 자료의 수집을 진행하였다. 지명은 인간이 자신의 주변을 인지하고 분류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명칭 뿐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해 갖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나 경험담 역시 함께 수집하였다. 지명 자료 수집은 이미 간행된 서적에서 기록된 명

26)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밀양박씨 청재공파 족보는 모두 세 가지 판본이다. 먼저 1964년 간행된 판본으로 이전 판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소장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1964년 족보와 면담 참여자의 정보를 종합하여 이전의 묘지 질서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자료에 대하여 칠전박씨들은 “가장 정확한 족보”로 평가하고 있었다. 두 번째 판본은 1985년 간행된 족보로 묘지나 기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용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 판본은 2005년 족보로 최근의 인물까지 수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마을 내외부의 친족관계 파악과 최근 이장 장소의 전후 비교를 위해 활용하였다.

청을 수집하고, 인터뷰를 통해 해당 명칭·장소·유래를 확인하며, 빠진 지명을 수집하였다. 이후 각각의 장소를 답사하여 해당 장소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제시된 명칭은 족보상에 나오는 한자 명칭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이를 각각 ‘생활 명칭’과 ‘족보상 명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묘소의 구체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생활 명칭 위주로 제시하며 족보상 명칭은 괄호 안에 따로 표기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묘역을 직접 답사하며 해당 묘지의 묘도를 그리고, 이를 족보상의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가능한 경우 현지 주민과 동행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소개 및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묘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마을 안에서 행해진 주요 의례에 대해서는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매장·이장에 대한 참여관찰과, 마을 내 문중 행사에 대한 참여관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는 참여관찰 자체보다 해당 의례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과 묘지 변화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마을 내 문중 행사 중 묘지와 직접 관련된 구정성묘에 참여하였고, 음력 10월과 11월에 집중된 시제에도 참여하여 묘지에 대한 의견·논의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하였다. 먼저 한 부분은 칠전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였다. 칠전리 내에서는 주로 개인 인터뷰나 소집단 인터뷰(2-3인 내)로 진행하였다. 때때로 마실 나온 사람들이나 노인회관의 대화에 참여하여 연구자의 의문점에 대해 묻거나 응답의 분위기를 살피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총 21명의 칠전리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중 17명이 남성, 4명이 여성이었다. 주로 문중 관련 이야기가 많아 남성들과의 인터뷰가 많았다. 또한 연령상으로는 80대 3명, 70대 10명, 60대 4명, 50대 3명, 40대 1명으로, 상대적으로 마을의 이전 이야기를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70대를 가장 중점적으로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는 다른 방식으로는 알기 어려운 장묘제나 망자의 공간 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한 부분은 장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였다. 칠전리는 진도 내 다른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곳으로 많은 것을 진도읍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마을 안에서 장묘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외부 전문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장의사 2명, 석재사 관계자 2명, 벌초 전문가 1명, 진도 추모공원 관계자 2명, 묘지 담당 공무원 1명

등을 만나 현재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칠전리 외의 진도에 거주하는 주민 4명에 대해서도 비교질문을 던져 칠전리 주민들의 의견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칠전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이 구성된 방식을 살핀다. 칠전리 주민의 대다수가 밀양박씨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구성의 양상은 칠전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점과 칠전리 밀양박씨(앞으로는 ‘칠전박씨’로 표기)를 중심으로 한 관점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장은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이 조상의 장소와 소외된 망자의 장소라는 양 극을 중심으로 구성됨을 보이고, 그 위에서 조상의 장소가 칠전리라는 마을의 경계를 넘어 퍼져간 양상을 살핀다. 3장에서는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핀다. 이 장에서는 망자의 공간에서 기존의 양상이 역전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마을 밖으로 흩어지고, 마을 주변은 조상의 장소를 중심으로 망자의 공간이 재편된다. 이 장에서는 이를 주민들이 설명하는 원인과 함께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 4장에서는 망자의 공간 재편에서 어떤 타협의 역학이 나타나는가를 행위자인 주민들을 중심으로 살핀다. 여기서 현재의 변화가 묘소의 소멸과 영속성 유지라는 대립과, 전통질서의 유지와 새로운 영속적 수단 도입이라는 두 가지 대립의 타협으로 나타남을 지적한다. 나아가 재편되는 조상의 장소가 주민들에게 친족 연망의 재확인이라는 혈연적 의미를 중심으로 고향과의 연결이라는 지연적 의미까지 확장되어 강조되고 있음을 보인다.

II.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

본 장에서는 칠전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살펴본다. 죽음이 상반되는 두 측면을 갖듯이, 망자의 공간도 상반된 성격의 장소를 포괄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상의 장소와 소외된 망자의 장소라는 양극적 성격의 장소가 한 마을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열되는가를 살핀다. 칠전리의 중심 성씨가 밀양박씨(이하 칠전박씨)라는 점에서 이들의 선산에 초점을 맞추면 더욱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해당 공간의 구성이 한 마을 안에서 전부 파악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칠전박씨의 선산이 칠전리를 넘어 주변 마을로 뻗어 간 양상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망자의 장소가 칠전리 주변에 배열된 방식을 보여주고, 나아가 망자의 공간에 한 부분인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집단성의 규율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살필 것이다.

1. 칠전리 주변 망자의 공간

망자의 공간에 형성된 질서를 칠전리 주변에서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마을 근처 선산의 배열 양상을 통해 칠전리 주변의 묘지 간에 분화가 나타남을 보일 것이다. 이는 마을의 중심 성씨와 타성의 묘가 자리하는 위치의 차이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마을 주변의 묘지가 자리한 장소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나타남을 상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두 축으로서 조상이 묻힌 장소(조상의 장소)와 소외된 망자가 묻힌 기피의 장소(소외된 망자의 장소)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소가 갖는 성격을 대조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를 통해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논리를 설명한다.

1) 묘소의 배열 양상

자연마을인 칠전리를 중심으로 볼 때 묘소는 크게 주거 시설이 밀집된 마을 중심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으로 나뉜다. 마을 중심에 가까운 묘역에는 대부분 칠전박씨의 묘소가 들어섰고, 타성의 묘소는 상대적으로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들어섰다. 칠전리의 시거성씨로 칠전박씨에 앞서 정착한 장흥임씨 묘역은 “뱀굴(巳谷)”과 웃굴의 “샘굴(泉洞)”에 있다²⁷⁾. 일제강점기 이후, 위 묘역을 장손이 계속 관리

하여 묻히면서, 다른 장흥임씨 후손들은 “장테”에 가까운 “강구재골(姜具峙)”에 묘역을 잡는다. 이처럼 장흥임씨의 선조가 묻힌 묘역은 모두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는 칠전리 주변에 자리 잡은 다른 가문의 묘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경주김씨의 선산 역시 칠전리 서편의 “연동재(連洞峙)”를 넘어 나오는 “외얏골(外野洞)” 뒤에 있다. 이처럼 칠전박씨의 묘소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많다면, 다른 성씨의 묘는 상대적으로 마을에서 멀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섰다.

그러나 칠전박씨 묘라 하여도 내부에는 분화가 나타난다. 우선 칠전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묘역은 “큰각금(大山所)”과 “숲에(漆田西麓)”이다. 큰각금은 칠전박씨의 공동 조상인 박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문중 소유지로, 마을 주변에서 칠전박씨의 가장 윗대 조상이 묻힌 곳이다. “숲에”는 두 묘역으로 토지 소유가 구분되는데, 하나는 박종량의 장손에게 소유권이 있고, 다른 한 묘역은 진도 밀양박씨 청재공파 12대인 종자 형제 후손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 이들 묘역은 모두 칠전박씨 중 높은 어른이 묻힌 곳으로, 마을 가까이에 위치한다.

[표Ⅱ-1] 칠전리 주변 묘지 구성 (2015년 1월, 현 소유주 기준)

주요 성씨	중분류	하위분류	소유 선산 수	소유 선산 면적
밀양박씨	칠전박씨	대문중	1	65,058㎡
		박종노 후손	4	9,584㎡
		박종구 후손	7	93,900㎡
		박종의 후손	2	30,248㎡
		박종립 후손	3	1,088㎡
		박종량 후손	25	286,991㎡
	중파문중	박종빈 후손	2	25,586㎡
		대문중	1	20,844㎡
		사문중 A	4	23,898㎡
장흥임씨			1	16,860㎡
경주김씨			1	5,327㎡

위의 [표Ⅱ-1]²⁸⁾은 칠전리 주변 묘소를 지번별 소유자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

27) 사실 이 내용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칠전박씨에 비해 장흥임씨가 먼저 살았다면, 장흥임씨의 묘가 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의 건립 시기와 묘소의 성립시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것이 두드러진 것은 칠전박씨의 경우이다. 이는 차후에 설명한다.

28) 본래 연구자는 문중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고자 했으나 이 구분이 어려워 모두 파악할 수 없었다. 문중 재산의 경우 보통 문중명으로 등기를 하거나, 문중원들이 연명의

다. 이를 보면, 마을 주변에서 박종량 후손 소유의 선산이 그 수가 많고 면적도 넓다. 이어서 박종구 후손의 선산이 그다음으로 넓다. 박종노 후손들의 묘역은 원래 규모가 큰 편이었으나, 현재는 많이 축소되었다. 이들은 마을 동쪽의 “천방(天防)”을 중심으로 선산과 위토답이 있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을 판매하였지만, 이전 선산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었다. 이밖에 박종의, 박종립, 박종빈, 박종지, 박종도 후손의 묘역은 칠전리 주변에서도 상대적으로 제한된 부분만 남은 상태이다.

또한, 칠전리 주변에는 밀양박씨 중파문중의 선산도 남아있다. 계파(季波)에 속하는 칠전박씨들과 구분되는 이들의 묘역은 “웃굴방죽(七田堤)”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천방사(天防祠)”와 그 뒤에 산지를 말한다. 이곳은 계파문중의 중시조인 박정(朴挺)과 윗대 선조들이 묻힌 곳으로 이들의 직계 후손은 현재 칠전리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이들의 다른 묘역은 “바깥연동(外連洞)”에 있는데, 이 지역은 밀양박씨 중파 문중의 자손으로 칠전리에서 한동안 거주했던 이들이 선산으로 삼았던 곳이다. 이들은 상당한 재산을 모아 칠전에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이들은 칠전리에서 상당히 먼 곳에 묘를 쓰고 있으며, 마을에서도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이들은 칠전리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선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를 단순히 거리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묘소가 만들어진 시기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묘소는 밀양박씨 중파문중의 선산 중 천방사가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진도 입도조 박용의 차남인 박정과 그의 아들인 박충손(朴忠孫), 손자인 박식(朴軾)과 박곤(朴輓) 등의 묘가 있다. 그다음에 만들어진 묘소는 큰깍금에 있다. 이곳에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계파문중인 칠전박씨의 묘소가 있다. 셋째로 만들어진 곳은 천방폭포 위에 모셔진 박성(朴星)의 묘가 있는 곳이다. 뱀골에 있는 장흥임씨의 묘소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초창기 묘소인 천방사 지역의 박정 묘소는 그 입지가 칠전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²⁹⁾. 오히려 마을과 관련성을 찾기 적절한 것은 두 번째 묘소인 큰깍금이다. 이 묘소는 시기적으로 칠전리에 장흥임씨가 정착하기 전부터 있던 곳

로 등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이것이 해당 문중의 재산일 수 있다. 선산은 본래 장자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비록 문중 선산이라 할지라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인명을 통해 확인하여 칠전리 주변의 선산을 소유자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누구의 후손인지 파악할 수 없는 땅은 이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29) 차후에 살펴볼 전설 상 이 묘역이 만들어진 시기는 칠전리 설촌 이전에 만들어진 묘지로 추측할 수 있다. 관련 전설은 [사례 II-7]에 수록하였으며, 이후 2장 2절의 명당에 대한 부분에서 다룬다.

으로 보이며, 칠전박씨들은 이곳에 마을보다는 묘소를 먼저 쓴 것으로 추측된다³⁰⁾. 이런 배경에서 칠전리에 앞서 거주했던 장흥임씨가 선산을 마을 주변에 쓰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뱀굴 쪽에 묘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칠전리에 밀양박씨들이 정착한 이후에는 마을 주변 지역의 묘를 주로 칠전박씨들이 썼던 것으로 보이며, 타성의 묘는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더 먼 곳에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숲에”의 묘소이다. 이곳에는 칠전리로 이주한 박윤순의 아들 중 차남인 박종희와 넷째인 박종량의 묘가 있는데 이곳은 마을에 가깝게 붙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주 초기부터 밀양박씨의 위세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칠전리를 중심으로 묘소를 살펴보면 마을 내의 중심성씨와 주변성씨 사이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심성씨, 그중 유력한 조상의 묘일수록 마을에 더욱 가깝게 자리하며, 주변적인 성씨의 묘는 상대적으로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다. 또한, 칠전박씨 내에서도 칠전리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에 따라 묘소의 규모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박성용(2002)의 자료에서처럼, 인구 비중과 이들이 차지하는 묘역의 수는 상당한 일치점을 보인다. 다만, 그는 신촌에 거주하는 밀양박씨의 묘소에서 나타나는 질서에서 적장자를 다른 형제보다 우선시하는 양상이 묘역 내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ibid.: 48)하였으나, 칠전리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묘소의 위치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처럼 칠전리 주변 조상의 묘소는 일정한 특징을 내포한다. 즉, 마을의 중심성씨인가 아니면 주변성씨인가에 따라 묘소의 위치가 달라진다. 또한, 칠전박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마을 주변에 많은 묘지 공간을 차지하는 집안이 있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집안이 나타나는 등 내부 분화도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 분화는 망자의 공간을 분류하는 일정한 규칙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음의 두 소절에서는 이 장에서 제시한 단순한 거리의 문제를 넘어, 칠전리 주변 망자의 공간을 분할하는 두 핵심 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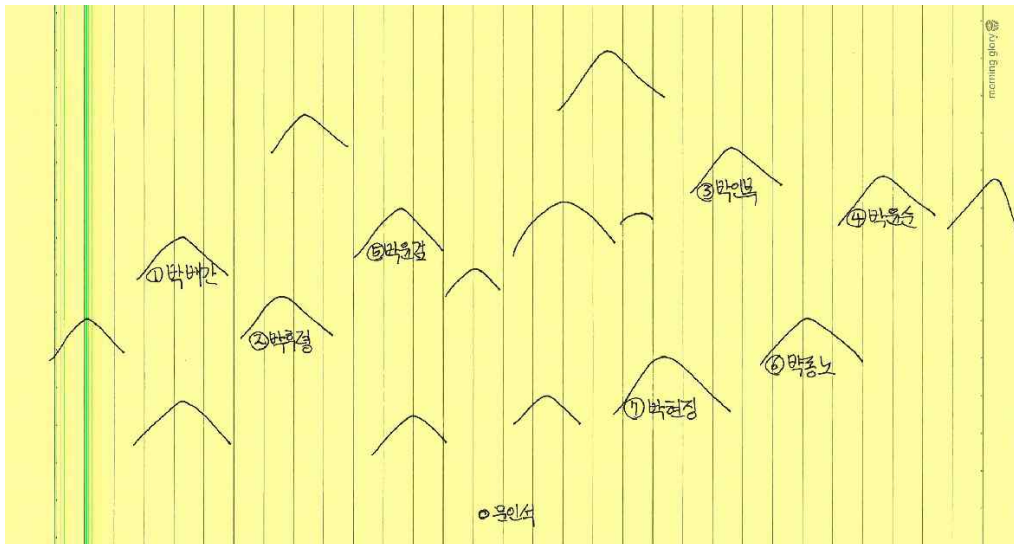
30) 큰각금의 묘소에는 임진왜란 시 순절한 공신의 묘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연구자가 판단한 칠전박씨의 시거 시기인 1600년대 중반보다 훨씬 이르다. 마을의 전설상에 이 선산이 이장된 곳이라는 이야기나 흔적은 나오지 않으며, 묘소에 대한 전설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곳의 초기 묘소가 이장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을 제외하고 논지를 전개했다. 차후 기술될 큰각금 내 묘소에서 나타나는 혼란상 역시 이장의 가능성을 낮춘다.

2) 조상의 장소

앞장에서 다룬 것처럼 칠전리 주변에는 많은 문중 선산이 있다. 이러한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은 한 가문의 선조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모시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상적인 죽음’은 유교식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조상의 조건을 갖춘 이의 죽음(송현동 2006b: 141~144)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죽음이란 결혼을 하여 망자를 기억하고 제사를 올려줄 자손을 남긴 이의 죽음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조상의 장소가 갖는 특징을 살핀다.

칠전리에서 조상의 장소 중 가장 중요한 곳은 가장 윗대 조상이 묻힌 “큰각금(大山)”이다. 마을 동쪽에 있는 큰각금은 “칠전박씨 대선산”으로도 불린다. 이곳에는 진도에 정착한 밀양박씨 청재공파의 7대손인 박배간을 시작으로 박후령(朴厚齡), 박인복(朴麟福), 박윤순(朴允淳), 박윤검(朴允儉), 박종노(朴宗老)의 묘를 비롯하여 30기 이상의 묘가 한곳에 있다.

[그림Ⅱ-1] 큰각금 묘역도 ([그림Ⅱ-2]의 ㉠ 지역)



핵심이 되는 묘역의 구성도를 보면 [그림Ⅱ-1]과 같다. 박성용(2002)은 청도군이시면 신촌의 밀양박씨 연구 사례에서 묘를 만드는 밀양박씨 특유의 방식으로 역장법(逆葬法)³¹⁾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웃어른의 묘를 아래에 모시고 후손의

31) 역장법(逆葬法)이란 윗대 선조의 묘소를 산 아래에 조성하고 후대 자손의 묘를 위로

묘를 위에 두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진도의 밀양박씨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칠전박씨는 묘역을 조성할 때 웃어른의 묘는 위에, 같은 높이라면 왼쪽에 모시는 보편적인 소목의 법을 따랐다.

다만 큰각금에 나타나는 묘소는 이러한 규칙이 완벽히 구현된 장소는 아니다. 이곳에는 계보상 가장 높은 어른인 ①박배간과 ②박후령의 묘([표Ⅱ-2]에 표기된 번호 참조)를 상대적으로 왼편에 치우친 중간 높이로 모셨다. 전체 묘역의 가장 높은 곳에는 ③박인복의 묘³²⁾가 있다. 이는 칠전리에서 박인복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박인복은 같은 전쟁에서 백의종군했던 자신의 아버지 박후령과는 달리 무과에 급제하여 이후 훈련원 주부까지 오른다. 그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지휘한 명량대첩에 참전하여 전사하였으며, 이후 선무원종공신녹권을 받아 임진왜란의 공신으로 인정되고, 형조참판으로 추증된다. 이후로도 여러 번 추증 됐고, 칠전리 내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하사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묘역의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위치에 그의 묘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공이 높고 존경할만한 조상을 제일 높은 위치에 두되, 계보를 나타내는 질서를 되도록 지키는 것이 이 묘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다만 묘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직계의 경우 상하관계를 더욱 엄밀히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나, 방계 간에는 이러한 원칙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었다³³⁾.

쓰는 방식을 말한다. 박성용은 주민들의 말을 빌려 “박이라는 식물은 밑에서 자라 위로 올라가면서 박을 맺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묘소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썼다”고 그 이유를 밝힌다. (박성용 2002: 35)

32) 이보다 더 크게 만든 묘가 위에 보이는데, 이 묘에는 비석이 없었다. 주민들은 누가 묻히었는지 모르는 이 묘를 ‘고묘(古墓)’라고 불렀다. 주민들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진도에서는 보통 새로 묘역을 만들 때 그 장소에 방치된 묘가 있다면, 이를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묘역을 구성한다. 이렇게 포함된 묘는 본인들의 조상이 아니지만, 한 묘역에 있어서 함께 별초와 보수를 해준다.

33) 이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의신면 만길리에 있는 선산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표Ⅱ-2] 큰각금에 모셔진 초기 조상 (원의 숫자는 [그림Ⅱ-1]에 대응)



현재 대문중에서 관리하는 큰각금의 묘소는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구역은 [그림Ⅱ-2]의 ㉠ 지역으로 방금 설명한 제일 윗대 선조들([표Ⅱ-2]에서 볼드체에 밑줄 그은 인물들)을 모신 장소이고, 두 번째 구역은 [그림Ⅱ-2]의 ㉡ 지역으로 박윤순의 장자인 박종구의 후손들에게 할당된 구역이다. 사실 이곳에는 박윤순의 동생인 박윤무의 묘, 박종구의 동생인 박종립의 묘 등이 혼재([표Ⅱ-2]의 네모로 둘러 볼드체 및 이탤릭체로 나타낸 인물들)되어 복잡한 배치를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로 묶여 ‘장남집’ 묘역으로 여겨진다. 별초를 비롯해 들어선 묘지의 관리는 계과 대문중 측에서 담당하지만, 묘비의 신축이나 묘지 이장은 박종구 후손들의 사문중에서 맡는다. 마지막 구역은 위의 두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로 [그림 2]의 ㉢ 지역을 말한다. 이곳에는 망자의 사인과 상황에 따라

[그림Ⅱ-2] 큰각금 내부 분류

(출처: 다음 지도)



대문중의 허락을 받고 써야 하는 영역이다. 최근에는 그 허락을 받는 것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으나, 묘역 내에서 가장 웃어른들이 모셔진 묘보다 높은 고도로 묘를 쓰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된다.

주민들은 이 장소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큰각금은 “따뜻한 곳”이며, “눈이 내려도 빠르게 녹는 곳”임을 꼽았다. 이들은 큰각금이 어디까지나 양지바른 곳이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기 때문에 조상을 모시기 적합함을 지적한다. 다른 한 특징은 이 대선산의 위치가 “마을 전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림Ⅱ-3]의 사진처럼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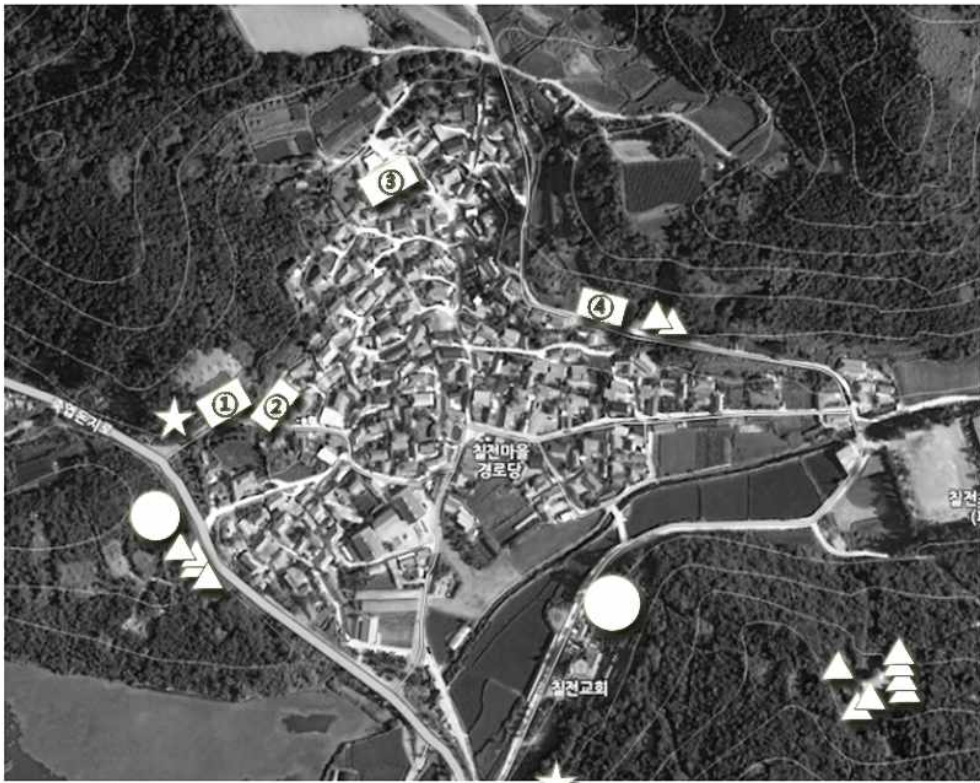
각금에 올라서면 칠전 마을 전체를 굽어볼 수 있다. 현재 묘역 하단부의 대나무 숲 때문에 묘역의 상단부에 올라야 마을 전체가 보이지만, 과거에는 대나무 숲이 없어 묘역 어디서든 마을을 직접 굽어볼 수 있었다.

[그림Ⅱ-3] 큰각금에서 바라본 칠전리 전경



이처럼 마을을 한눈에 굽어보는 위치는 윗 조상들을 모실 때 중요하게 고려된다. 큰각금 외에도 마을 서북쪽의 “숲에(漆田西麓)” 역시 비슷한 의미의 입지를 보인다. 이곳에는 박종의(朴宗義)와 박종량(朴宗亮) 등 큰각금에 모셔지지 않은 종자배 인물이 묻혔다. 별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라는 점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후손들이 함부로 묘를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림Ⅱ-4] 칠전리 마을 주변 송조(崇祖) 시설 (출처: 네이버 지도)



※ 범례	□: 재각	○: 효자각, 열녀각
	△: 학행비	☆: 효자비, 열녀비

또 다른 유사 의미의 연장으로 칠전리 재각의 입지를 살펴볼 수 있다. 주로 음력 11월에 시제를 모시기 위해 개별 사문중에서 만든 재각은 칠전리 주변에 총 여섯 곳이 있다. 이 중 마을에 인접한 재각은 총 네 곳으로, 모두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 네 건물은 ① 영달사(永達祠), ② 영화사(永和祠), ③ 세영사(世永

祠), ④ 송조사(崇祖祠)로 [그림Ⅱ-4]에 표시된 것처럼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입지하며 마을 전체를 굽어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한다. 영달사와 영화사는 박종량 후손들의 재각으로, “숲에”에 있는 그들의 선산 앞에 세워졌다. 박종구의 후손들이 만든 세영사(世永祠)나, 박종량의 다른 후손들이 만든 송조사(崇祖祠)는 그들의 선산과 큰 관련이 있는 입지는 아니다. 다만 박종구 후손들은 세영사의 위치가 “처음 종자 구자 씨가 칠전리에 자리 잡은 곳”이라고 그 의미를 밝힌다. 네 곳 모두 조상을 모시기 위한 건물이며, 이 위치는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을 굽어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큰각금의 아늑하고 따뜻한 이미지는 해당 장소의 위치적 특성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동시에 선산을 돌보는 후손들이 들인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선산의 묘는 관리되는 묘이며, 이는 곧 봉분의 풀을 벌초하고 끊임없이 보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묘역 전체를 대문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묘역 주변이 번식력이 강한 나무나 대나무로 뒤덮이지 않을 수 있다. 즉, 이곳이 계속 밝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를 다듬는 인간의 행위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묘비의 건축 및 교체에서 잘 드러난다. 1970년대 이전 진도에서 사용하던 묘비의 석질은 화강암으로 표면이 상당히 거칠며, 쉽게 부식된다.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묘비임에도 표면에는 마치 꽃이 피어오르듯 결정이 잡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묘비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깨지거나 심하게 부식된 묘비는 그대로 방치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기존의 묘비를 가까운 땅에 묻고 새로이 비석을 세운다. 설령 자손들이 바로 교체하지 못하더라도 묘비의 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음각된 비문 위를 희게 덧칠해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끊임없는 노력은 조상의 장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며, 잘 정돈되고 깔끔한 곳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인상은 그곳을 관리하는 후손들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조상의 장소가 갖는 상징적 중요성은 이러한 경관적 측면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돈된 경관적 측면은 개별적인 묘를 통해 구현되는 집단성을 시각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라야마는 ‘독거(獨居)’가 한국의 묘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성임을 강조하였다(무라야마 1990[1940]: 301). 일제강점기의 촉탁인 그는 당시 조선인들에 대해 산 사람은 집단 거주를 하여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것과 달리, 죽어서 묘에 묻힐 때는 개인이 따로 안치됨을 지적하였다. 물론 부부의 경우 죽은 후 한 봉분에 묻어 합폄(合窆)을 만드는 경우도 많으나, 그 단위는 부부

를 넘지 않는다. 진도의 경우 설령 함께 묻더라도 바닥에는 광중(壙中)을 따로 파서 부부를 나란히 묻는다. 묻힌 부부의 혼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두 광중 사이에 작은 구멍을 파지만, 합장하여도 뼈는 결코 섞이지 않는다. 이는 진도의 묘가 기본적으로 개별성을 유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별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가 묘비이다. 묘비는 무덤에 묻힌 망자의 이름은 물론 그의 약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업적을 남긴 개인의 묘는 주변 묘역을 더욱 중요한 곳으로 그 상징적 가치를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칠전리에서 가장 높은 벼슬로 추증된 박인복이 한 묘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묻혔던 이유도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조상의 장소 전체로 볼 때는 개별성 보다는 선산이라는 혈연적 집단성이 강조된다. 한 묘역 내에서 개별 묘소의 위치는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다. 한 묘역 내에는 각각의 개별 묘소 간 상하질서를 공간화·시각화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큰각금에서의 일부 예외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묘는 선조를 좌측 위에, 후손은 우측 아래에 두는 보편적인 소목의 규칙³⁴⁾을 따른다. 여기서 상하 질서의 핵심은 문중 내 계보적 질서이다. 큰각금의 사례에서처럼 초기 묘역에도 직계사이의 상하관계를 철저하게 따지는 양상이 드러난다. 특히 칠전박씨라 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큰각금에 새로 묘를 쓰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칠전리에서도 묘는 개별성이 유지되지만, 동시에 묘역 내 개별 묘의 위치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성격이 강조된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위치에 묘가 들어서는 것을 허가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난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난을 받을 경우 해당 사문중의 구성원들간에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상의 장소에서는 각각의 묘가 개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묘 사이의 배열을 통제하여 묘역 전체로 형성되는 혈연으로서의 집단성이 강조된다.

퍼스(Firth 1936)가 연구한 전통적인 티코피아 사회에서 파티오(patio)는 집이 자 씨족인 동시에 무덤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그 바닥에 함께 묻음으로써 그들 씨족의 근간으로 삼는다. 2차장의 과정을 통해 살이 사라진 조상을 뼈만 추려 장옥(長屋, long house)에 함께 모시는 다약 족의 사례(Hertz

34) 이는 에르츠가 지적했던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왼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보편적인 방식(Hertz 1960[1909])이 묘의 위치구분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식의 중심은 조상의 시각이다. 왼쪽에 손윗사람의 묘를 두고 오른쪽에 손아랫사람의 묘를 두는 것은 묘를 바라보는 후손의 시각이다. 이들이 고려하는 것은 조상의 시각으로 후손을 내려다보는 조상들의 시각에서 같은 고도라면 윗사람이 오른쪽에, 아랫사람이 왼쪽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오른쪽-위-높은 사람, 왼쪽-아래-낮은 사람이라는 상징적 위치가 주어짐을 보여준다.

1960[1909])나 메리나(Merina)에서 죽은 친족의 뼈를 한곳에 모으는 2차장의 사례(Bloch&Perry 1982: 34)는 모두 망자의 개별성이 소멸된 후 조상으로 통합되는 집단성을 강조한다. 블로흐와 페리는 복장제에 대한 설명에서 1차장의 과정에서 살을 썬다는 것이 망자가 갖는 개별성을 없애는 것이며, 남은 뼈를 선조들과 함께 묻는 것은 이들의 무덤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집단의 표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임을 지적(ibid.: 34)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친족 집단을 표상하는 무덤의 질서가 개별성의 거부와 집단성의 강조를 통해 상징적으로 재구성됨을 보여준다면, 칠전리 조상의 장소는 한국에서 이러한 개별성의 거부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여기서 개별성은 개인의 계보적 질서상 위치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물론 칠전리 조상의 묘역은 블로흐와 페리의 지적처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집단의 표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개별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개별성 사이에 위계질서를 부여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는 묘역 내 종족 구성원의 상하관계를 드러내며, 상호 간의 계보적 질서를 한 장소 안에서 재현한다. 따라서 조상의 장소는 한 묘역 내에서 각각의 개인을 드러내는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간 계보적 상하관계를 묘의 위치를 통해 규정하여 동일 친족의 집단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조상의 묘소는, 지금의 재각이 세워졌던 1970년대 이전에는 시체를 지내던 곳으로 의례적 공간이기도 했다. 보통 음력 10월 혹은 11월에 지내는 이 시제는 마을의 문중 구성원들이 모두 모이는 때였다. 그러나 조상의 묘소는 단순히 의례적이며 신성한 공간인 것만은 아니다. 한경구와 박경립(1998: 793)은 조상의 묘소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가 고요하고 포근한 곳임을 지적하였고, 최길성(2010: 20~22)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 조상의 묘소가 편안한 곳이자, 놀이터였음을 강조했다. 칠전리에서도 조상의 묘소가 갖는 이미지는 외경보다는 편안함에 가까웠다. 칠전 마을 북동쪽의 “숲에”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곳은 아이들이 많았던 과거에는 넓은 묘역과 함께 비탈진 공터가 있었기에 마을의 주요 놀이터였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마대로 눈썰매를 타기 좋았던 곳으로 기억된다는 점에서 조상의 장소는 신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기보다 친숙하고 세속적인 영역에 밀접하게 결합된 곳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상의 장소는 조상의 유해가 묻혀있고, 조상에 대한 의례를 지내는 곳으로 신성한 장소이다. 그렇기에 묘소는 정갈하게 관리되며, 내부에 모셔진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지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장소 상에 구현된 질서정연한 곳

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이곳이 후손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워지면서 완화된 다. 조상의 장소는 마을 가까이 위치하며, 후손들을 굽어본다. 이때, 후손들을 돌보는 조상과 후손의 거리는 가까우며, 조상의 장소는 아이들이 놀거나 자손들이 찾아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서 그 친숙한 성격이 강조된다. 또한, 조상의 장소 안에서 칠전리의 선조들은 각각의 개별성은 유지하면서도, 한 장소 내에 계보적 질서를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문중의 조상이라는 집단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한다.

3) 소외된 망자의 장소

조상의 장소가 ‘정상적 죽음’을 맞은 선조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모신 곳이라면,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이와는 대립된 성격을 가진다. 이는 어떤 점에서 대립되는가에 따라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한 차원에서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정상적 죽음’과 대비되는 ‘비정상적 죽음’을 맞은 ‘소외된 망자’와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조사(早死)한 어린아이를 묻은 아장터³⁵⁾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한 차원에서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묘 사이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돈의 공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망자의 장소 중에서도 온전히 조상의 장소가 되지 못하는 ‘소외된’ 장소이다. 칠전리 주변에서는 공동지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두 장소 모두를 소외된 망자의 장소로 칭하며, 이 소절에서는 조상의 장소와 대비되는 두 장소를 각각의 대립 축에 따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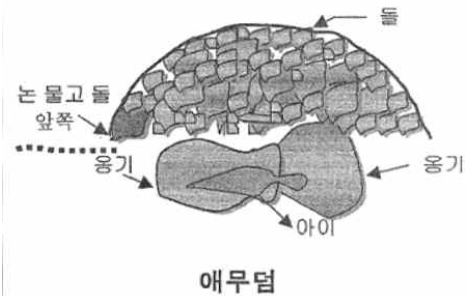
우선 ‘비정상적 죽음’과 직결되는 ‘소외된 망자’에 대한 장소로 칠전리에는 아장터가 있다. 여기서 아장(兒葬)은 장성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을 장사지내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아이들의 시신이 묻힌 곳이 아장터이다. 어린아이의 죽음은 결혼하지 못한 이의 죽음이자, 제사를 지내줄 자손을 남기지 못한 이의 죽음 이기에 ‘비정상적 죽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진도에서 아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쟁이 썸(혹은 오장치 썸)”과 “(독)다멸”이 그것이다. 오쟁이는 “짚으로 만든 망태기와 비슷한 것”으로 입구는 좁고, 바닥은 넓게 만든다. 오쟁이에 병에 걸려 죽은 3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넣어 산 위 나무에 매다는 것이 “오쟁이 썸”이다. 진도 전역에 있던 것³⁶⁾으로 보이며, 현재도 임회면 상만리

35) 연구자는 칠전리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진 못했다. 다만, 『진도문화』 잡지에서 진도의 아장과 관련된 전통을 소개하면서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보통은 “다멸” 혹은 “애무덤”이라는 용어로 이를 칭하지만, 이는 무덤의 이름이지 묘역의 명칭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아장터를 일찍 죽은 아이들의 무덤을 둔 장소로 사용하였다.

에는 “옛날에 죽은 아기를 나무에 매달았던 곳”으로 기억되는 아장목(兒葬木)이 남아있다. 이러한 관습은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은데, 일제 강점기 중에 사라진 것으로 진술된다. “다벌”은 병사(病死)한 어린아이를 향아리에 넣고 산에 묻어 그 위에 돌을 쌓는 매장법을 말한다. 이 역시 현재는 사라진 방식으로 70년대까지는 진도 전역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Ⅱ-1]은 칠전리의 옆 마을인 침계리 주민이 애무덤, 즉 다벌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남긴 글이다.

[사례Ⅱ-1] 다벌 만드는 방식

어린이 시체를 웅기둥이에 넣고 또 한 개의 웅기로 합해서 땅에 묻었다. (중략) 그날의 일진을 보아 손이 가지 않는 곳 즉 음력 1~2일은 동쪽에 손이 가고 3~4일은 남쪽, 5~6일은 서쪽, 7~8일은 북쪽에 손이 가니 이 4곳 중 손이 가지 않는 쪽을 택하여 땅을 웅기 둥이가 보이지 않도록 파서 묻은 다음 30~40개의 호박 크기의 돌을 주 어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아장 제일 앞쪽에는 논 물을 대는 곳의 돌 즉, 물고돌을 사용하는데 이 유는 멧돼지나 여우의 침입을 막는 이치이다.

매장은 밤에만 만들었는데 호박돌 크기의 돌을 모으는데 달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아주 곤란했다. (조영춘 2014: 125)

이러한 두 방식의 아장법 중 현재 칠전리 주민들이 주로 기억하는 것은 다벌이다. 과거 의료기술이 부족하고 약이 없던 시절, “마을에 홍역이나 천연두가 겨울에 돌면 한 마을에 4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인구가 1,000명이 넘는 큰 마을이었던 칠전리는 병이 한번 돌고 나면 죽는 아이들의 수도 많았다. 이렇게 죽은 아이들을 위해 마을 주변에 다벌을 만들었기에, 당시만 해도 “사방에 다벌이 짹짹 들어”왔다.

이들은 다벌을 만드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여우가 죽은 아이를 좋아해서 무덤을 파고 시체를 물고 가는데, 아이를 단단한 “독(웅기)”에 넣고 위에 무거운 돌을 얹으면 여우나 짐승이 이를 파먹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례Ⅱ-2]

36) 이를 다룬 『진도문화』 기사에서는 진도읍 동외리, 군내면 덕병리, 고군면 석현리, 지산면 소포리, 임회면 삼막리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힌다.

에서도 “물고돌”을 사용하는 이유로 멧돼지나 여우의 침입을 막기 위함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는 것은 무서운 역귀가 아이 몸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므로, 아이를 독에 넣어 묻고 그 위에 돌을 얹어 눌러서, 역귀가 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는 수술적 의미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 칠전리 주변에는 다벌이 많았지만, 아무 곳이나 만들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다벌을 만들려면 돌이 많이 필요하기에, 호박 크기만 한 돌을 줍기 쉬운 장소를 골라 다벌을 만들었다. 또한, 다벌을 만들 때는 마을에서 직접 보이지 않거나, 어느 정도 거리가 먼 곳에 이를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다벌은 경사지면서 “음척하고(음산하고) 어덩한(어두운) 곳”에 만들었다. 칠전리 주민 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다벌을 만들었던 곳은, [그림 II-5]의 ○이라 표시한 “도채비굴(道臺洞·倒釵洞)”, “갓굴(笠洞)”, “천방폭포(天防瀑布)”로 가는 길, “사분산(巳奔山)” 바깥 부분, “진굴(泥洞)” 모퉁이, “상꿀테”가 주로 언급되었다.

칠전리에서 다벌을 만든 장소는 “또깨비(도깨비)” 이야기가 있는 장소와 겹친다. 칠전 마을에서 이야기되는 도깨비는 허깨비에 가까운 것이었다. 진도에서 도깨비는 술에 취해 돌아오는 사람에게 씨름을 걸고 다음 날 가면 빗자루가 있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며, 한밤중에 날아다니는 불꽃인 도깨비불이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헛것을 보이게 하여 사람을 홀리는 귀신이기도 하다. 칠전리 주변에서 이러한 도깨비 이야기가 있는 장소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지역([그림 II-5]에서 ◎로 표시된 지역)은 마을로 통하는 주요 도로의 외진 길목이며, 다른 한 지역([그림 II-5]에서 ○로 표시된 지역)은 아장터가 위치한 곳과 뒤에 기술할 공동지이다.

[그림Ⅱ-5] 칠전리 주변 아장터와 도깨비 이야기가 많은 장소 (출처: 다음지도)



※ 범례 ◎: 도깨비 이야기 장소 ○: 다벌과 도깨비 이야기가 겹치는 곳

우선 마을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서 과거의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사연과 함께 도깨비 이야기가 나타난다. 진골에서 칠전으로 올라오는 길은 일제강점기 강제위안부에 끌려가던 사람들이 울며 지나간 길이라 하여 도깨비가 잘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또한, 마을 북쪽의 “넘앤들 방죽/월치제(越峙堤)” 주변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던 곳이고, 신생동 위쪽의 “혼고시다리” 역시 흐르는 냇물이 폭은 좁으나, 수심이 깊어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던 곳으로 두 곳 모두 도깨비 이야기가 많았다. 이 밖에도 진도읍에서 남도진(南桃鎭)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던 중굴 뒤의 “꿀재(屈峙)” 역시 도깨비가 나와 이를 피하고자 “재를 오르면서 돌이나 술가지를 꺾어 정상에 두고 넘어가야”만 했던 곳이다. 이런 장소에서 나타나는 도깨비는 씨름을 거는 사람처럼 특정한 형상을 지닌 것부터, 돌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특수한 경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지나가면 항상 읍내에서 사오던 고기를 빠트리고 오는 개인의 실수가 반복되는 곳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한, 함께 길을 가자고 했던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귀신 이야기³⁷⁾가 도깨비 이야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한 종류의 장소는 아장터와 직접 연관된다. 이곳의 도깨비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에 비해서는 모호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아장터에서 나오는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꺼렸으며, 물어봐도 대답 없이 웃으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도채비굴(道疊洞/倒釵洞)³⁸⁾”은 주민들에게 “또깨비가 잘 난다”고 회자되는 곳으로, “다른 곳의 또깨비보다 크나큰 또깨비”가 난다고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도채비굴에서 상꿀테로 또깨비뿔이 오락가락”하더라는 이야기처럼 연구자에게는 특정한 사연을 말하기보다는 이곳에서 나타난 도깨비불 이야기를 주로 했다.

도깨비 신앙에 대해 정리한 김종대(2004)는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도깨비 신앙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구분하였다. 그는 해안지역의 도깨비는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내륙지방의 도깨비는 ‘물리침의 대상’으로 여겨졌음(송기태 2011: 169)을 지적했다. 그는 내륙지방의 도깨비가 역신(疫神)이자 화재신(火災神)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밝힌다. 농경이 주요 생업인 칠전리의 도깨비는 내륙지방의 도깨비처럼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다. 따라서 도깨비에 홀린 경우 무당을 불러 쫓으려 했거나, 마을의 여성들이 몰려다니며 도깨비굿³⁹⁾을 했다는 이야기가 칠전리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다만 칠전리에 전해지는 도깨비 이야기에서는 화재신으로서의 면모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도깨비굿은 역신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며, 일상의 이야기에서 도깨비는 사람을 홀리는 대상으로 귀신과 혼용⁴⁰⁾되고 있었다.

37) 이전에 꿀재가 있었던 시기에 한 칠전리 주민이 이 길을 내려오다가 낮선 사람을 만나 같이 내려왔다. 이 길을 내려온 주민이 냇가를 건너기 위해 바지를 걷는데, 함께 온 사람을 보니 물 위를 걷고 있었다. 도깨비에게 홀렸다고 하여 그 집에서는 당골네(무당)를 불러 굿을 했다. 이 이야기에서 도깨비는 사람을 홀리는 귀신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도깨비와 귀신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했으며, 이곳에서는 양자가 상당히 밀접히 연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38) “도채비굴”의 어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또깨비가 많이 나와서” 도채비굴로 부른다고 하여 양자를 연관 짓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달리 의신면지(2009: 452)에서는 도채비굴의 “도채비”가 “근부(斤夫)”였다고 밝히기도 하여, 도깨비와 무관하게 보는 관점도 있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기에 이 글에서 지명과의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39) 칠전리에서 도깨비굿은 “호열자(콜레라)” 같은 돌림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도깨비굿은 정월 대보름에 하던 진도 세시풍속의 하나로, 밤에 여자들만 모여 속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들고 다녔다. 동네 여자들이 모두 나와, 팽과리와 장구를 아무렇게나 “또깨비처럼” 치고 다니며, 집집마다 들러 춤을 추었다고 한다. 도깨비굿을 하며 집집마다 들리면, 방문 받은 집에서는 이들에게 쌀과 돈을 주었다. 주민마다 언제 사라졌는지에 대한 증언은 다른데, 대략 1970년대를 전후하여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40) 칠전리에서 사용되는 “또깨비”라는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마을의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도깨비의 범위는 상당히 넓었으며, 사람을 홀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또깨비 이야기”로

칠전리 주민들은 다벌이 많은 곳에는 도깨비가 나오고,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하여 잘 다가가지 않았다. [사례Ⅱ-2]는 다벌을 어디에 만드는가에 대한 칠전리 주민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아장터와 도깨비 이야기가 뒤얹힌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Ⅱ-2] 다벌 만드는 장소의 특징

“골창골창(골짜기 사이사이) 으누치지(어두침침) 하니 그, 사람 이르케(이렇게) 들으가믄 그거 무선데(무서운 곳)... 그런 정도 들어가는데다가 했어. 어째서 그랬냐 하면 이전에 곤란한 사람이 애기가 죽으면 보고 싶고 인자 뵈하고 하면 땡긴다고(다닌다고) 그때 그런데 으구친데(어두운데), 무서운 그런 골창(골짜기)에다, 돌팍(돌) 있는데. (중략) 음척하니(음침하니) 가기가 성가신 데다(어려운 곳에) 애기를 묻었어. 못 찾아가게. 그런 데는 돌팍이 많이 있는데여. (중략) 애기들을 많이 갖다가 놔도 그라믄 애기들 울음도 많이 나고 그란께... 그라고 했은께. 잘 안가고 그랬어. 무서우니까. 여러이나 이렇게나 같까. 혼자 그런 데는 음척하니 무선께 안가.” (김안무, 70대)

다벌을 만든 장소와 도깨비 이야기가 얹히는 것은 애초부터 다벌을 “음척하”고 (음침하고) “가기가 성가신(어려운)” 곳에 만들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도깨비 이야기가 있는 곳처럼 혼자는 무서워서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아이를 묻어 부모가 죽은 자식을 찾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다벌을 만드는 과정에는 돌이 많이 필요하므로, 경사가 심하면서 돌이 많은 곳에 다벌을 만든다. 이런 맥락에서 다벌을 만드는 곳과 음침하고 어두운 곳,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가 겹친다.

이처럼 아장터는 그것이 들어선 곳이 도깨비가 나오는 어둡고 무서운 장소이며, 동시에 어린아이의 죽어서 묻힌 곳이라는 사실이 더해지며 더욱 두려운 장소가 된다. 따라서 아장터는 놀러 간 아이들도 그곳에서 나온 뼈를 보고 도망가거나, 도깨비불이 날아다니는 모습에 사람들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무서운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다.

소외된 망자의 장소와 조상의 장소 간의 또 다른 대비는 공동지에서 찾을 수 있다. 후자가 개별 묘소 사이의 질서를 잡아 단일 혈연의 집단성을 강조할 수 있

인식하였다. 상대적으로 50대 이하에서는 이를 귀신 이야기와 분리하여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씨름하는 대상, 술 먹고 무언가를 떨어트리고 오는 현상, 도깨비불에 대한 것만을 도깨비와 연관 지었으며,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홀리는 대상은 귀신으로 인식하여 양자를 구분하였다.

었던 것과 달리, 전자는 개별 묘소 사이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단일 혈연의 조상만 모인 곳도 아니라는 점에서 혈연적 집단성을 구축하지 못한 무질서한 곳이다. 칠전리에서 공동지는 공동묘지의 준말로, 공동묘지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제규칙」(이후 「묘지규칙」)을 제정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의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토지 소유권, 토지가격, 지형조사를 포괄하는 작업으로, 이후의 식민통치 기반을 닦는 작업이기도 했다. 「묘지규칙」의 제정은 토지 통제를 위한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정일영(2014: 76)은 당시 일제의 공동묘지 설치 논리를 “묘지 통제를 통한 식민지의 근대화·문명화의 측면과 공동 묘제를 통한 효율과 공익의 추구”라는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기존의 장묘제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시신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폐습을 근절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탕이 된다. 이와 달리 후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이었던 임야조사사업의 연장이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묘지규칙」을 통해 국유지인 ‘무주공산(無主空山)’에 가난한 사람들이 묘를 만들던 관행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에 무덤을 만들도록 규정하여 묘지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을 한정한 것이다(다카무라 2010: 162). 이를 통해 일제는 이후 식민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각종 개발과 토지 거래에서 걸림돌이 되던 묘지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다.

칠전리 역시 웃굴(上谷) 지역에는 국유지가 많으며, “배락박굴(雷巖洞)”, “샘굴(泉洞)” 쪽에는 그 이전에 사용되던 묘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국유지 중 한 곳을 지정하여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장소가 현재의 공동지이다. 초기의 공동지는 망자의 공간을 한 곳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산과 아장터를 대신할 묘지로 강요되었다. 칠전리의 공동지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으나, 칠전리 주민들은 공동지 조성 초기에 마을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이곳에 묻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은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칠전리 주민들 역시 외형적으로는 일제의 통제에 따르는 척 망자를 공동지에 매장했으나, 곧 망자를 문중 선산으로 몰래 옮겼다. 반발이 컸던 정책이었기에,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시행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묘지규칙」(1919)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선산이 있는 이들은 망자를 선산에 묻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모두 공동지에 묻도록 규정하였다. 선산과 공동지

의 대비는 그 이후로 그대로 이어졌으며, 조상을 모시는 곳이 선산이라면 여기서 제외된 모든 이들이 묻히는 곳이 공동지가 된 것이다.

[그림Ⅱ-6] 칠전리 공동지의 상층부



지금도 공동지 주변에는 묘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 묘에는 묘비가 없어 누가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묘 역시 관리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뒤섞여 있었다. 또한, 지금은 묘역 전체를 관리하는 곳이 없기에 전반적인 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현재 공동지는 자라난 큰 나무로 둘러싸인 상단부와 길게 자란 잡초가 무성한 하단부로 나뉜다. 일부 무덤은 뻣뻣하게 자란 나무 사이에 갇힌 경우도 있었다. [그림Ⅱ-6]은 공동지 상단부에서 공동지를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지 상단부는 나무로 뒤덮여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고, 주민들은 이곳을 음산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단순히 이 장소의 경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칠전리의 공동지에는 다양한 이들이 묻혀 있다. 즉, 공동지는 칠전박씨임에도 문중의 세력이 약해 선산을 갖지 못한 이들이나, 칠전에 들어온 타성의 정착민들이 묻혔던 곳

이다. 상대적으로 마을에서 천대받던 단골(무당)도 이곳에 묻혔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칠전으로 이주했던 피난민들이 죽어서 묻혔던 곳도 공동지였다. 다양한 것은 묻힌 이들의 출신만이 아니다. 이곳에는 비정상적 죽음을 맞은 망자도 함께 묻혔다. 특히 성인은 되지 못했지만 다멸을 해야 할 정도로 어리지는 않은 아이들은 공동지에 묻혔다. 이처럼 공동지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과 다양한 종류의 죽음이 뒤얹힌 곳이며, 동시에 누가 어디에 묻혔는지 묻은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한경구와 박경립(1998: 793-794)은 묘지 전반을 혐오하는 관념이 일제강점기에 공동묘지를 강제로 만들면서 형성된 “부정적인 심상” 때문으로 보았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의 공동묘지 정책이 “민간 풍습에 대한 국가 권력의 폭력적 개입”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이것이 확장되어 묘지 전반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반면 김명희(2003: 39~40)는 공동묘지에 대한 부정적인 심상은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차원의 두려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공동묘지는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곳이었기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칠전리의 공동지 사례는 구체적인 경험이 추상적인 관념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사례Ⅱ-3] 공동지에 묻힌 아이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누가 화장을 하겠어. 돈도 없고. 그럼 뭘한게. 그때는 어렸을 때 죽으려는 묻었제. 그랬을거 아녀. 그러면 산으로 갖고 가지 그러면. 산도 아무데나 못 묻거든. 산도 주인이 있고 그러니까 허락 받아야 되고. 아무데나 묻으라 하겠어? 그러니까 공동지로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살짜기 그거 바작. 그 지게. 거그다 돌돌 말아갖고 거 삽 가져가가지고 한 두셋이 가서.... 나보다 덜 먹은 여자 애기가 있어. 가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죽었는데... (중략) 그러더니 해빠질 참 되니까 바작(지게)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가더라고. 돌돌 말아갖고. 그래갖고 공동묘지에다 묻었을 거여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공동지에다 묻었다더라고. 그냥 가서 땅에다가 대충 파가지고 묻었겠지.” (박원준, 40대)

유년기의 경험을 구술한 위 사례는 현재 칠전리 공동지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바탕에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Ⅱ-4] 역시 이를 보여준다. 특히 과거 마을에 있었던 역울한 죽음에 대한 기억은 이러한 인식을 강화한다.

[사례Ⅱ-4] 한국전쟁과 공동지

공동지에 관해서 묻자 박기호는 공동지가 칠전에서 보도연맹에 관련된 14~15명 가량을 죽인 곳이라 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칠전 사람들에게 그들을 끌고 가게 하였다. 이들은 잡혀 온 사람들에게 줄을 엮고 구덩이를 파게 하였다. 줄을 다 엮자, 그 줄로 잡혀 온 이들의 손을 묶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 뒤에 죽이고 바로 묻었다고 한다. (박기호, 80대)

“그때(한국전쟁 때) 세 집 식구를 공동지에다가 구덩 파라해서 묻었어. 거그(공동지에서는)는 인민군이 죽였고.” (박은호, 80대)

[사례Ⅱ-4]는 구체적인 가해자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지만, 공동지가 한국전쟁과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란 점은 동일하게 진술된다. 이는 공동지가 혼란스러운 장소일 뿐 아니라 한스럽게 죽은 이들도 뒤섞여 묻힌 곳임을 보여준다. 이는 공동지나 아장터를 기피하는 양상이 추상적인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차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차원의 공포는 추상적인 공포로 연결된다. 이는 공동지 역시 아장터처럼 도깨비가 나오는 곳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칠전리의 공동지는 산속에 있어 마을로 통하는 주요 도로와 멀기 때문에, 자주 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도깨비가 나오는 곳이었다. 또한, 이곳에서 도깨비불을 본 사람들도 많다. 이는 공동지가 단순히 어둡고 음침하여서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그곳이 무질서한 곳이며 여러 죽음이 혼재하고, 한스러운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등이 모두 뒤얹혀 공동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동지와 아장터는 윗대 조상이 묻힌 곳과는 상반되는 상징을 구축한다. 즉,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편안한 곳이 아니며 기피되는 곳으로, 다가가기보다는 피해야 할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관되고, 마을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강화된다. 또한, 이곳의 경관은 이러한 인상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일조한다.

4) 장소의 성격 구분 원칙

앞의 두 소절에서 망자의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장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상의 장소와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칠전리 주변 망자의 공간에서 대비되는 양극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조상의 장소와 대비되는 이유는 아장터와 공동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서 먼저 고민해야 할 점은 다양한 비정상적 죽음 중에서 왜 어린아이의 죽음이 강조되는가 하는 점이다. 최길성(2010: 425~426)은 비정상적 죽음으로 야기되는 원혼의 종류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통과의례를 마치지 못하고 일찍 죽거나, 결혼하지 못하고 맞은 죽음이 그것이다. 둘째, 집에서 죽지 못하고 객사한 경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죽음 혹은 자살자의 영혼이다. 셋째, 제사를 받지 못한 영혼이다. 이중 마지막 형태가 죽음의 원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早死), 미혼사, 객사(客死), 사고사, 자살은 비정상적 죽음의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칠전리 조상의 장소 중 가장 대표적인 큰각금만 살펴봐도, 한 장소에 많은 전사자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진왜란에 전사한 박후령과 박인복은 물론, 한국전쟁에 병사로 참전하였다 전사한 이들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 특히 박후령은 당항포 해전에서 전사하여 시신을 찾지 못했으며, 무덤엔 그가 쓰던 담뱃대만 묻혔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죽음은, 위의 구분에 따르면, 객사이자 사고사로 비정상적 죽음에 속한다. 이런 사례는 비정상적 죽음을 맞은 망자 모두가 조상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진도의 경우 비정상적 죽음은 최길성(1986)이 구분한 것처럼 두 부류로 나뉜다. 한 가지는 망자의 연령에 따른 구분이다.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미혼자의 죽음을 혼인한 사람의 죽음과 구분한다. 결혼한 경우 아이가 없더라도 다른 후손들이 그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혼자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박종구의 자손들은 그의 증손자이자 박준채의 막내아들인 박처완의 선산을 지금도 돌보고 있는데, 이들은 혼인하였지만 자식이 없는 경우에 속한다. 즉 직계자손이 없더라도 가까운 친족의 후손이 남아있다면 그들의 묘지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그러나 칠전리에서 어린아이와 미혼자의 시신은 아장터에 묻거나 공동지에 묻으며, 정상적인 상례를 치르지 않고 죽은 날 밤에 바로 묻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다른 한 구분은 집 안의 죽음과 집 밖의 죽음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도에서도 객사는 집 밖의 죽음으로 사고사와 익사 등을 포함한다. 진도 역시 객사한

사람의 시신은 집안으로 들이지 못했으며, 이들에 대한 상례 절차는 집안에서의 죽음과는 다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양극적 태도는 사실 공존하고 있으며, 양자의 간극은 의례적 전환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다. 복장제에 대한 에르츠의 분석(Hertz 1960[1909])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다악족의 사례를 통해 에르츠는 1차장에서 망자의 몸과 망자의 혼령 모두가 부정적이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며, 그 접촉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겨짐을 지적한다. 이때의 망자는 산 자를 원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 자는 망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도 피해야 했다. 1차장이 끝나고 남은 살이 모두 썩어 그 몸이 뼈만 남게 되면 상황은 변한다. 육체의 상태 변화는 망자의 성격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육체적 변화는 그 영혼의 변화로 이해되며, 이때 망자는 조상으로 통합될 수 있다. 또한, 망자의 유족도 기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통합을 축하하며 상징적 전환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의례가 바로 2차장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망자가 겪는 전환이다. 죽은 직후 부정적인 상태로 여겨지던 망자는 일련의 전환 과정을 통해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환은 정상적인 죽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정상적 죽음 역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상적 죽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진도에서 단골(무당)이 주관하는 씻김굿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한다. 각종 사고사와 그 중 특수한 경우로 구분되는 익사는 각각 혼맞이굿과 혼건지기굿을 통하여 정상적인 죽음으로 전환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혼맞이굿은 객사한 영혼을 부르기 위해 길거리에서 하는 굿으로, 안당으로 혼을 모셔와 이후 씻김굿으로 이어간다. 혼건지기굿은 익사한 영혼을 물에서 건져오기 위한 굿으로 망자를 대신할 제물을 용왕에게 바치고 영혼을 집으로 모셔오기 위한 굿이다(진도군지 2007: 899). 이런 과정을 거친 망자는 그 원한이 씻긴 것으로 여겨지며, 망자는 조상이 되어 선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박후령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족보에서는 그의 장례를 초혼장(招魂葬)으로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는 위의 혼건지기굿을 통해 영혼을 불러왔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동시에 일련의 의례적 과정을 거치며 객사한 망자도 죽음의 부정함을 씻고 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혼자의 죽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녀 미혼자의 짝을 맞춰 “영혼결혼식” 혹은 “저승혼사”를 올릴 경우 족보에 올라갈 수 있으며, 다른 형제의 자손이 많을 경우에는 양자를 들임으로써 대를 잇고 제사를 올릴 수 있다(진도군지

2007: 899). 이런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죽음은 정상적인 죽음으로 전환된다.

앞의 사례와 달리 어떤 전환도 불가능한 경우가 바로 다말에 묻힌 어린아이의 죽음이다. 진도 지역에는 이 죽음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의례적 장치도 없으며, 이들이 묻힌 장소는 비정상적인 죽음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이런 점에서 조상의 장소는 모든 전환이 끝나 정상적인 죽음의 영역으로 돌아온 망자를 수용하는 장소가 되며, 아장터는 이러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아이의 시신을 묻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 대비적 성격을 가진다. 종종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묻힌 처녀·총각의 무덤은 두려운 곳으로 여겨지는데, 칠전리에는 이들을 집단으로 묻었던 장소가 있지는 않았다. 또한, 선산에 함께 묻을 수 없었기에 처녀·총각의 무덤은 공동지인 경우가 많았다.

조상의 장소와 공동지의 대비는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조상의 장소는 혈연적 단일성을 지니고 그 안에 일정한 질서를 내포한다. 공동지는 이러한 혈연적 단일성이 없을뿐더러 일정한 질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지는 다양한 혈통이 어지럽게 뒤섞인 장소인 동시에, 정상적 죽음은 물론 전환되지 못한 비정상적 죽음까지도 뒤섞인 장소이다. 정리하자면 공동지의 묘는 정상적 죽음을 맞은 조상임을 확인해줄 근거도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묻힌 망자들의 성격을 알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듯 혈연적 집단성과 연결되지 않은 공동지의 성격은 혼란스러운 것으로 고정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공간분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조상의 장소이다. 즉, 조상의 장소를 구현하는 원칙과 대비되는 지점이 바로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갖는 특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조상의 장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분화 역시 이와 연관된다. 칠전리 주변의 많은 조상의 장소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차이를 자아내는 것은 각각의 조상의 장소에서 중심인 망자와 이를 접하는 사람의 계보적 거리이다. 칠전리 대선산에서 조상은 칠전박씨 모두의 직계 조상이다. 하지만 경주김씨의 묘역은 이들과 무관한 사람들의 묘역이다. 이 경우 신분이 확실하고 질서가 존재하는 장소이기에 공동지나 아장터처럼 극단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세세한 내력을 모른다는 점에서 거리감이 두드러진다. 비슷하게 이들과 한마을에 사는 장흥임씨의 묘역 역시 칠전박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직계조상을 모신 장소에 비해 거리감을 느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다시 칠전박씨 내부의 묘역에 대한 분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결국, 조상의 장소에서는 묻힌 조상과 이를 접하는 개인 간의 계보적·인식적 거리가 공간의 내부 분화와 직결된다. 즉, 계보적·인식적 거리가 멀수

록 해당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선조를 모신 조상의 장소 내에서 나타나는 분화가 거리감 수준에 그치는 것과 달리,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처럼 죽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거나, 어떤 죽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장소는 완전히 두렵고 부정적인 장소로 여겨진다. 결국 칠전리에서 망자의 공간을 구획하는 질서는 이상적인 죽음인 조상이 될 수 있는 죽음을 기준으로 표현되며, 에르츠의 양손 비유에 따르자면 이상적인 죽음의 질서로 혈연적 공동체를 구현한 공간이 조상의 장소로 오른손에 해당하게 된다. 반대로 이와 대비되는 모든 공간은 부정적인 왼손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된다.

2. 칠전박씨 중심 망자의 공간

앞 절에서는 칠전리 주변에 형성된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을 중심으로 이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원칙과 그 분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은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에 초점을 둔다. 칠전리의 중심 성씨인 칠전박씨의 묘지를 중심으로 보면, 이들이 조상의 묘를 생활의 중심인 칠전리 주변에만 만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칠전박씨의 묘소가 칠전리 주변에 있지만, 일부 묘역은 칠전리 밖으로 뻗어 나갔다. 이 소절에서는 칠전박씨를 중심으로 조상의 장소가 명당에 대한 믿음에 따라 진도 전역으로 확장되었던 양상과 이 과정에 수반되는 별초성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칠전리에서 망자의 공간이 조상의 장소와 소외된 망자의 장소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할 때,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칠전리 주변에만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조상의 장소는 칠전리의 범위를 넘어 진도 전역으로 뻗어 갔음을 보여준다.

1) 확장되는 조상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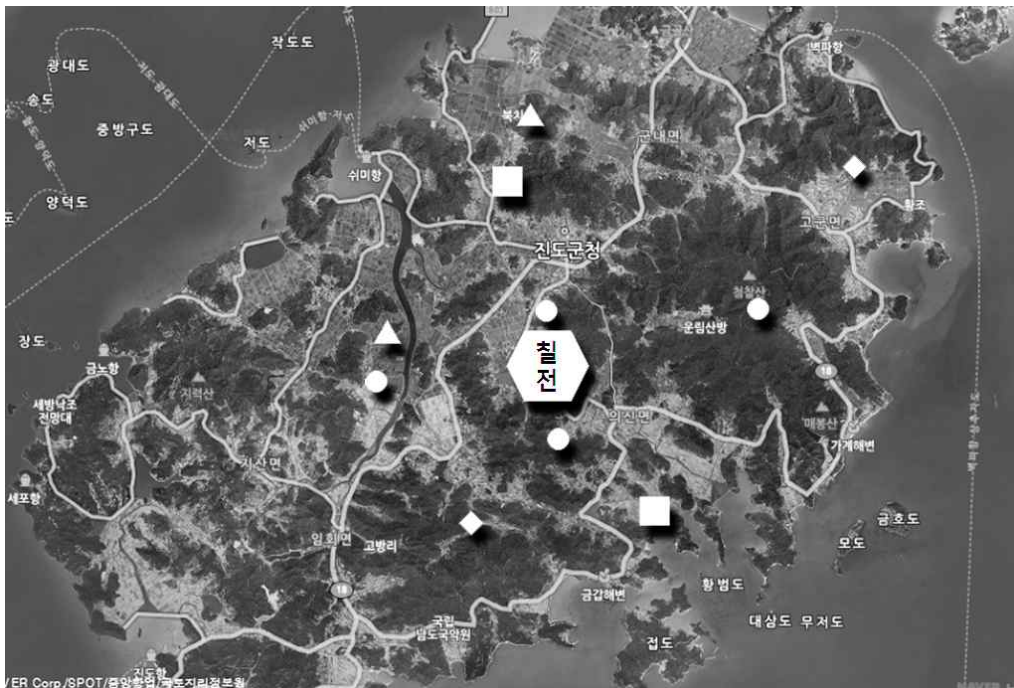
과거 칠전리 사람들은 명당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거나 문중의 장손인 경우 진도 밖에서 지관을 모시고 그들과 겨우내 숙식을 함께하며 명당을 찾아 진도 전역을 다녔다. 아래의 [사례Ⅱ-5]는 가깝게는 칠전리 주변의 선산을 둘러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진도 전역을 돌며 명당이 있는 곳을 살폈던 과거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런 영향은 칠전박씨의 묘가 칠전리라는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

[사례Ⅱ-5] 칠전리 주변 지관의 활동

“옛날 어른들은 참... 겨울이 되면 땅 보러 다니는게 일이었제. (중략) 겨울이 되면 지관들을 모신단말여. 그라곤 겨울 내내 이 사람들하고 먹고자고 같이 하는 거여. (중략) 그라문서 진도 전체를 다 둘러보고 다니는거여. 여(칠전)는 글코... (중략) 아 지관은 다 밖에서 오제. (연구자: 이 마을에도 지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분은..) 그분은 칠전 주변에서 밋자리를 봐주기도 하는디, 선산에 모실 때 좌향을 봐주제.” (박철규 60대)

[그림Ⅱ-7] 진도 내 칠전박씨 대문중과 세 사문중의 묘역 (출처: 네이버 지도)



※ 범례	□ : 칠전리 대문중	○ : 박종량 A사문중
	△ : 박종구 사문중	◇ : 박종량 B사문중

칠전박씨의 중시조인 박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진도 밀양박씨 계파 대문중의 선산은 모두 세 곳에 있다. [그림Ⅱ-7]에서 □로 표시된 곳으로, 진도읍 수역리 매화동, 의신면 칠전리의 큰작금, 의신면 만길리가 바로 그곳이다. 각각의 장소에는 명당에 관한 일화가 전해온다. 그중에서 칠전박씨의 중심 조상인 박동이 모셔진

매화동([그림Ⅱ-7]의 북쪽 □표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상세하다. 박병훈(2003)은 이 전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례Ⅱ-6] 진도 밀양박씨 초기 묘소와 명당

중자(仲子)이신 정(挺)자 할아버지는 당대에 이름이 난 지사(地師)로 자기 삼형제의 묘자리를 생전에 마련하였다 한다. 형인 연(衍)자의 묘소는 사도지(蛇渡地-진도읍 용장리)⁴¹⁾에, 정(挺)자인 자기의 묘소는 매향동(梅香洞-진도읍 매향리)에 동생인 동(棟)의 묘소는 천방동(天防洞-의신면 칠전리)으로 잡아서 정하였다 한다.

그런데 형인 연(衍)자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시자 예정대로 사도지(蛇渡地)에 모셨고 두 번째에는 막내인 동(棟)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동(棟)자 할아버지는 유언으로 자기의 중형(仲兄-박정)에게 자기의 묘소를 형의 자리인 매향동(梅香洞)에 묻어줄 것을 청하였다고 한다. 이에 형인 정자는 말하기를 "매향동(梅香洞)은 이미 내가 묻힐 자리로 정한 곳이니 너는 (중략) 천방동(天防洞)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반대를 하였으나 동생인 동(棟)자가 먼저 돌아가시자 동생의 유언대로 자기의 묘자리를 내어주어 동(棟)자 할아버지는 매향동에 묻히고 정(挺)자 할아버지는 동생자리로 정했던 천방동에 묻혔다 한다. (박병훈 2003: 37~38)

이처럼 명당에 대한 관심은 밀양박씨가 진도로 이주했던 초창기부터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지(2007: 332)에서는 지관들의 말을 정리하면서, 진도 입도조 박용(朴容)의 장남인 박연의 무덤을 장사도강형국(長巳渡江形局)으로, 둘째 박정의 묘소는 천방형국, 셋째인 박동의 그것은 매화낙지형국(梅花落地形局)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명당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는 이들의 묘소가 퍼져나가는 양상을 통해 잘 드러난다. 진도 밀양박씨 계과 대문중의 진도읍 수역리 선산은 칠전리로부터 10km가량 떨어진 곳이며, 의신면 만길리 선산 역시 8km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처럼 명당을 찾아 자신이 살던 곳을 벗어나 다른 마을 주변에 묘소를 쓰는 것⁴²⁾은 이후로도 계속 나타난다. 칠전박씨 문중인 박윤순 일곱 아들의 맏이인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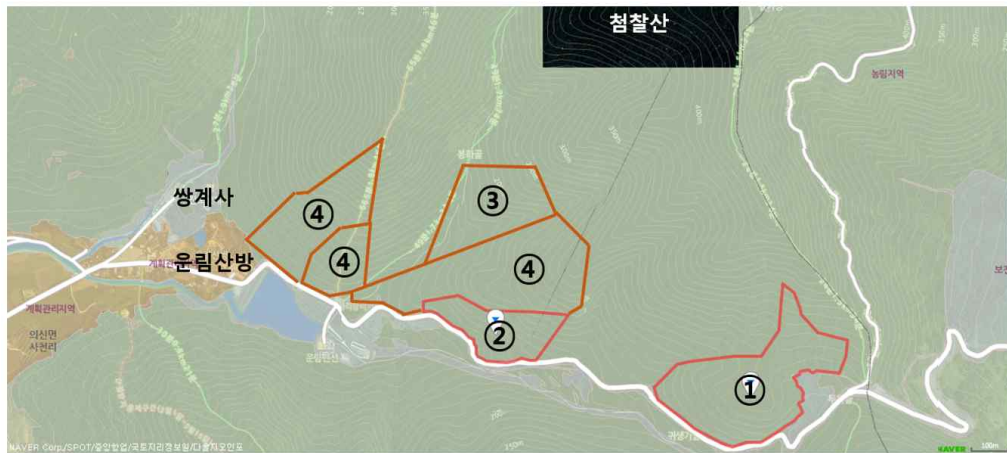
41) 괄호 안의 ‘-’ 뒤 한글 표기는 필자가 하였으며, 그 밖의 한자 표기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42) 박동이 묻힌 수역리의 선산과 칠전리의 큰각금은 이들이 칠전리에 살기 이전에 조성된 묘소로 보인다. 진도 입도조 박용은 진도읍 근처에 거주했던 것으로 이야기되며, 가승보에 나타나는 칠전리 이주 기록 역시 그의 6세손인 박윤순 대에 나타난다. 이주 기록에서는 이들이 진도읍성의 서문 바깥 지역인 서외리(西外里, 혹은 “서문 밖”이라는 의미로

종구의 후손들 역시 칠전리 밖에서 묘소([그림Ⅱ-7]의 △표시)를 잡았는데, 지산면 앵무리의 “닭섬(鷄島)”과 군내면 북치리에 선산이 그곳이다. 이들은 특히 군내면 북치리의 선산을 강조하며 “풍수로 볼 때,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자손이 번창하는 곳”이라 하여 묘소로 썼다고 하였다. 또한, 지산면 앵무리의 닭섬은 간척이 이루어진 현재는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나 간척 이전에는 성묘를 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다. 이는 당시 이들이 명당을 찾기 위해 진도 내륙의 육지만이 아니라 가까운 섬 지역⁴³⁾까지 살펴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칠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보이는 박윤순의 일곱 아들 중 넷째인 박종량의 장손 묘역([그림Ⅱ-7]의 ○표시) 역시 칠전리 밖으로도 뻗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지산면 앵무리 “자라섬(牧柄島)”, 의신면 사천리 쌍계사 근처(雙溪寺后垵洞, 東麓), 의신면 창포리의 가단 주변 등에 묘소를 두고 있었다. 박종구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가까운 섬에도 묘소를 두었다.

[그림Ⅱ-8] 첨찰산 쌍계사 동쪽의 문중 선산 (출처: 네이버 지도)



※ 범례	① 창녕조씨 선산	② 무안박씨 선산
	③ 칠전박씨 선산	④ 양천허씨 선산

“섬밖에”)에서 칠전으로 옮겼다고 말하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원래 거주지는 진도읍 근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자신이 살던 마을 밖에서 명당을 찾던 관행은 이들이 진도로 이주하던 시기부터 이미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43) 이들이 묘소를 쓴 섬은 진도 외곽에 있는 조도면에 속하는 먼 섬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닭섬이나 뒤에 나오는 자라섬 모두 바닷물이 들어오는 진도 섬 안쪽의 작은 섬으로 상대적으로 가기 수월한 섬이었다. 집안에 따라서는 진도 외곽 가까운 섬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산면 학봉리(가명)에 거주하는 광산임씨(가명)의 선산이 진도 외곽의 가까운 섬인 접도에 있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사천리 쌍계사 주변이다. 이곳은 진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첨찰산(尖察山)이 있다. 이 산은 해발 485m로 끝이 뾰족하여 현재도 봉화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진도 전역이 내려다보인다. 진도의 영산(靈山)이며, 풍수지리상 중요한 맥이 시작되는 지점인 이곳에 박종량 후손의 선산이 있다. 이러한 입지에 주목했던 것은 칠전박씨만이 아니었다. 진도의 유력한 성씨인 양천허씨, 무안박씨, 창녕조씨의 선산이 그 주변에 나란히 있다. 이곳에 선산을 마련한 창녕조씨는 진도 동외리(東外里)에 거주하던 이들로, 진도군 내에서 향리를 맡던 진도의 지방 토호세력이었다. 또한, 양천허씨는 조선 시대 후기 남종화가의 대가인 소치 허련(許鍊)의 자손들로, 쌍계사 옆의 운림산방(雲林山房)은 그가 진도에 머물면서 기거 하던 곳이다. 이는 조선후기 진도 지역에서 거주지 가까운 곳을 벗어나 먼 곳까지 명당을 찾아다녔던 것이 칠전박씨 만이 아니며, 여러 가문이 명당을 찾고자 경쟁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칠전리 사람이라 하여도 그 묘를 칠전리 주변에만 만들지 않았고, 명당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칠전리 밖으로 망자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양상을 가져왔다. 물론 이러한 공간적 확장은 무한하지 않다. 확장 범위는 어디까지나 진도 본도와 주변의 가까운 섬으로 한정된다. 또한, 칠전리 밖으로 벗어나 다른 마을 주변에 만든 묘의 위치는 가까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는 마을마다 그 마을 중심 성씨의 묘소가 마을이 잘 보이는 곳에 있고, 동시에 명당을 찾아 주변으로 온 타지인의 선산은 마을이 직접 보이지 않는 외곽에 놓인다는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칠전리로의 이주가 나타났던 시기인 17세기 무렵과 그 이후의 묘지 팽창 양상은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초창기 묘소인 대선산과 만길 선산의 경우 한 장소에 10기 이상의 묘가 모여 있다. 이와 달리 18세기 이후의 묘는 대부분 한 선산에 부부 한 쌍을 모시거나, 동일한 산 안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묻는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를 벗어나 명당을 찾아 멀리 나가는 경향은 칠전리 이주 이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던 양상이었음에도 그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친족 집단과 위계의 재확인

선산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묘소는 항상 관리가 필요하며, 선영을 모시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에 문중답이 함께 조성된다. 칠전리에서 선산은 재력이 있는 사람 본인이나 장남이 마련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은 장손에게 상속된다. 문중답은 이와 달리 돌아가신 조상의 자손들이 계를 묶어 문중계 형식으로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보통 사문계가 갖게 된다. 다만, 선산이 타지에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문중답 역시 해당 선산 주변에 만든다. 칠전리의 경우 문중답은 이를 소유한 사문계 구성원들이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칠전리에서 멀리 떨어진 문중답은 칠전리 주민들이 경작할 수 없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문중답의 경작권을 주고, 경작자는 산지기를 맡게 된다.

진도에서 선산의 별초는 음력 7월에 하며, 이달을 “별초달”로 부른다. 별초달이 지나 동월 하순이 되면 진도에서는 한 가문의 여러 집이 함께 “별초성묘”를 다닌다. 별초성묘란 한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 외지에 있는 선산을 함께 둘러보러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례Ⅱ-8] 별초성묘의 이유

“그때 성묘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녀(웃음). 일단 별초를 했으면 별초가 얼마나 잘 됐는지 가서 봐야잖겠더라고? (중략) 근데 이게 별초만 보는 게 아녀. 가문 그 해 작물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볼 거 아니겠어? 요샌 안 그러는디, 옛날엔 문중답을 서로 별라 했던 말여. 그러믄 별초도 하고, 문중 사람들 오면 대접도 하고, 시제 준비도 하고, 그리고 문중에 돈까지 냈제 (중략) 별초달에 가서 짝 돌아보믄 그해 작황이 잘 됐으믄 (평소) 받는 대로 받고, 작황이 나쁘믄 줄여주제.

(연구자: 그 논의를 모일 때 하나요?) 그람. 별초성묘하믄 어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거 아니겠더라고. 그러믄서 이야기하는 거제.” (박철규 60대)

즉 별초성묘는 현재 문중답과 선산을 관리하는 산지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기간이다. 기본적으로는 조상들의 묘소를 둘러보는 것이지만, 산지기가 선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의미가 크다. 동시에 산지기가 경작하는 논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의 성실성도 평가한다. 아울러 그해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황이 나쁠 경우, 가을에 받는 추곡의 양을 감축시켜 주기도 한다.

이러한 별초성묘는 보통 1~2주 정도 걸린다. 칠전리의 별초성묘는 음력 7월 말

에 시작해서 음력 8월 초에 끝난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별초성묘가 진도 입도조를 시작으로 그 아래 조상의 묘소를 한 곳씩 둘러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별초성묘는 조상의 위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표Ⅱ-3] 대표적인 두 사문중을 통해 본 별초성묘의 순서

순서	관리문중	박종구 사문중	박종량 B 사문중
1	진도 밀양박씨 대문중	진도읍 정거름재(박용)	
2	밀양박씨 계파 대문중	진도읍 수역리 매향동(박동)	
3		의신면 만길리(박섬)	
4	개별 사문중	지산면 앵무리	지산면 앵무리
5		진도읍 복치리	의신면 사천리
6			칠전리 숲에

별초성묘 시 성묘 순서는 조상의 계보를 따르고, 성묘를 주관하는 문중 조직은 계보적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표Ⅱ-3]에 표기된 것처럼, 칠전박씨의 경우 별초성묘를 우선 진도읍의 정거름재에서 시작한다. 이곳은 진도 입도조 박용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이곳 성묘는 진도 밀양박씨 대문중에서 주관하고 가장 넓은 범위의 후손들이 모이게 된다. 다음으로 들르는 곳은 진도읍 수역리 매향동이다. 박동과 아들인 박이량이 묻힌 선산을 거쳐, 박섬의 묘소가 있는 의신면 만길리의 선산으로 가게 된다.

본래 계보 순으로 볼 때, 박동의 선산이 있는 매향동 다음에는 그의 손자인 박배간 이하 여러 조상의 묘가 있는 칠전리 큰깍금을 만길 선산보다 먼저 둘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초성묘 시 칠전리 주변의 묘소는 들르지 않는다. 이는 별초성묘의 성격을 확연히 보여준다. 칠전리 주변의 선산과 문중답은 자신들의 생활 공간 안에 있어서 이곳은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칠전리 밖의 묘소와 문중답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굳이 이 시기에 칠전리 내의 선산과 문중답을 둘러보지는 않으며, 칠전리 밖으로 나간 묘소와 문중답만을 이 시기에 살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칠전리 주민들의 별초성묘는 칠전리를 벗어나 조성한 선산과 문중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수역리와 만길리의 성묘가 밀양박씨 계파 대문중의 주관으로 진행된다면, 이후 성묘는 좀 더 세분된 사문중별로 이루어진다. 박윤순의 장남인 박종구 후손들의

사문중은 이후 앵무리의 닭섬을 거쳐 진도읍의 북치리로 성묘를 간다. 박종량 후손 중 B 사문중은 앵무리의 자라섬을 성묘한 후 사천리 침찰산 동쪽에 있는 선산으로 성묘를 간다. 이들 사문중의 독특한 점은 마지막 별초성묘를 그들 사문중의 핵심 인물인 박종량의 묘가 있는 칠전리 “숲에”를 들러 성묘를 마친다는 점이다.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질서가 마을 밖으로 확장될 때 혈연적 질서는 그 위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한 묘역 안에서의 집단성이 묘지 간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면, 여러 묘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별초성묘는 떨어진 장소 사이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실천을 통해 조상의 장소 간 위계질서를 보여준다. 결국, 별초성묘는 마을 밖으로 흩어진 조상의 장소를 묶어주며 이를 통해 혈연적 집단성을 드러낸다.

과거에는 선산 위치가 칠전리에서 멀었고, 각각의 장소를 직접 걸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곳씩 다니며 성묘를 다녔다. 따라서 별초성묘에만 집안마다 한 주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흰 도포를 입은 어르신들이 길을 따라 줄줄이 걸어가는 모습이 장관을 이뤘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많이 변했다. 먼저 칠전리 주민 수가 줄면서 별초성묘에 대한 관심도 줄었고, 이전에 살던 노인들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참여자의 수도 많이 줄었다. 또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차를 소유한 사람이 많아지자, 최근에는 별초성묘를 차를 타고 빠르게 둘러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산지기가 사라지면서, 별초성묘 시의 대접도 간소화되었으며, 성묘를 빠르게 마친 후에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방식으로 별초성묘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결국, 한 주가량 걸리던 별초성묘는 3일 정도면 끝나는 간소한 형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별초성묘의 존재는 진도의 성묘 문화를 독특하게 만드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 진도는 보통 추석에는 성묘하지 않으며 설(구정)에 성묘한다. “추석 전에 별초성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추석에 다시 성묘할 필요가 없다”는 것⁴⁴⁾이다.

44) 최근에 이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칠전리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은 별초성묘에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별초달에 성묘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고향을 찾게 되는 시기에 성묘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구정과 추석에 고향을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은 칠전리에서도 추석 때 성묘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표Ⅱ-4] 별초성묘와 구정성묘의 차이

분 류	별초성묘	구정성묘
성묘 시기	음력 7월 말~음력 8월 초	음력 1월 1일
성묘 성격	묘지 및 문중답 관리 상황 확인	새해 인사
성묘 대상	마을 외부의 묘소	마을 내부의 묘소
대상 조상	4대조 위의 조상	4대조 이내의 조상
참여자 구성	해당 조상의 모든 후손으로 주로 문중 어른들이 참여	가까운 친척이 모여서 함께 성묘

또한, 별초성묘와 설의 성묘는 위의 [표Ⅱ-4]에 정리한 것처럼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별초성묘가 칠전리 밖에 있는 묘소와 문중답의 관리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설의 성묘는 집안의 어른들께 올리는 세배의 연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들러야 하는 묘소의 차이로 나타난다. 즉, 설의 성묘는 집안 4대조 내의 조상 묘소에만 들르며, 집안에 따라서는 성묘를 먼저 하고 세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4대조 내에서도 칠전리 주변에 있는 묘소만 들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별초성묘는 이와 달리 4대조를 넘어가는 조상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도 칠전리 밖으로 묘소가 나가 있는 조상의 묘소만을 찾아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별초성묘와 설의 성묘 때에 모이는 성묘 구성원의 차이로 이어진다. 즉, 별초성묘가 더 넓은 집안의 어른들이 모인다면, 구정성묘는 혈연상 가까운 집안 식구들이 모인다.

특히 별초성묘가 설 성묘와 구분되는 점은 별초성묘에서 의례적 행위를 통한 계보적 질서의 확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들은 설 성묘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라면 웃어른의 묘에 먼저 성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거리가 멀 경우 동선을 고려하여 성묘하기 때문에 계보적 질서가 어겨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초성묘의 경우는 결코 그러는 경우가 없었다. 별초성묘는 동선과 무관하게 윗대 조상을 먼저 찾으며, 따라서 이것은 산지기에 대한 평가라는 현실적인 의미와 혈연의 중심을 이루는 계보적 질서의 재확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Ⅲ. ‘망자의 공간’에서의 변화

본 장에서는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공간구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차원은 개별 영역의 변화이다. 특히 소외된 망자의 장소를 구성했던 아장터와 공동지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른 한 가지 차원은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던 공간구조의 역전이다. 이는 조상의 장소가 칠전리 주변으로 모이고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칠전리 밖으로 사라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서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칠전리에서 나타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이는 칠전리 주민들이 현재 놓인 맥락을 보여준다. 이를 시작으로 이 절에서 연구자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와 조상의 장소 각각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주민들의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칠전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망자의 공간이 마을을 넘어 보다 넓은 규모에서 재편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 칠전리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 양상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70~8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도시 중심으로 바뀐다. 이는 촌락사회의 인구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과 같은 대도시로 급격하기 옮겨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진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표Ⅲ-1]의 진도 인구 변화 추이는 1968년에 최고조에 달했던 인구가 70~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줄어들음을 보인다. 1970년대 이후로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던 전라남도과 달리 진도는 1970년대 이후 인구가 일관되게 감소했다.

진도 안에서 이러한 이촌향도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은 진도대교와 연관된다. 진도대교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과 진도군 군내면 사이를 잇는 총 길이 484m의 다리로 1980년 착공하여 1984년 완공하였고 이듬해 일반에 개방되었다. 본래 배를 타고 들어와야 했던 진도에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진도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진도 사람들은 진도대교의 개통 이후 진도의 “사람과 물건이 소용돌이처럼 (육지로) 빨려나갔다”고 표현하였다. 이전부터도 육지로, 도시로 이주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었지만, 배를 경유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이러한 흐름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진도 사

람들이 느꼈던 80년대 이후의 변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표Ⅲ-1]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인구추이 (진도군지 2007: 149)



칠전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유리된 공간이 아니다. I 장의 마을 소개에서 언급한 것처럼 칠전리 역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구구성 양상의 변화이다. 1968년 당시 칠전리 인구인 1,464명 중 20세 이하의 인구는 총 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60%)이 20세 이하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칠전 인구인 256명 중 60세 이상 노인이 137명으로 54%가 60세 이상의 노인(2014년 12월 기준)이다. 특히 70대 노인 인구는 66명(25%)으로 전체 마을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이전과 달리 역전된 인구 구조를 보인다.

칠전리를 떠난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연구자는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칠전국민학교 동문회에서 소장 중인 동문 명부 및 주소록에 주목하였다. 칠전국민학교는 한국전쟁 중에 운영되기 시작한 학교이다. 이전에 칠전리에 거주하던 학생들은 진도읍의 진도국민학교나 의신면 돈지리의 의신국민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칠전국민학교의 설립과 함께 주변의 칠전, 중굴, 하굴, 신생동의 학생들이 칠전국민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초기 건물은 현 칠전리 마을회관 근처로 마을의 중심부에 있었으나, 이후 자리를 현재 칠전리 동쪽 “모태뜰”로 옮겼다. 이 학교는 이후 38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93년 17명의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폐교되었다.

현재 칠전국민학교 동문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소록은 이 기간에 학교를 졸업

한 총 1629명의 학생⁴⁵⁾ 중 551명의 현재 주소(2013년 기준)가 기록되어 있다. 연구자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법정리 수준에서 칠전리 주민의 유출지를 대략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분류해서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2] 칠전국민학교 졸업자들의 거주지 현황 (2013년 기준)

지역	인원수	세부지역	인원수	세부지역	인원수
전남지역 46)	134명(24%)	진도군	67명(12%)	칠전리	25명(4%)
				진도읍	30명(5%)
		광주시	35명(6%)		
경기지역	371명(67%)	서울시	172명(31%)		
		인천시	43명(8%)		
		성남시	25명(4%)		
		안산시	21명(4%)		
		부천시	13명(2%)		
경남지역	17명(3%)	부산시	7명(1.2%)		
충청지역	16명(3%)	대전시	9명(1.6%)		
전북지역	6명(1%)				
강원지역	2명(0.3%)				
제주지역	2명(0.3%)				
경북지역	0명				
해외거주	3명(0.5%)				

[표Ⅲ-2]는 칠전국민학교를 다녔던 학생 중 67%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으로 이주했음을 보여준다. 그중에서 서울특별시에 172명으로 가장 많은 31%가 이주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인천시에 43명(8%)이 이주했다. 진도에 남은 사람은 전체의 12%인 67명이며, 현재 진도읍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30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진도읍에 살고 있다. 이는 진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진도읍처럼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곳에 거주하는 양상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경상남도나 충청도 쪽으

45) 칠전국민학교 졸업생 총 수는 2003년 발간된 『칠전향우회보』에 실린 졸업생 명단을 통해 파악하였다.

46) 여기서 '** 지역'은 지역 구분의 편의상 특별시나, 광역시를 포괄하여 표기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를, '경기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경남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를, '충청지역'에서는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로도 일부의 이주가 확인되지만,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로의 이동은 이 자료상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칠전리(법정리)의 인구 유출이 대부분 발달한 도시지역인 서울경기, 경남권과 진도에서 가까운 전라남도 권역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진도읍이나 광주·목포로의 이주가 나타났다.

칠전에서 1940년대 이후 태어난 많은 학생들은 어려서는 칠전국민학교를 다니고⁴⁷⁾, 중학교는 진도읍에 있는 진도중학교로 진학했다. 이후부터는 진로의 차이가 나는데, 성적과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광주나 목포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설령 진도 내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경우라도 20대 초중반의 많은 이들이 진도를 떠나 타지로 향했다. 연구자는 칠전리 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40~50대 청년층⁴⁸⁾과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에서 거주하는 해당 연령대 주민의 상당수가 이미 도시생활을 경험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촌향도의 양상은 칠전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인구구성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칠전리에 남아 마을을 지키는 이들은 대부분 부모세대이고, 마을 밖으로 나간 것은 대부분 타지로 학교에 다닌 자식세대이다. 물론 부모세대라고 하여 모두 마을에 남은 것은 아니다. 현재 70대 이상 노년층 중에도 도시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마을에 남은 이들이라 하여도 그들의 자식들은 대부분 칠전리 밖으로 이주한 상태였다. 기존의 묘지 질서는 부모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들이 칠전리에 머물렀기에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세대가 연로해지나 세상을 떠나고 칠전리에 남은 자손이 줄면서 기존 망자의 공간 질서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다음의 두 장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성 형태의 변화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칠전리 주변 망자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47) 칠전리에는 이전부터 학계(學契)를 구성하여 서당교육을 해왔다. 1900년대 진도읍의 진도국민학교가 생기면서 1940년대 이전에 출생한 학생들은 진도읍의 진도국민학교를 다니거나 돈지리에 있는 의신국민학교를 다녔다. 그러다 일제가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국민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자 해방 전후로 잠시 서당을 다시 운영하였다. 이후 1950년대 칠전국민학교가 생기면서 칠전리의 학생들은 대부분 칠전국민학교를 다녔다.

48) 이들은 마을 안에서 청년으로 대우받으며, 청년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들을 ‘청년층’으로 표시하였다.

2. 사라지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

전통적으로 소외된 망자가 묻힌 장소는 1970년대 이후 칠전리 주변에서 점차 축소되고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아장터와 공동지 모두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아장터의 축소가 먼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아장터는 마을 주변에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다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동지는 아직 남아있으나, 줄어들고 있다. 우선 다멸이 사라진 아장터의 상황을 살펴보자. 칠전리 주민들은 다멸을 만들던 경향이 197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보기 어려워졌다고 기억했다. 이에 대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우선 의료 상황의 개선이다.

[사례Ⅲ-1] 독다멸이 사라진 이유

(다멸에 대한 대화 중) 박기호(70대)는 독다멸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1970년대까지 계속 있었다고 했다. 홍역이나 천연두가 겨울에 돌면 칠전리에서도 4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한 번에 죽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마을에서 먼 산에 독에 아이를 담아 묻었다. 그러나 70년대가 되면서 우두와 항생제를 쓰며 죽는 아이들의 수도 줄었고, 독다멸 역시 줄어든 것이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기본적으로 다멸은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전염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묻기 위한 장례 방식이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아이를 빠르게 묻는 현실적인 이유와 질병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러나 칠전리 주민들은 [사례Ⅲ-1]처럼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영아 사망률 자체가 낮아져 죽는 아이들이 크게 줄면서 아장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인구이동의 핵심은 청장년층의 유출이다. 이는 마을의 청장년층은 물론 그들의 자식들도 칠전리에 없음을 말한다. 현재 칠전리에서 어린아이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1990년대만 해도 40명가량의 아이가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증언 역시 이러한 변화를 잘 말해준다. 즉, 예방접종과 위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영아사망률의 감소와 마을 안에 아이들 수 자체의 감소가 뒤엎히면서 다멸을 만들어야 할 필요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임회면 상만리의 한 주민과 나눈 대화는 이러한 변화가 한 번에 이뤄진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사례Ⅲ-2] 다벌의 변화

이장환(70대)은 다벌이 없어진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보고 있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다벌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를 보다 간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아이가 죽으면 다벌을 쌓지 않고, 그냥 땅을 파고 몰래 묻는 방식으로 변했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벌이 없어졌다 하였다.

[사례Ⅲ-2]는 다벌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이들을 독에 넣고 돌을 그 위에 쌓아주던 행위가 불필요하다고 인식되고, 그보다는 단순히 땅을 파서 묻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벌을 만들었던 이들의 증언에서처럼 혹시 나올지 모르는 악귀를 눌러야 한다가나 여시가 파먹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사라진다. 오히려 다벌을 만드는 방식이 번잡하게 여겨졌고, 아이의 시신을 매장하여 이를 빨리 넘기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돌이 많았던 기존의 아장터보다는 누구나 가서 시신을 묻을 수 있던 공동지가 그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칠전리에서도 유사한데, 칠전리 역시 다벌이 소멸되면서 아장터보다는 공동지가 이를 대신하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었다. 앞의 사례인 [사례Ⅱ-4]에서도 이것이 확인되는데, 옹기를 옮기고 주변의 돌을 모아야 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땅에 묻었음을 알 수 있다. 죽은 아이를 묻는 곳이 공동지로 변했다면, 현재 양상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변화한다.

[사례Ⅲ-3] 소외된 망자의 범위 확대

“요즘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50 미만이나 장가 못가거나 시집 못가거나 해서 죽으면 다 화장해 불잖아. 그래갖고 뭐 납골당에 모시겠냐 어찌겠냐. 대부분 납골당에 모시지 않고 뿌려 부러. 바다에다가. 그 녹진 다루(진도대교) 아니면 저 어디다가. 정 모하면 저 부모 있는 그런데다 이렇게 산 속에다 뿌린다드냐. 뿌리거나 이렇게. 그 보든 그 근처에다 뿌리거나 나무 밑에 그런데다 뭇 한다가더라고.” (박원준, 40대)

이러한 양상은 소외된 망자와 관련된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우선 비정상적 죽음 중 전환되지 않는 죽음의 확장이다. 다벌을 만들던 시기 어린 아이에 한정되던 대상자는 마을 주변 공동지에 매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미혼자로 확장된다. 현재 이는 다시 미혼자를 포함한 “50대 미만”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조상의 장소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연령과 범위가 급격히 넓어졌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전환하는 의례가 더는 중시되지 않는 현실과도 맞물린다. 한때 칠전리를 담당하던 단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칠전리가 포함되었던 단골판⁴⁹⁾ 역시 지금은 사라졌다. 진도 상례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던 씻김굿 역시 대부분의 장례식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의례를 찾는 사람도, 의례 집전자도 사라지는 현실에서 정상적 죽음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상적 죽음은 늘어가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이제 비정상적 죽음을 맞은 망자가 마을 주변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 점이다. 미혼자를 포함한 50대 미만의 사람이 죽었을 경우 마을 주변에 묻히지 않고 화장하여 도시 주변 납골당에 모시거나, 유골을 산골(散骨)한다. 특히 연령대가 어릴수록 (보통 30대 이하) 미혼자를 산골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한 경우라도 선산에 묻기보다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령이 높더라도 미혼이면 선산에 묻기보다는 화장하여 마을 밖의 장소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현재 칠전리에는 미성년이나 미혼자의 시신은 더 이상 마을 주변으로 오지 않는다. 칠전리 주민들은 성년이 되었어도 미혼자로 죽으면 다른 마을의 미혼으로 죽은 사람과 혼례를 올리고 함께 묻었다는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했다. 그러나 최근 마을에서 이뤄진 영혼결혼식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80년대 이전 상황을 회상할 때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됐다. 죽은 이의 연령이 젊을수록 “꼬실러서(화장하여) 뺏딱(빠)은 낙허불어(뿌려버리)” 마을 주변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또한, 공동지의 양상 역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매장할 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묘지인 공동지는 밀양박씨 중 선산이 없는 사람들이나 밀양박씨 외의 타성들이 묻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지에 묘를 새로 쓰는 사람이 없어졌다.

[사례Ⅲ-4] 공동지를 피하는 사람들

“가들은 부모가 밖에서 왔어. 애넌 물론 여서(칠전에서) 학교도 다녔지만... 가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공동지에 묻혔을 걸? (중략) 지금은 애들이 다 잘 됐어. (중략) 애들이 자기네 아버지를 그토록 모실라개도

49) 진도에서 단골(무당)은 한 마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역을 갖고 있었다. 이를 단골판이라 한다. 단골판을 가진 단골은 매년 자신이 담당하는 마을을 돌면서 수곡을 했다.

싫다고 하신다더라고. 근데 대단한게 애들이 매주 찾아온다는거야. 그치만 애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칠전리 주변에 모실까? 여기 선산도 없는데? 공동지에 모셔? 말도 안돼지. 백이면 백 돌아가시면 밖으로 모실 걸? 자기들 사는 가까운 곳으로...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는데 여기 말고... 다른데 모셨고.” (박성진, 50대)

[사례Ⅲ-4]처럼, 타지에서 온 사람으로, 전부터 공동지에 조부모를 모셨던 사람도 현재 더는 공동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들의 생활공간이 이제는 칠전리가 아니므로 칠전리 주변에 굳이 묘를 써야 할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 주변에 있는 묘역에 모시거나, 돈이 넉넉한 경우 공원묘지에 부지를 마련한다. 결국,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선산이 없을 때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제는 공동지에 묻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공동지에 묘를 썼더라도 개인의 상황이 개선되면 새로 땅을 마련하여 공동지에 모신 조상을 이장한다. 이에 공동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새로 묘를 쓰는 경우는 사라졌다. 이는 점차 공동지에 대한 접근성이 줄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곧 공동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아장터와 공동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소외된 망자의 장소에 부가되었던 부정적 인식은 상당히 완화됐다. 다말이 있던 많은 곳에도 지금은 다말이 사라졌으며, 때로는 칠전리 주민의 선산이 되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이러한 장소에 대한 무서운 기억의 약화이다.

[사례Ⅲ-5] 공동지에 대한 인식

박규호: “지금은 읊어. 읊어져버렸어, 다. 것도 못하고.”

배진심: “가도 못하고. 지금은 산속이나 다름없지.”

박규호: “칠전공동지는 공동지 안 같어.”

배진심: “그람. 나무가 엄청 많이 퍼져 부렸어. 요 밑에만 한 몇 개가 있더만. 다 밭이여.”

박규호: “거 뭇등도 별로 읊어.”

배진심: “그런게. 서닌가 너닌가 요 드러감 있어. 저 우계만 막 나무가 다 들어차갔고.”

박규호: “어디가 공동지에다 (묘를 더) 쓰겠어. 뭇(묘) 써놓고 관리를 안 해버린게 그까짓거 다 읊어져 부렸제.” (박규호, 70대; 배진심, 70대)

공동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이곳을 무섭다고 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전리 공동지가 다른 마을과 다름을 강조하는 사람도 많다. 이는 공동지가 마을의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점차 공동지를 찾는 사람이 줄면서 공동지를 무서운 죽음과 연관하여 기억하는 양상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사례Ⅲ-5]은 부정적인 장소라도 전반적인 맥락이 변하면 해당 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시선 역시 빠르게 희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망자의 공간을 구성했던 핵심적인 두 축 중에서 한 축이 마을 주변에서 사라짐을 의미한다. 소외된 망자가 누울 곳은 이제 마을 주변이 아니다. 사라진 망자의 공간이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라진 망자의 공간이 칠전리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의 결과가 아니며, 이들도 무관심했던 사이에 이미 변해버린 것이다. 이전에 칠전리 밖 타지로 흩어지던 것이 조상의 장소였다면, 이제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마을 밖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을 주변 소외된 망자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의 기억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또깨비”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귀신은 많은 경우 옛날이야기였다. “요새는 또깨비볼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말은 현재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3. 변화하는 조상의 장소

마을 주변 망자의 공간을 구성하던 두 축 중의 하나인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마을 밖으로 옮겨가며 마을 주변에서는 사라지는 것처럼,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조상의 장소 역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른 문제가 뒤얽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촉발된 요인을 살펴보고, 현재 나타나는 장묘제와 공간 질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현지 주민들의 설명을 중심으로 그 내러티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을 현재의 다양한 변화와 연결하여 살피고자 한다.

1) 돌보기 어려운 묘지, 돌볼 사람 없는 마을

망자의 집을 묘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진도의 묘 역시 봉분이다. 전면에서 바라본 칠전리의 묘지는 반원형이지만, 위에서 바라볼 때는 물방울 모양과 같다. 등그

런 앞부분과 달리 산과 이어지는 뒷부분은 터널처럼 연결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은 산에서 무덤으로 이어지는 맥을 이어준다는 풍수적 의미 부여와 연관된다. 봉분은 만드는 것부터 그 유지와 보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후손들의 봉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묘는 개별성의 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후대로 갈수록 돌봐야 하는 묘지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점에서 묘를 유지하는 것은 적지 않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그렇기에 이는 부모를 모시는 효의 연장이자 조상에 대한 정성인 동시에 후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된다.

칠전리 사람들은 봉분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를 땅에 묻힌 망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진도는 매장 시 관을 쓰지 않으며 탈관하여 망자의 시신만을 묻는다. 편평한 바닥에 창호지를 깔고 그 위에 관에서 꺼낸 망자의 몸을 바로 눕히는 것이다. 따라서 봉분을 만들지 않으면 비바람에 땅이 파여 시신이 직접 드러날 위험이 있다. 또한, 봉분이 없으면 동물이 땅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본다. 이러한 시각은 마을의 “여시(여우)”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관된다. 마을 전설 속에서 여시는 묘를 파고 망자의 시신을 훼손하며, 마을 주변의 몇몇 무덤은 이런 일이 실제 목격된 장소로 지목된다. 진도에서는 이장(移葬) 시에 종종 사자의 발치에 큰 돌이 놓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물꼬독”이라 한다. 눈에 물꼬를 막기 위해 두던 큰 돌을 장례 과정에서 망자의 발밑에 두는 것이다. 이 역시 짐승이 묘를 침범해 시신을 훼손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봉분은 그 안에 잠든 망자를 따듯하게 감싸주는 것임이 강조된다. 겨울에 봉분이 갑자기 쪼개진 일화를 묘사하며 “안에 묻힌 사람이 얼마나 춥겠어. 빨리 다시 덮어줘야제”라는 한 주민의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무덤의 의미는 죽은 이가 머무는 곳으로 확장된다. 한국인에게 시신이 갖는 중요성은 많은 학자가 강조한 바 있다. 이광규(1993:95)는 “삼혼칠정(三魂七精)”을 말하며 사람이 죽으면 “혼의 하나는 저승으로 가고 하나는 시신에 남아 있으며,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떠돈다 하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경구와 박경립(1998: 789~791) 역시 이를 한국인 시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살보다는 뼈가 중시되는 믿음이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실제 마을 사람 내에서 혼과 백 그리고 귀에 대한 구분이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다. 자넬리·임돈희(2000[1993]: 62~64)의 연구는 영혼에 대한 주장이 한 마을 내에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칠전리 역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무덤에는 망자의 몸과 혼이 모두 머문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념은 일상의 구체적 발화로 나타난다. 타지에 나간 자식에게 제사를 준 부모는 “진도서 여까지 죽은 사람이 올라온

얼마나 뻘치겠어(피곤하겠어)”라거나, 동일한 이유로 제사는 타지에 사는 자식에게 줘도 명절에 차례는 칠전리에 있는 집에서 지낸다. 이는 무덤이 망자가 기거하는 장소로 여겨짐을 보여준다.

봉분은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 특히 봉분을 만든 해는 가장 위험한 때로 꼽힌다. 보통 무덤에 봉분을 만들 경우 흙을 쌓고 그 위에 잔디나 풀로 “때”를 입힌다. 이는 풀이 자라 그 뿌리의 힘으로 봉분을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든 직후 봉분의 풀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럴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봉분 일부가 쓸려가거나 허물어지며, 때로는 봉분이 반으로 쪼개지기도 한다. 연구자가 칠전리에 있던 음력 9월은 윤달이어서 당시 진도 지역에서도 이장을 많이 하였다. 한 장의사⁵⁰⁾는 당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난 윤달에 만든 무덤이 엄청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 역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봉분이 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전리 주민들은 봉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었다.

[그림 III-1] 차양막을 친 칠전리의 봉분



50)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이를 법률적으로는 ‘장례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장의사는 보통 그곳에 속하지 않는 장의 관련 업자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 그러나 칠전리에서는 어느 쪽이든 ‘장의사’로 통칭하여 부른다. 따라서 연구자 역시 이들을 칭할 때 양자를 모두 ‘장의사’로 통칭할 것이다.

먼저 봉분을 만든 첫해에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중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봉분 위에 검은 차양막을 덮는 것이다. [그림 Ⅲ-1]처럼 새로 만든 봉분 위에 차양막을 덮으면, 막 심은 잔디가 햇볕에 고사하거나 봉분이 말라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내리는 비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다. 차양막 틈으로 흘러드는 빗물에 잔디가 자랄 수 있고, 비가 많을 경우 차양막 위로 빗물이 흘러내려 봉분이 과하게 물을 흡수할 위험을 막아 풀뿌리가 내리기 전에 봉분이 무너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크게 나누면 봉분을 보강하는 방식과 빗물을 막는 방식이다.

[사례Ⅲ-6] 봉분을 보강하는 방식

(상황: 장례에 대한 참여관찰 중) 매장을 진행하던 장의사는 특이하게도 봉분을 쌓는 중간에 짚을 세 번 넣도록 했다. 이는 봉분이 무너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얼마 전 윤달에 산일을 한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열 건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과거 황토로 흙담을 쌓을 때 하던 방식으로, 가운데 넣은 짚이 흙을 잡아주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또한 흙 안에서 썩기 때문에 냄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진도에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는데,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장의사가 머리가 참 좋다고 추켜세웠다.

먼저 봉분을 보강하는 방식은 [사례Ⅲ-6]이 잘 보여준다. 여기서 장의사는 과거 토담을 쌓던 시기의 경험을 차용하여 봉분을 만드는 중간에 짚을 얇게 펴서 층을 만들어 봉분을 탄탄히 고정하려 했다. 또한, 다른 장의사의 경우 최근 굴착기를 동원하여 봉분을 만드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즉, 과거에는 봉분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발로 직접 밟아가며 다졌기 때문에 단단했는데, 지금은 굴착기를 동원하여 기계의 무게로 흙을 눌러 다지기 때문에 무덤이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굴착기로 누른 뒤에도 인부들이 직접 올라가 발로 밟아 다져주면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빗물을 막는 방식으로 앞에서 설명한 차양막을 씌우는 방식도 있지만 [사례Ⅲ-7]처럼 많은 비가 내릴 때는 빗물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비닐로 묘소를 덮어, 봉분이 물을 먹어 허물어지지 않도록 막기도 한다.

[사례Ⅲ-7] 빗물을 막는 방식

“여름엔 좀 성가시더라고. 빗이 강하니까 차강망을 씌워. 그랬다가 비가 많이 오잖아. 장마철에는. (중략) 큰 비가 무섭다는 이야기야. 큰 비 온다고 하면 한 50미리 온다 하면 비니리 씌워. 그럼 비가 못 들어가지. 비 맞고도 가지. 비웃 입고. 왜냐면 비가 조금 온다고 하면 놔둬야 될 거 아냐. (잔디가) 물을 먹여야 잘 크니까. 여름이고 이런 때. 그랬다가 생각지도 않은 비가 계속 와 버리는 거야. 그러며는 가서 덮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대로 놔둬버리면 너무 많이 먹거든. 물이 땅 끝까지 먹으면 그제서부터 이제 위험하지, (묘의) 봉우리가.” (박원준, 40대)

또한, 최근에 만들어진 묘소들은 공통적으로 묘지 주변에 깊은 고랑을 파고 묘지 뒷부분의 지대를 높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풍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소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즉, 보통 산 아래에 쓰는 묘들은 산 위에서 흘러내린 빗물에 봉분이 쓸려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따라서 묘지 뒤에 인공적인 큰 고랑을 만들어 산 위에서부터 불어난 물이 봉분 위로 직접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무사히 1년을 넘어선 봉분은 풀이 뿌리내림에 따라 무너지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안정된 무덤이라 해도 또 다른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는데, 동식물이 무덤을 훼손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대나무는 빠르게 번지고, 베어낸다 해도 뿌리째 뽑아내기 어려우므로 자주 베지 않으면 묘지 전체를 덮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또한, 매년 산소를 들른다 해도 자주 가지 않으면 봉분 위로 나무가 뿌리내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묘지를 자주 돌보지 못하면, 나무가 묘소를 침범하고 묘 주변으로 두꺼운 나무가 자라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봉분 주변으로 나무가 크게 자라면, 봉분 위에 입혀진 때가 잘 자라지 못하고 고사한다. 이럴 경우 봉분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기에 봉분 주변에 높은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때로는 태풍이 지나면서 부러진 나무가 봉분을 덮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묘지 주변으로 높이 자라지 않는 사철나무를 심 경우가 많았다.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묘소 주변에는 측백나무, 동백나무, 향나무 등 사철나무를 주로 심었다. 이는 묘지를 만들 때 큰 나무를 굴착기로 미리 밀어버리기 때문에 황폐하게 드러난 주변 지역을 푸르게 가꾸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다른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도록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봉분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동물을 들기도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럼 봉분을 너무 작게 만들면 “여시가 시체를 파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멧돼지가 봉분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벌초 전문가는 멧돼지들이 겨울철, 특히 구정 때 고수레한 음식 냄새를 맡고 내려와 벌을 잘 받는 봉분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연구자가 주변 묘소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짐승들이 새를 잡아 봉분 위에서 먹고 간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묘지 위로 뱀이 드나들며 구멍이 난 봉분도 있었다.

이처럼 봉분은 만들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대상이다. 벌초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봉분을 만들 때, 그 형태를 유지하고 버틸 힘을 주는 것이 풀이나 잔디지만, 풀과 잔디는 묘지 위에서 빠르게 자란다. 보통 잔디는 날이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급격히 자란다. 속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묘소든 1년만 벌초를 하지 않아도 그 묘지는 ‘목은 묘’가 된다.

[사례Ⅲ-8] 벌초의 빈도

“1년에 한번으로는 사실 모자라지. 그래서 좀 신경 쓰는 집에는 1년에 두 번을 해달라는 데도 있어. 풀이 생각보다 빨리 자라거든. 뭐 묘마다 다르지만. 특히 여름에 빨리 자라. 봐라. 8월에 보통 벌초를 한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추석이 돼서 와보면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새 풀 자란 건 생각 않고. (중략) 나도 그래서 웬만하면 추석 가깝게 벌초를 해주지. 그래도 요샌 벌초하고 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거든. 이러면 나도 편하고 좋지. 좀 더 정성을 들이는 집은 음력 7월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해서 두 번 벌초하는 집도 있어. 그럼 깔끔하지.”
(벌초 전문가)

묘지 관리가 본격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1990년대 부터는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마을 사람들은 기억한다. 현재의 벌초 문제는 위 토답을 맡던 산지기 일이 기피대상으로 변한 현실적 상황과 직결된다. 과거 진도의 문중에서 산지기에게 요구했던 업무는 상당히 다양했다. 이들은 문중답을 경작하는 대신, 선산의 묘소 관리 및 벌초, 음력 7월 말 벌초 성묘 시 문중 사람들에게 대한 음식 대접, 음력 10월 시제 준비, 소작료 납부 등의 여러 일을 동시에 맡아야 했다. 또한, 같은 문중 사람이 아닌 산지기는 해당 문중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을 굶혀야 했다. 그러나 가난했던 70년대 이전만 해도 농촌에서 산지기는 상당히 선호되는 일이었다.

[사례Ⅲ-9] 산지기에 대한 선호

“서로 돌아가면서 인자 있는 사람들은 안 벌고, 땅이 읊는 사람들로 해서 벌었어. 땅이 읊는 사람들로 해서 벌고... 그 후로는 인자.. 인자 또 뭐냐 집안이 퍼진게 거기서도 읊는 사람들이 서로 나는 한 번 벌면 두 번 벌고 잡고, 시(세) 번 벌고 잡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자 그 뒤로부터 제비를 뽑아부렸어. 제비를 뽑아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땅 한 평도 읊는 사람들이 참말로 재금 놔가지고(결혼해서 독립해) 살든지 인제 그. 그런 것을 했어.” (박철규, 60대)

[사례Ⅲ-9]에서처럼 마을 주민들은 가난하던 이전에는 산지기를 서로 하려 했다고 진술한다. 산지기를 하게 되면 여러 의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땅이 귀하고 먹을 것이 없던 때에 이런 부담은 충분히 감수할만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 주민은 산지기들의 부담이 과하지 않았냐는 필자의 질문에 “게으른 사람이 들어오면 고생만 하다 가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몫 챙길 기회”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산지기라는 일 자체가 땅이 없는 개인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기회로 여겨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이후 진도의 이촌향도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청장년 인구가 급감하고, 벼농사가 더는 “돈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급변하게 된다. 즉, 쌀의 가치가 하락하고, 수산물의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⁵¹⁾ 기존의 농촌과 어촌의 관계가 역전돼 “어촌이 농촌보다 부자”가 된 현재 진도의 상황에서 더는 산지기에게 이전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조선 후기 이후 계속된 간척 결과, 진도는 농토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진도의 간척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데, 『진도군지(2007: 262~263)』는 간척 이전 308㎢였던 진도의 면적이 간척으로 430.69㎢가 되어 약 28%가량이 증가했음을 보인다. 초창기 간척지에는 염해피해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이 점차 안정되면서 사람들은 문중답보다는 간척지에 생긴 논에 관심을 가졌다. 문중답이 마련된 곳은 주로 깊은 골짜기 안쪽이나 고지대에 있는 곳으로, 경지정

51) 과거 칠전리가 잘 살았다는 주민들의 추억은 이를 잘 보여준다. 60년대만 해도 어촌에서는 쌀을 구하기 위해 잡은 물고기를 동이에 이고 칠전리로 찾아왔다고 한다. 비슷한 이야기를 진도의 다른 농촌 마을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물고기를 담은 항아리를 이고 지나가는 아낙네를 골탕먹이는 것이 당시 어린아이들의 놀이이기도 했다. 칠전리로 온 어촌 사람들은 주로 마을 중심부인 현재 마을회관 주변에서 물고기를 쌀과 맞바꿨다. 쌀 한 되로 살 수 있는 고기가 많았으며, 당시 진도의 어민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쌀값이 적게 오른 것에 비해 해산물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러한 양상은 급격히 변하였다.

리가 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농업 인구가 급격히 줄고 기계화되면서 대농(大農)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농촌의 상황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간척지는 염해가 나타나긴 하지만, 경지정리가 잘 돼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컸기에 문중답은 기피 대상이 되었다. 이촌향도로 직접 농사를 짓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적어진 현실에서, 농기계 없이 대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맥락에서 “벌지 못하는” 문중답이 점차 늘어났고, 설령 문중답을 경작하는 경우라도 쌀의 가치 하락으로 과거 산지기에게 했던 많은 요구를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산지기의 입장에서조차 이전의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경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되었다. 결국, 최근에는 문중답을 빌려주는 경우라도, 소작료만 납부하는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더는 산지기가 벌초를 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한동안은 마을에 남은 자손들이 직접 벌초를 하거나, 마을 사람들과 서로 품앗이를 통해 벌초했다. 마을 안에 남은 젊은 청년은 벌초를, 늙은 아주머니들은 대신 밭일을 해주는 노동력의 교환도 나타났다. 그나마 문중답을 여전히 빌려줄 수 있는 집의 경우, 벌초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문중답이 “묵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경우 마을에 남은 자손들이 벌초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에 거주하는 이들은 어디의 묘소가 “누구네 집 각금(山)”인지를 모두 알고 있으며, 방치된 묘지는 마을 안에서 개인의 체면을 꺾는 요소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정착한 이들이라도 그들의 자식은 대부분 타지로 나간 상태였다. 마을에 남은 이들이 건강하던 때에는 벌초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칠전리에 남은 부모세대는 죽거나 연로하여 묘지 벌초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벌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타지에 나간 자손들이 벌초를 위해 직접 칠전리를 들르는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땅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이는 과거와 달라진 산의 상태와 관련된다. 땀감이 없던 과거에는 주변의 산에서 나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따라서 칠전리 주변의 산들 역시 민둥산이 많았다. 장작을 많이 했기에 산에 나무가 남아있어도 훨씬 성기게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벌들이 있는 위치도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었고, 벌집 입구도 드러나 있었기에 벌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는 땀나무를 하지 않게 된 지금, 벌초 시 무성히 자란 나무와 풀로 가려진 땅벌 집을 건드려 발생하는 사고는 마을 안에서도 자주 회자되었다.

[사례Ⅲ-10] 벌초와 벌떼의 문제

“함씨(할머니), 한암씨(할아버지) 뢰(묘)가 거그가(거기에) 있어. 지금. 그라고 우리 애기들이 벌초를 해주지. 그란데 작은아부(작은아버지)하고 우리 큰놈(큰아들)하고 그리 올해 벌초를 하러 갔다가 왕벌떼가 작은아부를 쏘아서 머리 가마꼭지를 쏘서 죽었는가 정신이 없더라카데? 그래서 인자도로 내려와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한 달 지이(내내) 그 렁게루 맞고 그 물리치료 받고 그래갖고 벌 쏘대가 나왔대. 벌 쏘머는 죽어. 사람이. 그란데 낫더라카데? 올해. 그래갖고 벌초를 거그다 하다가 못하고 놓아뒀어. 벌떼가 쏜께. 거그도 벌초를 해야 할텐디. 우짚꼬.” (문옥순, 80대)

이처럼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벌초를 해야 하지만, 직접 벌초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2000년대 이후 전문 벌초 업자들이 등장했다. 진도는 진도농협에서 먼저 벌초 대행사업을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진도 산림조합에서도 벌초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조합 외에도 현재 많은 개인사업자가 벌초를 대행한다. 이들은 진도 읍내에 살거나, 혹은 외지에 나간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돈을 받고 벌초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비용은 봉분 하나당 5~7만 원에 이르며, 십여 기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많기에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재 칠전 청년회에서도 고향을 떠난 향우들을 위해 벌초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서 청년회는 마을 안에서 벌초일을 할 수 있는 마을 주민과 고향을 떠난 향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청년회는 진도 읍내의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싼 가격으로 의뢰를 받는다. 그리고 이 일을 마을 청년들이 맡게 돼 부수적인 수입을 올릴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여러 봉분을 관리해야 하는 후손의 입장에서, 벌초를 맡기는 것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례Ⅲ-11] 입장에 따른 벌초료의 축소

“자 봐라. 내가 (묘를) 10개 비어(벌초를 해). 으르신(어르신) 앞으로 10개를 뵈다고. 으르신 인자 돌아가셔. 저기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실 거 아니냐고. 그라문 11개로 늘어야 되잖아. 이게. 10개에서 하나 더 하나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서 일곱 개로 줄어버려. (중략) 자기 아버지 입장하고, 돌아가신 뒤에 엄매하곤 또 틀려버리지. 어머니가 계시며는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메꿀라면 그게 돈이잖아. 돈이 많은 사람도 11비상 있는데 7비상만, 어디어딘 하지 마라. 인자 그라버리더라고. (중략) 저 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 그럼 이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냐. 또 줄어버려 인자.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부모님 이제 네 기만 해버려라 그러는거야.” (벌초전문가)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묘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사례Ⅲ-12]처럼 묘지에 대한 생각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칠전리에는 마을에 남은 부모가 묘지 관리를 못 하게 될 때, 이를 보다 못한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대신 별초를 하는 경우나, 아예 별초하지 못해 묘가 허물어지거나 묵은 상태로 방치되는 양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봉분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묘를 계속 돌볼 사람이 없는 현실은 칠전리 주민들에게 많은 고민을 가져왔다.

2) 명당에 대한 믿음의 약화

칠전리에서 명당에 대한 믿음과 관심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칠전리의 묘가 마을 밖으로 흩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칠전리 안에서도 묘는 명당을 찾아 흩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명당에 대한 믿음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 강했던 명당에 대한 믿음과 그 약화는 이 마을이 위치한 풍수적 형국을 설명하는 것에서도 그 변화상이 잘 드러난다.

[사례Ⅲ-12] 마을의 풍수적 형국에 대한 세 가지 설명

설명A: 박상호(80대)는 칠전리 주변의 모양이 마을을 중심으로 두 마리 용이 서로 얼굴을 들이밀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이라고 하였다. 한 마리 용은 봉오산(첨찰산)으로부터 내려오며, 진등이 그 등이고 사분산이 용머리가 된다고 하였다. 현재 천망제가 생기기 전에 사분산에는 두 바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용이 입을 벌린 모습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 마리의 용은 여귀산을 통해 임회면 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농바위가 그 용의 입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칠전리는 두 마리 용이 서로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이며, 그 중간에 성냥간(대장간)을 두었다고 했다. 용이 서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자리여서 터가 울리는 곳인데, 이런 곳이 지기가 강해서 또 깨비가 잘 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항상 쇠를 치는 소리가 나는 성냥간을 세운 것이라 하였다.

설명B: “칠전리 마을은 예전부터 용상이라 했어. 마을을 용이 감싸고 있다고 한거지. 용머리가 저기 동쪽 사분산, 그 사분산이 있는 곳이고. 용꼬리는 여기 학교 건너. 옆에 있는 산이 돼. 용이 이 칠전 마을을 감싸는 거지.” (박준호, 60대)

설명C: “칠전 마을은 용이 둘러싸고 있다더라고. 크게 용머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등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어딘지 난 모르지. 근데 지금 버스가 다니는 곳이 연등재야. 거기도 용등재가 잘못 전해졌을 수 있어.” (박철준, 50대)

[그림 Ⅲ-2] 칠전리 위치에 대한 풍수적 해석 (출처: 네이버 지도)



위의 세 가지 설명 중 연령이 가장 높은 박상호의 설명이 제일 상세했다. 설명 A([그림Ⅲ-2]의 ①)는 칠전리 주변의 산을 진도 전체의 산세와 연관하여 그 흐름을 보여준다. 두 산에서 시작하는 두 마리 용이 뺨어와 칠전리를 중심으로 마주보고 다투는 형상임을 지적한다. 또한, 두 마리 용이 마주하는 사이로 성냥간(대장간) 같은 구체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입지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제시한다. 이에 비해 박준호의 설명([그림Ⅲ-2]의 ②)은 설명 A에 비해 많은 부분이 생략된다. 두 마리 용 중 한 마리 용이 사라지며, 용이 마을을 감싸는 모양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머리, 등, 꼬리를 마을 주변의 지형에 맞춰 재정립하고 있다. 마지막 박철준의 설명은 가장 간단하다. 또한, 마을을 둘러싼 용이 있다는 것은 들은 적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디가 머리, 등, 꼬리인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박철준의 대답은 박상호나 박준호와 달리 상대적으로 생활공간이 칠전리 밖에 오래 있었던 그의 생애사적 맥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

뛰어난 기억력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지는 박철준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세한 정도는 마을에서 계속 거주해온 박상호나 박철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명당은 물론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 정도가 크게 약해지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는 마을 주변에 새로 나는 도로가 침찰산에서 내려온 용의 몸통을 가로지르는 일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사례Ⅲ-13] 마을지리와 형국론

마을 동편을 돌아 진도읍으로 나가는 비포장 도로는 일제시대(1920년)때 만들어졌는데 길을 낼 때 용의 목 부분을 자르고 지나간다고 하여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까 크게 반대가 심하였다. 1960년대 말 마을앞 803번 지방도가 뚫리고 확포장될때에는 사두형국(巳頭形局)⁵²⁾의 목부분을 자른다고 해 역시 반대가 있었으나 생활의 편리에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박병훈 2002: 7)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칠전리 북쪽으로 들어오는 신작로를 만들 때, 용의 목을 자른다고 하여 반대가 심하였다. 비슷한 논란은 1960년대 마을 동쪽으로 사분산의 연동재(連洞峙)를 넘어오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두 번 다 논란이 되었고 전자에서는 큰 반대로 묘사되지만, 후자의 반대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했다고 기억된다. 물론 이러한 풍수적 해석은 약화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해석은 여전히 마을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칠전리에서 사람들이 연달아 죽으면 “용의 목을 잘랐기 때문에 줄초상이 났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원래대로 돌리자는 주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변화하는 현재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명당에 대한 관심의 약화는 마을 주변의 지형을 둘러싼 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묘지풍수 전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택시 우버스”라는 우스갯소리는 이곳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명당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지의 자식들이 내려와 쉽게 들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명당은 접근은 물론

52) 마을 주민들 중에는 이것이 “사두형국”이 아니라 “백호형국(白虎形局)”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주민들은 이곳 지명을 “연동재(連洞峙)” 혹은 “백호등(白虎嶺)”으로 부르는 것과 연관된다. 이곳을 백호등으로 부르는 이유는 마을을 중심으로 볼 때 이곳이 서백호에 해당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곳을 “사두형국”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곳의 산 이름을 “사분산(巳奔山)”이라 하여 “뱀이 달리는 모양”의 산으로 본 것으로 용과 뱀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용의 머리”와 이어지는 부분이다.

관리도 어려운 곳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 변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인구 이동의 문제다. 이와 함께 자주 지적되는 것은 바로 땀감의 문제였다.

1970년대나 그 이전에 대한 마을 고령자들의 기억에서 땀 수 없는 것이 땀감을 구하는 것과 겨울을 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한 달 가량 시간을 두고 산에서 땀나무⁵³⁾를 했던 경험을 말했다. 당시 나무가 귀했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많은 땀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문중의 선산이나 개인의 각금(山)이 있는 경우 그곳에 가서 땀나무를 해올 수 있었지만, 산이 없는 사람들은 국유지였던 “베락박굴(雷巖洞)”에 가서 땀나무를 해오곤 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땀나무를 하는 사람도 많았기에, 칠전리 주변의 산들은 상당히 황폐해졌다고 기억하였다.

결국, 산속에 산소를 만들더라도 주변 산에 나무가 많지 않고, 풀 역시 땀감으로 굵어났기 때문에, 산소를 만들러 산에 올라가는 것도 이후에 산소를 돌보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였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명당을 찾으면 그곳에 묘지를 쓰고 관리하는 것 모두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나 1980년대에 석탄 난로가 나오고 이후 석유난로가 보급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산에서 더는 땀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면서, 산은 빠르게 변했다. 한 해만 지나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풀이 급격하게 자라면서, 깊은 산 속에 명당을 찾아 묘를 쓴 경우 벌초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허리 넘어 자란 풀을 베고 길을 만들어 올라가야 했다. 또한, 주변에 나무가 자라 묘지를 쉽게 훼손하는 상황에도 직면했다. 앞 장에서 다루었던 땅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속 깊이, 혹은 마을 밖 멀리 명당을 찾아 묘지를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동시에 이는 최근 풍수지리에서 강조하는 방향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마을에서는 묘를 쓸 때, 묘가 바라보는 방향인 좌향(座向)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나타난다. 장의사에 따라서는 좌향과 함께 지하에 흐르는 수맥과 관련된 이론을 연구자에게 설명하며 풍수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속에서 명당의 개념이 상당히 변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명당은 더 이상 큰 맥락에서 지세를 살펴 타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이제 명당은 마을 주변의 땅, 혹은 소유자의 땅 중 수맥이 흐르지 않고 자손들이 찾기 쉬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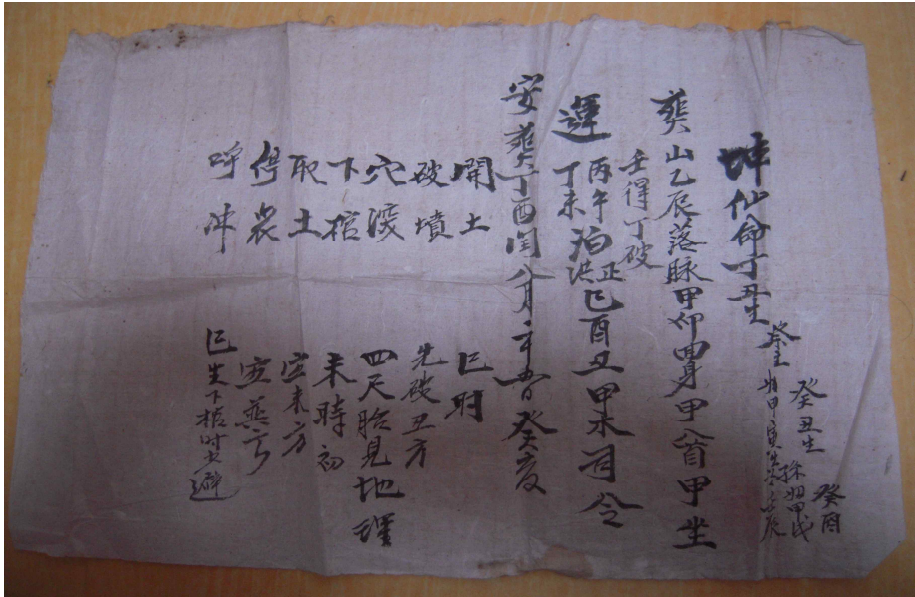
53) 여기서 땀나무는 나무 전체를 자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당시 땀나무를 할 때, 나무 전체를 베지 않고 나무 아래 있는 나뭇가지를 치거나,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와 마른 풀을 긁어가는 정도였다. 특히 문중 소유, 타인 소유, 국가 소유의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겨서는 안 됐다.

으로 변한 것이다. 칠전리 내에서도 이전부터 “풍수를 아는 어른”이 있어서 좌향을 잡아주고 뗏자리를 봐주곤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약 5년 전에 그가 죽은 후로 마을 안에서 풍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는 명당에 대한 지식이 마을 안에서 순환되지 않고 소멸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연구자가 마을에 있을 때 묘지의 위치나 방위는 주로 장의사가 잡았다. 이전에 장의사와 별도로 묘지의 위치를 보는 지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장의사가 양쪽 일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외부에서 풍수 전문 강의를 통해 풍수를 배우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지남철을 갖고 다니거나, 수평추를 갖고 다니면서 묘지의 위치를 정하고 평석의 수평을 재곤 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묘역 내부에서 정해진 묘지의 방향을 잡거나, 평석의 수평을 잡는 것에 한정되어있다. 반면 과거에는 [그림Ⅲ-3]처럼 장례 이전에 묘지의 위치, 하관의 시기, 관이 이동해 가야 하는 방향, 하관 깊이 묘소의 방향 등에 대하여 지관이 미리 이를 봐주고 이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글로 써서 적어주었다.

[그림Ⅲ-3] 이장 위치 및 시기에 대한 문서



명당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있으며, 현재 풍수지리는 그 강조점이 바뀌고 있다. 칠전리에도 여전히 풍수지리를 강조하고 유명한 풍수전문가를 찾으며 그들을

통해 선조들의 묘를 살피는 이들은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재력이 충분해도 명당을 찾아 칠전리 밖으로 명당을 찾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본인이 소유한 땅이나 마을 가까운 곳에서 명당을 찾는다. 또한, 올라가기 어려운 곳보다는 길 가까운 곳에 묘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풍수를 따지는 이들 역시 지금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명당의 형국 역시 상당히 간략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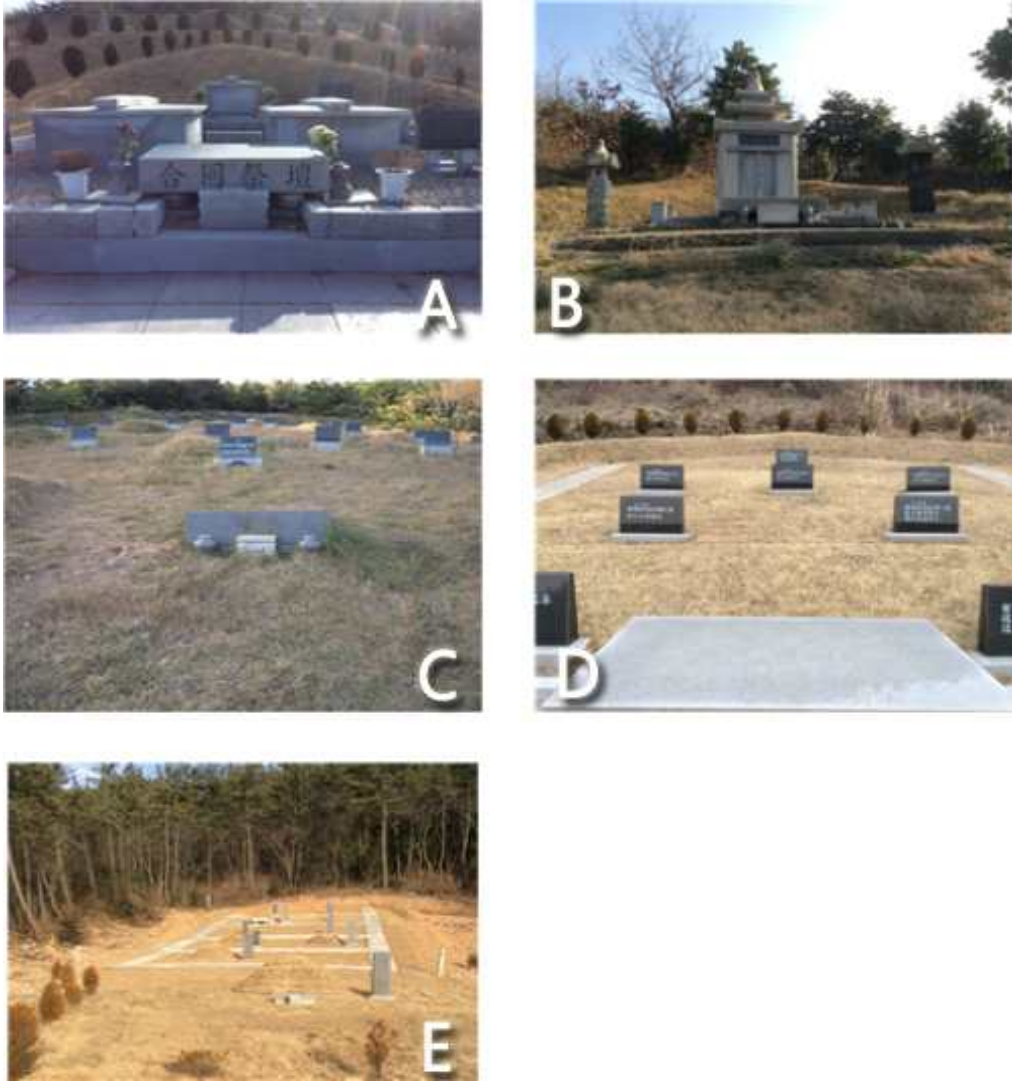
3) 칠전리로 모이는 묘지: 다양한 변화 양상

칠전리 주민들이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해 선택한 해답은 사방에 퍼진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었다. 이전처럼 명당에 묘를 써도, 후손들이 이를 돌보기 어려울뿐더러, 이제는 묘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연구자는 종종 침찰산 위에 있는 묘지 이야기를 들었다. 침찰산 정상 근처에 밀양박씨가 묘지를 쓴 곳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명당이라고 하면 그런 곳까지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후손들이 벌초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곳에 묘지가 있었는지조차 잊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마을 사람마다 의견의 차이가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풍수지리를 중시하며, 묘를 마련할 때 지관의 의견을 구하는 집은 여전히 있다. 또한, 묘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처럼, 조상들의 묘를 지금처럼 그대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을 안에서 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여러 방식으로 교환되고 있으며, 묘지를 정리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마을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조상의 장소는 칠전리 주변의 한 장소에 모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묘지 정리의 세부적인 방법은 집안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통적인 경향은 묘소를 한 곳으로 모으되, 그 위치는 칠전리 주변으로 정한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Ⅲ-4]와 [표Ⅲ-2]는 현재 마을에서 4세대 이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은 묘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Ⅲ-4] 칠전리 주변 정돈된 조상의 장소



[표Ⅲ-2] 재편된 선산의 형태, 연대 및 위치

번호	형태	안장수	제작연대	위치
A	납골당	약 90기	2004	외야골(外野洞)
B	납골당	약 100기	2003	맷골(梅花洞)
C	봉분		2004	진골(泥洞)
D	평지장	8묘(20명)	2008	뱀골(巳谷)
E	봉분, 평장	10묘	2014	샘골(泉洞)
F	평장	5묘(10명)	2015	뒷작금(后山)

먼저 묘를 모은 이들이 선택한 장소를 살펴보자. 위 표에서 B, C, E, F 사문중의 경우 원래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산을 그대로 썼다. 특이한 건 D 사문중인데, 이들은 과거에는 잘 쓰지 않았던 뱀골에 묘를 썼다. 칠전리 주민들은 뱀골과 진골에는 예로부터 묘를 잘 쓰지 않았으며, 혹시 불가피하여 쓸 경우 절대 묘비를 세우지 않았던 곳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지금 생긴 새로운 묘는 이러한 과거의 시선에 무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묘를 모으는 방식은 같은 2000년대라 하더라도 차이가 난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납골당이 성행했던 것에 비해, 2008년 이후에는 평지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평지장이라 하여도 D, E, F의 사례는 모두 다르다. E 사문중은 조상의 묘소에서 뼈가 나온 경우 봉분을 만들었고, 뼈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평장을 하였다. 다만 모든 묘 앞에 높이 70센티가량 되는 높은 비석을 세웠다. 이에 반해 D 사문중, F 사문중의 경우 모든 이들을 봉분 없이 납골함만 묻는 방식으로 평장을 하였다. 다만 D 사문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석을 세웠다면, F 사문중은 잘 보이지 않게 작은 돌로 만든 표석만 두어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이후 생긴 세 집안의 산소는 이전보다 훨씬 규격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Ⅲ-5]의 D, E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기 이후의 묘소에서는 일정한 너비로 콘크리트를 굳혀 사각형으로 전체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을 표시하여 단을 만든다. D, E 집안의 경우 모두 4층으로 이를 구성하였다. 이 선에 맞춰 묘를 배열하기 때문에 묘는 더욱 열을 맞춰 늘어서게 된다. 이는 2004년 만들어진 C 사문중의 선산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먼저 C 사문중의 사례에서 같은 대의 조상은 모두 동일한 줄에 모셨다면, D, E는 여러 대의 조상을 한 줄에 놓되, 다만 높은 대의 조상일수록 왼쪽 위에 오게 배열하였다. 다른 차이로는 C 사문중의 묘는 묘역 안을 콘크리트로 구획하는 것 없이 배열되었다면, D, E 문중의 묘소는 콘크리트로 구획되고, 그 안에 배열된 묘는 모두자로 잰 듯 정확한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D, E, F 문중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D 문중의 경우 가장 윗대 조상을 맨 위에 한 분 모시고, 다음 조상들의 윗 조상부터 아래로 배열한다. 이런 방식으로 세 열을 채우되, 각각의 열은 일종의 대칭 구도로 기획되어 있었다. E 문중의 경우 한 열에 두 기의 묘를 만들었다. 설령 다른 세대의 조상이라도 윗대 조상을 왼쪽에 아랫대 조상은 오른쪽에 모시는 양상은 지킨다. F 문중의 경우 가장 윗대 조상을 제일 위 한가운데에 모셨고, 그 아래 4대에 해당하는 조상은 그 아래에 가로로 한 줄로 모셨는데, 윗대 조상을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두었다. 이처럼 어떤 방식으로 조상을 모셨는가의 양

상은 집안마다 차이가 난다. 다만, 묘가 차지하는 공간은 시기가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최근의 묘일수록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조상을 모실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부부를 모실 때 한 묘에 모시는 양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4년 만들어진 C 문중 사례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부인이 많을 경우 본부인이 아닐 때는 다른 지역에 묘를 썼던 과거의 양상과 달리, 부인이 몇이건 한 장소에 부부를 함께 모시고, 묘비도 하나만 세우는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새로 조성된 조상의 장소는 하나의 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기보다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집안의 규율에 따라, 그 시기의 선호되는 방식에 따라 묘역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다음은 C 집안의 묘역 정리 양상을 분석한 자료이다. 아래의 [표Ⅲ-4]는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C 사문중의 묘소 정리사업 전후 묘지가 있던 곳의 위치를 현재와 비교한 것이다.

[표Ⅲ-4] C 사문중의 이장 전후 묘지 위치

이장 전 묘소 위치				⇒	현 묘소	
지역분류	지역 명		명수		지역명	
칠전리	칠전 총계		34		칠전리 진골 선산	
	넘에	갯골(狗尾大路)	2			
	서록(西麓)		3			
	웃골(上谷)	갯골(笠洞)	2			
		도채비골(道疊洞)	1			
		샘골(泉洞)	1			
		웃나무골(漆洞)	4			
	진골(泥洞)	진골 합계	8			
		증산(甞山)	6			
		천마산(天馬山)	1			
	천방(天防)		10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1			
	의신면	돈지리	1			
		중굴리	1			
	임회면	용호리	1			
		포산리	1			
서울			2			

위의 표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곳에 있던 묘를 한곳으로 모았음을 볼 수 있다. 먼저 C 사문중에서는 칠전리를 제외한 진도군 내에서 5지역에 묘를 두고 있으며,

칠전리에는 천방폭포쪽에 있는 선산 외에도 진골, 웃골, 칠전서록, 넘에 쪽의 갯골 등 다양한 곳에 묘를 두고 있었다. 족보상 지명으로 구분되는 곳만 14곳이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에 죽어 자손들이 서울 부근의 묘역에 모신 경우였다. 이러한 양상은 C 집안의 이전 묘가 마을 안팎으로 멀리 퍼져있었음을 보여준다. C 사문중은 이처럼 흩어진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중 논의를 하였고, 문중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두 명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묘지 정리가 현실화 될 수 있었다.

이들은 묘가 차지하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특히 봉분을 낮게 만들고 부부는 아내가 여럿인 경우여도 모두 한곳으로 합장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실제 이곳의 봉분은 30센티 이하로 낮게 만들었는데 이는 주변에 남아있는 고묘(古墓)의 크기가 매우 큰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봉분의 크기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별초 문제였다. 이처럼 봉분을 작게 만들 경우 크게 만든 봉분에 비해 별초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부부합장을 통해 기존의 봉분 3~4개가 필요한 공간을 1개로 줄일 수 있고, 또한 봉분을 작게 만들면 그 규모를 더 줄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C 사문중은 이곳에 묘역을 정할 때는 따로 지관을 부르지 않았다. 이곳으로 이장을 주도했던 박문호(70대)는 명당을 찾는 것이 잘못된 미신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선조들이 남긴 선산 중 넓고 양지바른 곳을 택했고, 이에 적당했던 진골의 산을 그 자리로 잡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칠전리 주변의 조상묘역을 정리하는 것은 흩어진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에 그 초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칠전리 내에서 흩어진 묘는 물론 진도 내, 멀리서 전국으로 퍼진 자손들의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양상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는 칠전리가 생활의 중심이었던 과거 상황에서 조상의 장소는 칠전리 주변만이 아니라 명당을 찾아 마을 밖으로 뻗어 나간 것과 달리, 이촌향도와 이후 이어진 급격한 변화로 마을이 공동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조상의 장소가 마을 주변으로 모이는 공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는 개별 문중에 따라 납골당·평지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4. 확대·재편되는 망자의 공간

현재 칠전리 주변 망자의 공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을 구성하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와 조상의 장소 모두에서 나타난다. 먼저 칠전리 주변 망자의 공간에서 중요한 축으로 존재했던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마을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축의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죽음을 구분해오던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의 가교를 담당하던 전통적인 전환 의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각각에 해당하는 죽음의 구분 자체가 달라지는, 죽음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한다. 이때 ‘소외된 망자’로 규정되는 죽음의 규모 역시 이전보다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으며, 이들의 죽음은 마을 밖에서 다루어지고 칠전리 주변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의 축인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탈각된 상황에서, 칠전리 주변 망자의 공간은 조상의 장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재편의 핵심은 흩어진 조상 묘의 정리이다. 과거 칠전리 내외로 명당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던 묘는 이제 더는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이렇게 흩어진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었으나, 그 방법은 문중에 따라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련의 변화는 인구의 변화와 연관하여 고려할 때 독특한 그림을 연상시킨다. 즉, 칠전리가 거주민의 중심 생활공간이던 과거에는 칠전리를 중심으로 조상의 장소와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마을 주변의 다른 장소를 점하며 망자의 공간을 구성하였고, 이 중에서 조상의 장소만 칠전리를 벗어나 더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를 선산으로 점유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칠전리의 출신자가 마을 밖으로 흩어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완전히 변화였다. 먼저 마을 주변에 있던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마을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신 타지로 흩어졌던 조상의 장소는 다시 칠전리 주변으로 모인다. 이는 죽음을 구분하던 한 축인 ‘비정상적 죽음’이 사라지고 ‘정상적 죽음’만 남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현재 망자의 공간이 한 마을을 넘어선 규모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도시 주변 망자의 공간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칠전리보다 도시로 여겨지는 진도를 근처에는 진도의 망자를 수용하기 위한 현대적인 장묘시설이 건립됐다. “보배 숲 추모공원”으로 불리는 이곳은 화장 후의 유골을 대상으로 납골당, 평지장, 수목장 등을 제공하는 시

설이다.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관리되는 시설임에도 이곳은 연로한 칠전리 주민들에게 공동묘지로 여겨진다. 이유는 이곳이 갖는 핵심적인 이미지가 과거 칠전리 주변의 공동지와 겹치기 때문이다. 즉, 주변에 묻힌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맞은 것인지 알 수 없고, 내력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함께 묻힌다는 점에서, “보배 숲 추모공원”은 공동지가 되며 부정적인 곳으로 인식된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화자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칠전리의 청년층에게 이곳의 인상은 훨씬 좋으며, 오히려 앞으로 일어나야 할 변화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칠전리의 6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 이곳은 공동지이며, 돌아가신 선조를 화장하여 보배 숲 추모공원으로 모시는 일은 공동지에 모시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는 칠전리 주변에서는 공동지가 사라지고 있으나, 이를 대체하는 장소는 마을 밖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적인 곳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 주변에 누가 묻혔는지 알 수 없으며, 내력을 알 수 없는 망자가 뒤엎혀 있다고 인식되는 곳이면, 그곳은 칠전리 주변의 “공동지”와 동일한 장소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칠전리 망자의 공간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조상의 공간과 마을 밖의 소외된 망자의 공간이라는 양 축으로 재편됨을 보여준다.

여기서 소외된 망자의 공간은 단순히 도시 주변 망자의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칠전리의 사례에서 최근에 죽은 젊은 자식은 대부분 화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 이후에는 이를 산골 하거나 납골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자가 접한 사례에서 납골한 곳은 보통 대도시 주변이나 혹은 진도읍 근처의 납골당이었으며, 산골 하는 지역으로 언급된 곳은 진도군 군내면의 녹진리 주변이었다. [사례Ⅲ-3]의 내용처럼 진도대교나 주변의 언덕에서 바닷가로 뺏가루를 뿌리고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현재 망자의 공간이 모든 곳에서 터부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지점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도시 주변에 생긴 공동묘지나 납골당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가 있으며, “월하의 공동묘지”로 대표되는 공포의 공간이 된 현실에서, 근대화 이후 묘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 되었다는 지적(한경구·박경립 1998)은 일면에선 타당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칠전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현실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칠전리 내의 조상의 장소는 여전히 편안한 곳이며, 누군가 조상을 모시기 위해 땅을 산다고 할 때, 그곳에 묘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설령 칠전리 태생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밭을 사 그곳에 묘를 만드는 경우에도 이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망자의 공간에 대한 태도가 현재 한국 내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에

르츠의 양손에 대한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망자의 공간에서도 양극적 측면은 공존하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의 변화는 죽음의 양 측면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적 규모에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차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지점들을 보여준다.

IV 망자의 공간 변화의 역학

앞의 두 장을 통해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에서 양 축이 재편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망자의 공간 중 칠전리 주변으로 모이는 조상의 장소에 초점을 둔다. 앞 장에서 조상의 장소에 대한 내용이 퍼져있는 묘를 모아야만 하는 현실적인 맥락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장에서는 묘를 모으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영속성이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조상의 묘를 모으는 과정이 묘소의 개별성을 넘어 혈연적 집단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이며, 묘를 모으는 것이 칠전리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1. 변화의 도입과 타협

장묘제와 공간의 변화는 마을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향우들의 타협을 통해 마을 속으로 스며든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변화에서 어떤 지점에서 어긋나며 그것이 어떻게 타협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이러한 충돌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기 위해 도입-변성-쇠퇴라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가족·문중납골당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새로운 장묘제도의 도입과 공간적 재편이라는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개별 사례를 넘어 다른 묘지 정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국가 정책을 통해 촉발된 변화가 촌락 마을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정리해보고, 이 속에서 주민들의 핵심적인 의도를 파악할 것이다.

1) 납골당의 등장과 쇠퇴

진도의 경우, 가족·문중 납골당의 숫자는 통계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증가한다. 다음 [표IV-1]은 진도군에 등록된 가족·문중 납골당⁵⁴⁾

54) 진도군청에서는 납골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놓고 가족과 문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중 납골당은 문중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중에서 신청하는 곳임에도 문중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문중 납골당이라 하여 납골당 규모가 모두 크지는 않으며, 반대로 갖고 가족 납골당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곳(최대 100명 이상 수용)도 많다. 다만 이 글에서는 문중 구성원들의 협력

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진도군통계연보 2009, 2014)이다. 이 표를 보면 2000년까지 단 한 곳도 없던 진도군 내의 가족·문중 납골당은 2003년에 16곳, 2004년에 11곳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2005년을 기점으로 바뀌는데, 2009년까지 네 곳이 늘어나고 2010년에는 두 곳 줄어들어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전히 36곳의 가족·문중 납골당이 진도 내에 있다. 총 36곳의 가족·문중 납골당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504명을 안치할 수 있었고, 가장 작은 곳은 30명을 안치할 수 있었다.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납골당은 100명 이내를 안치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조성되었다. 진도 내 가족·문중 납골당의 평균 규모는 88명을 안치할 수 있는 크기로, 2012년 연말 기준으로 평균 47명이 안치된 상황(진도군 행정자료)이다.

【표IV-1】 진도군의 연도별 등록 사설 납골당 수

(진도군 통계연보 2009: 371, 2014: 341)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수	0	1	3	19	30	34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개수	35	35	-	38	36	36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화장과 납골당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진 1999년 이후의 맥락과도 일치하며,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양상의 변화가 진도에도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한 축에는 이장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진도군에서는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 100기를 안치하는 규모의 납골당 설치에 드는 비용이 약 1000~1500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많게는 총비용의 반액까지도 보조받을 수 있었다.

현재 칠전리에 있는 두 곳의 납골당 역시 각각 2003년, 200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위의 급격한 납골당 증가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유인이 납골당 증가의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칠전리의 두 납골당 모두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납골당은 문중 납골당, 4대 미만의 좁은 혈연 구성원의 협력으로 만든 납골당을 가족 납골당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차후 가족 묘소와 문중 묘소의 구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사례Ⅳ-1] 납골당과 정부 보조금

박연호는 보조금이 생기고 나서 많은 칠전리 주민들이 납골당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것은 납골당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2003년 이후였으며, 보조금을 타는 것 역시 까다로웠다고 기억했다. 정부에서는 1m 이상의 크기로 납골당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고,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지도록 통제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못했고, 신청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기억했다. (박연호, 70대)

[사례Ⅳ-1]처럼 납골당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있었던 것은 납골당에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이후의 일이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애초부터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국가의 납골당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납골당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퍼지는 배경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며,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칠전리 주민들에게 납골당이 선호되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여러 곳에 퍼진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점이다. 3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칠전리의 묘는 마을 주변으로, 혹은 마을 밖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현재 마을에 살지 않는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기 쉬운 곳에 조상을 모으기 위함이다. 이 경우 납골당은 큰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벌초로부터의 해방이다. 납골당은 돌로 만들기에 한 번 만들고 나면 벌초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Ⅳ-2] 납골당을 고민한 이유

“납골당은 인제 애기들(자식들)이 아들이 없으께 (벌초를 못해도) 납골당 지서 갖고 거그서 가이나들또(딸·손녀가) 오면 가면 이라고 지키고… 사우들(사위들)도 우리 엄매 아배 뻔(묘)이단다 지키고… 거 납골당에다 힘을 쓸란가 그라고. 하라겠어. 그래서 인자 문중에 선산 있으니까 거그다 납골당 하나 지워줌 딱 하나 해놓고 공구리로 딱 해서 저그들 전부. 이렇게 딱 대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다 전부 이름 표 쓰고 좋게. 공구리도 탁탁 말아서 이렇게…” (문옥순, 80대)

[사례Ⅳ-2]는 한 편에서는 묘소를 모아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납골당을

만들고 싶다는 의도와 함께, 손자가 없어서 벌초할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곳으로 납골당을 생각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납골당은 이처럼 문중 선산에 비해 좁은 공간을 차지하며, 돌로 만들기 때문에 때때로 청소는 해줄지언정 벌초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년 들어가는 벌초 비용이나 여기에 드는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여러 대의 조상들을 구분하고 개별 조상 간에 존재하는 혈연적·계보적 질서를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2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칠전리에서 조상의 묘에는 개별성과 집단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즉, 조상의 묘는 기본적으로 개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상을 모신 장소의 형태는 변하더라도 각각의 조상은 뒤섞이지 않고 구분되어야 한다. 동시에 구분된 조상 사이에 일정한 공간적 서열을 보여주는 소목(昭穆)의 규칙을 따라서 윗사람을 왼쪽 위에 모셔야 한다. 비록 납골당에는 조상의 뼈만 추려서 모시지만, 납골당은 앞 장에서 강조된 개별성의 원칙과 집단성의 원칙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림Ⅳ-1] A 가족 납골당



[사례Ⅳ-3] A 가족 납골당 구성 방식

박연호(70대)는 자신의 가족 납골당을 크게 세 가지 건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높이가 낮은 납골당 세 개가 정삼각형의 꼭짓점에 있는 것처럼 배열했다는 것이다. 각각의 납골당은 멀리서 볼 때 잘 눈에 띄지 않도록 낮게 설치했고, 납골당마다 납골함이 한 층씩 들어가게 구성하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모셔야 하는 윗대 조상들을 모두 세 납골당 중 위에 설치된 납골당으로 모셨다. 아래의 두 납골당에는 각각 왼편에 자기와 동대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기획하였고, 오른편은 자기 자손들이 들어갈 납골당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례Ⅳ-4] 상만리 문중 납골당의 배열 방식

진도 남쪽 임회면 상만리의 문중 납골당은 진도에서 제일 큰 규모인 525기가 들어갈 수 있는 납골당이다. 전주이씨 문중에서 만들고, 각각의 소문중에서 이곳으로 이장하도록 하여 운영된다. 각각의 칸에는 1부터 525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이곳을 안내해준 이강환(70대)은 족보에 따라 들어갈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개별 사문중에서 조상을 이장하여 뼈를 주러 오면 그 순번에 맞는 위치에 뼈를 납골한다. 그 순서는 향렬을 먼저 고려하고, 동향렬이라면 먼저 태어난 사람을 더 먼저 놓는다. 번호는 가장 위층 왼쪽에 1번 자리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 2번 자리가 있다. 그는 이곳에서 좌고비동(높은 사람은 왼쪽, 낮은 사람은 동쪽)의 질서가 지켜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납골당 내에서 조상을 모시기 위한 일정한 질서가 강조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존의 분묘를 대신하여 납골당이 들어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던 개별성과 집단성이라는 전통적인 규범이 납골당 내에서도 유지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규범이 지켜지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상의 장소를 재편한 집안에 대해서는 마을 안에서도 비판이 따르며, 문중이나 가족 내부의 논의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는 점은 이러한 규범의 준수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짐을 보여준다.

납골당이 보여준 위의 세 가지 장점은 기존의 선산에 모신 묘소를 계속해서 관리할 수 없게 된 현재 상황에서 조상들을 후대에서도 “영원히” 모실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졌다. 즉, 묘지를 돌볼 자손들이 타지로 나가고, 금전적 부담으로 별초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납골당은 조성비용이 많이 들지만 만들고 난 뒤에는 돌로 만들어서 손보지 않아도 오래 갈 것이며, 조상들을 모시는 소목의 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칠전리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칠전리 주민들 역시 2000년대 초반 마을에서 납골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고 기억했다. 많은 이들이 납골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칠전리 혹은 주변 마을에 만들어졌다는 납골당을 가보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납골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칠전리 주민들 또한 마을 주변의 납골당을 들르거나 이를 만든 이들의 조연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 갖는 장단점이 마을 주민은 물론 마을 밖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퍼졌다. 때로는 읍내에 사는 친구를 통해, 혹은 타지로 옮겨간 집안 식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묘지 정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이 마을로 유입된다. 마을로 유입된 이야기는 여성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마을회관을 통해서 다시 퍼지게 된다. 칠전리에서 남성 노인들은 마을 회관에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마을 안에서 마실을 다니거나, 문중행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납골당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는 2005년 이후 반전되었다. 국가의 정책적인 맥락에서 납골당은 흉물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고, 납골당에 대한 지방정부의 금전적 보조 역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유인책의 상실보다 중요한 것은 납골당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었다.

[사례Ⅳ-5] 납골당에 대한 안 좋은 소문

석재사 A 사례: “납골당 그 안에가 습이 차며는 그니까 그것이 아마 뱀 벌레가 생기지 않는가 그 애길 하시더라구요. 인자 그것은 잘못… 말하자며는 이스매(이음매) 같은 것을 잘못하니까 습은 조금씩 찬대요. 습은 안 찰 수가 없대요.”

석재사 B 사례: “그것이 왜 실패다 그러냐면 습기가 차. 실내가. 이게 날이 뭐하고 그라므는 습기 차서 물이 질질 흘러. 이게 안돼. (중략) 장마때 비바람 치고 하면, 습기 많아. 날씨가 우중추중하면. 습이 많잖아. 집에도 습이 막 유리창에 물이 질질 흐르잖아. 그런 거랑 똑같어.”

납골당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핵심에는 납골당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는 납골당을 만드는 재질이 돌이라는 점 때문에 생긴다.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로 인해 납골당 내부는 기본적으로 습기가 잘 차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과정에서 납골당 안에 모셔둔 뼈가 썩는 경우가 나타났다. 보통 썩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 뼈지만, 조건에 따라 뼈도 썩게 되며, 이 과정에서 냄새 혹은 벌레가 생긴다. 이는

추모를 위해 납골당을 찾은 자손들을 놀라게 하며, 이는 자연히 납골당의 영원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이는 모신 조상들의 상태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넘어, 돌로 된 납골당이 영원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묘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맥락에서, 2000년대 초반 칠전리 주민들에게 납골당은 그러한 해결책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칠전리 주변은 물론, 진도 전역에서 납골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시도는 급감했다. 납골당이라는 새로운 요소의 도입과 쇠퇴라는 5년 만의 극적인 변화는 기존의 방식이 갖는 영원성에 대한 의심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의 도입과 실험이라는 점이 이를 통해 잘 드러난다. 칠전리 주민들은 조상의 장소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납골당은 그러한 요소로 국가를 통해 제시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였다가 이제는 거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이 납골당 자체에 대한 거부로 끝난 것이 아니며, 납골당은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주제로 자리하고 있었다.

[사례Ⅳ-6] 다시 논의되는 납골당

“근데 그 뒤로 친척 작은 아부 죽었제, 또 ** 라고 그 사람도 죽어불었제. 그란께 (묘가) 주루루 늘어나고. 올해 묘를 7기 파갖고 거그다 합장했은께… 그란께 그 뒤로 (묘를 더) 하기가 어려운께 이번에 거그를 파갖고 납골당을 할까 어쩔까. 그 밑에로 파갖고 납골당을 할까. 다음에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라 그라테. (문중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의논을 하더라고.” (김춘예, 70대)

위 사례에서처럼, 기존에 납골당을 선택하지 않고 따로 선산을 정리한 C 사문중(표Ⅲ-2)에서는 최근 외지에 나간 젊은 자손들을 중심으로 다시 납골당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정리한 선산에 점차 묘를 쓸 곳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납골당 설치를 다시 고민하는 것이다. 납골당이 여전히 논의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장점 때문으로, 납골당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 속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대신할 대안적 방식을 찾기 전까지 납골당은 반복해서 논의되는 요소로 이미 자리 잡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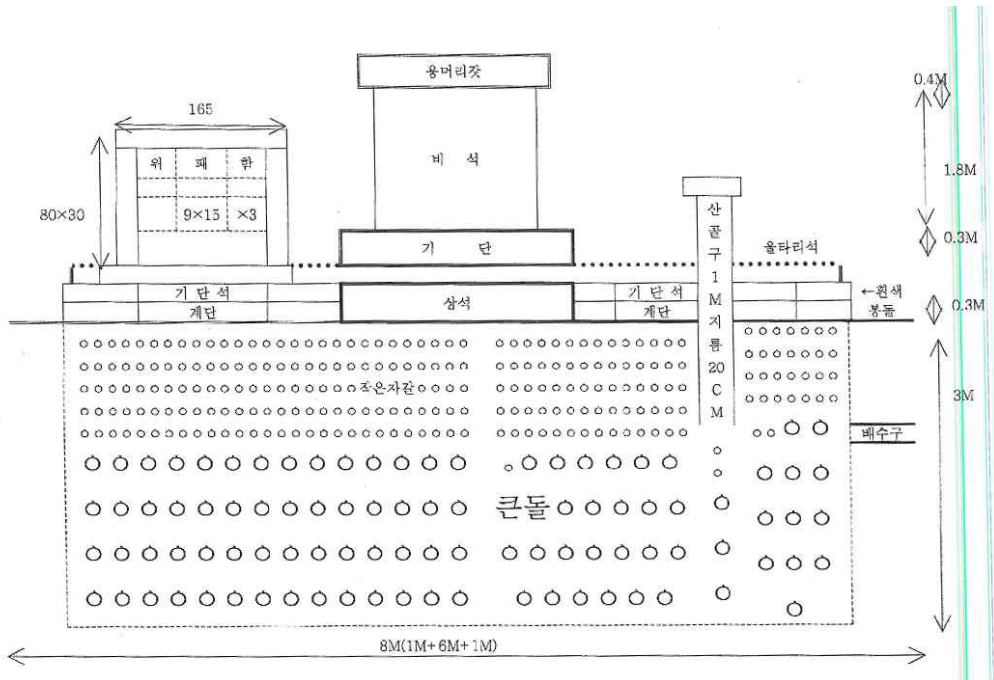
동시에 납골당이라는 기존의 형태는 다양한 변이형으로 이어지며 대안을 찾는 논의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다음의 [사례Ⅳ-7]은 칠전리의 사례는 아니지만, 칠전리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서 시도한 방식이다. 이들은 납골당의 방식을 변

형하여 산골장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사례Ⅳ-7] 납골당과 산골장의 결합 사례

이번 들린 곳은 학봉리(가명)로, 납골당과 산골장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조상 묘역을 조성하였다. 이는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들의 유골을 모셔 화장을 하고 이들의 유해는 그 위치에 따라 모래 속에 안치한다. 동시에 같은 공간에 약 30m의 깊이로 돌, 자갈 등을 넣어 둔 곳을 마련했다. 전면의 묘비 뒤로 구멍을 만들어 뒀는데, 이후에 죽은 후손들은 화장하여 그 가루를 이 구멍에 넣고 물을 뿌리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손들이 모두 한곳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위에 다시 모래를 뿌리고 물을 뿌려 땅자의 뼈가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기획하였다.

[그림Ⅳ-2] 광산임씨(가명) 납골시설 설계도



산골 방식은 기본적으로 뼈를 날려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상을 영원히 모시고자 하는 목적과 어긋나 조상의 장소를 정리할 때에는 기피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망자에게 별도의 공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소멸되는 묘지를 추구하는 국가 정책과 가장 일치하는 방식이다. 위 사례에서는 돌을 결합시키면서, 조상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방식으로 산골을 적용하며, 납골당이 갖는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선 납골당에서 나타나는 뼈가 썩는 문제는 납골함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묻고 이를 열어보지 않도록 하면 해결된다. 즉, 뼈가 썩고 냄새나 벌레가 나오더라도 묻고 파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선조들은 이렇게 모신 뒤, 후손들의 경우 산골을 하되, 뼈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화장 후의 유해를 보존할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 흘러들어 간 가루가 뒤섞이지 않고 층층이 쌓이도록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망자의 유해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구분을 할 수 있게 고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산골은 하되, 조상을 모신 곳의 영속성은 확보한 새로운 조합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납골당 방식이 계속 변형되며, 새로운 시도로 연결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납골당의 성쇠 과정은 현재 나타나는 조상의 장소가 재편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가족·문중 납골당을 도입하고 이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전통적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새로운 변화는 바로 이러한 질서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요소는 비판을 통해 소멸되기 보다는 하나의 선택지로 계속 남아있다. 이는 차후에 새로운 상황에 따라 변형되거나 재도입될 수 있는 논의 요소로 포함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바로 마을 안에서의 소문이다. 칠전리 주민들은 칠전리는 물론 진도 내 각지에서 나타나는 묘지를 정리하는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납골당 역시 2000년대 초반 호의적인 소문을 타고 많은 관심을 받았고, 지금은 비판적인 방향으로 관심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소문은 문중 구성원의 모임에서, 혹은 마을 내 모임을 통해 퍼지고 논의된다. 여기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어떤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혹은 좋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정보를 통해 칠전리의 행위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선산에 닥쳐올 미래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었다.

2) 상이한 관점의 잠정적 타협

최근 칠전리에서 새로운 방식의 논의·도입·평가는 납골당 뿐만 아니라 평지장, 수목장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일련의 변화에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이 교차하고 있었고, 교차하는 목적의 잠정적인 타협 속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소절에서는 납골당 사례에서 암시

된 이러한 타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현재 나타나는 상충적인 요소는 크게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부의 목적과 전통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의 교차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 내에서 변화와 지속의 교차이다.

우선 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방식을 주민들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납골당 역시 2000년대 이후 진도군은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전적 지원을 통해 그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바 있으며, 2011년 진도군은 평지장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조건을 갖춘 세 곳에 금전적 보조를 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을 지원하는 정부와 그러한 방식을 수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제 강점기 이래 정부 정책에서 묘지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임야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무분별하게 흩어진 묘지는 개발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었다. 애초에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묘지규칙(1912)」은 표면적으로는 망자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토지를 개발하려던 일본의 사업이 묘지 때문에 방해받던 현실적인 상황과 직결(박태호 2006: 183)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특히 1981년 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과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묘지에 대한 많은 기사에서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이 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한국논단 1996) 같은 표현이 꾸준히 이어졌던 문제의식과도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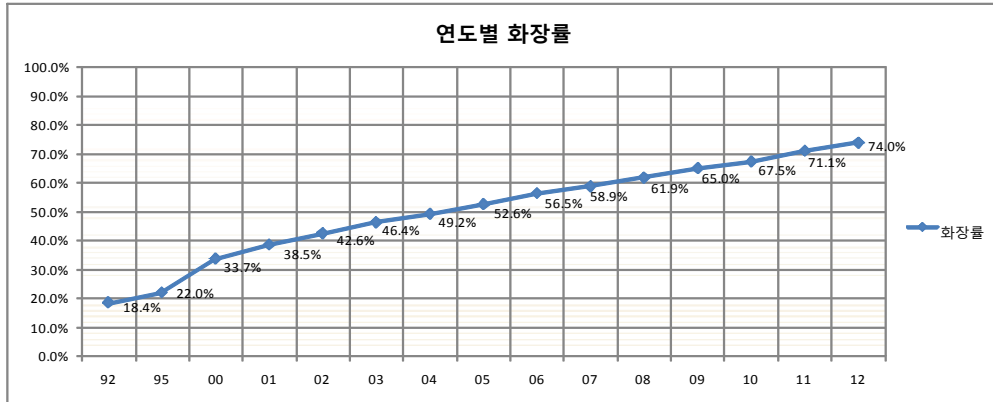
화장의 강조는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법률적으로 처음 화장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912년 「묘지규칙」 이후의 일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화장은 주로 일본 거류민단의 정착과 함께 시작된 것(김시덕 2006: 121~124)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한국인의 화장은 해방 이후 1961년 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최초로 기재되고, 1981년 개정된 동 법률에서 사설 납골당의 설치와 폐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한다. 그러나 구체적 규정은 2001년 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ibid.: 125).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의 정비에 화장을 장려하고자 한 정부의 의도와도 직결된다. 납골당의 증설은 당시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했다. 화장한다고 해도 유해를 보존하는 특징 때문에, 화장 후

남은 신체의 부분을 보관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납골당을 지어야 하지만, 납골당의 경우 이전의 묘지에 비해서는 그것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칠전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앞 장에서 밝힌 것처럼 조상 묘의 영속적 유지였다. 마을 주변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선산을 지켜주던 산지기가 없어진 현실에서, 현재 조상을 모신 묘는 이미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앞으로 이를 이어받을 자식·손자 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이처럼 납골당을 만들었던 주민들의 목적은 현재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여 조상의 장소가 더욱 오래 지속되는 방식을 찾고 있던 것이다.

현재의 급격한 화장률의 증가와 진도 내 납골시설의 2000년 이후의 급증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의도가 현실적 상황에서 타협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화장률은 단기간에 증가하지 않는다. 1954년에 3.6%에 그쳤던 화장률은 1991년에서야 17.8%로, 15%조차도 증가하지 못했다(송현동 2003: 289).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1990년대 초까지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던 것은 조상의 선산을 유지하여 전통적 질서를 끌어갈 수 있던 여력이 촌락 사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일제강점기 초창기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던 공동묘지 정책 때문에 현재 공동지에 마을에서 죽은 모든 망자를 묻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들은 밤에 몰래 조상의 뼈만 추려 이를 다시 선산으로 옮겨 모시곤 했다고 밝히며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지금 주민들은 당시와 달리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조상의 장소가 앞으로 더는 지속될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는 [표Ⅳ-2]에서처럼 최근 급증하는 화장률의 증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의 수용과 함께, 조상의 장소를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 것이다.

[표Ⅳ-2] 전국 화장률 증가 추세 (1992~2012년 보건복지부 통계)



납골당의 사례에 한정할 때, 2000년대 초기 시점에서 가족·문중 납골당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역 주민에게도 좋은 타협점이었지만, 2000년대 후기 시점에서 납골당은 양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타협점이 되었다. 이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국가 역시 납골당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를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연관된다. 납골당은 기본적으로 돌로 만들기 때문에 건축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며, 기존의 한국의 묘와 달리 하얀 대리석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 눈에 잘 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납골당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원했던 단기간에 사라지는 대상이 되기보다는 문중에서 원하는 영원까지는 아니어도 장기간 남아있는 시설물이 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이후 지방정부가 납골당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점이나, 2011년에는 잔디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수목장이나 평지장 같은 자연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나타난다.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교차는 새로 도입된 수목장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진도군 산림조합에서 개관한 보배숲 추모공원이 칠천리 주민들에게 공동지로 여겨지는 것은 칠천리 주민들의 시선이 국가와 다름을 잘 보여준다. 국가 정책과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 상충되는 지점은 수목장의 표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이하 장개혁)는 안정행정부의 재정지원과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자연장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장묘문화개혁의 목표로 자연장의 확산과 정착을 꼽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표어로 “자연에서 와서, 자연 속에서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From Nature, Live In Nature, Returning to Nature)”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장지소개서를 통해 자연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례Ⅳ-9] 자연장의 정의

‘자연장’이란? 고인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火葬)한 다음 유골을 나무, 꽃,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광중(壙中)을 파서 유골가루(骨粉)를 그대로 흙과 섞어 묻거나, 흙속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용기(생분해성용기)에 담아 묻기도 하는데, 각 자연장지마다 묻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박태호 2014: 7)

여기서는 기존의 납골당까지도 없애고 모든 죽은 몸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권한다. 동시에 이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사라지는 묘이다. 따라서 묘표도 되도록 작은 것을 설치하도록 권한다. 이후 묘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는 작은 표석만 없애면 무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땅자는 잊혀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배숲 추모공원의 계획도 비슷하다. 현재 보배숲 추모공원에서는 수목장을 하되 기본적으로 자연장에 준해서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모공원의 수목장은 30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1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최장 60년 동안 추모공원 내의 나무를 묘소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이후의 계획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리 연한이 넘어간 곳의 묘표를 없애고 그대로 나무가 자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1년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방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법은 17조⁵⁵⁾를 통해 분묘의 설치 기간을 한정하는데, 설치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연장을 신청한 경우 최대 3회 연장하도록 하여 최대 60년 간만 분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

55)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158호, 2000.1.12. , 전부개정]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였다. 이러한 무덤의 한시성은 이곳 추모공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납골당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의 표현은 위의 장개협에서 주장하는 말과 유사하다. 이들은 “사람이 흙에서 났으니, 죽으면 흙에다 파고 묻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 여기서는 납골당 같은 콘크리트의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땅에 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거나, 봉분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강조하는 점은 영원성이다. 흙에 묻어 묘를 돌보는 것도 좋으며, 설령 자손들이 나중에 벌초하지 못한다 해도 이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만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묘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비석만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논의는 단순히 정부 정책과 주민들의 의견으로 양분되지는 않는다. 마을 주민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비석 같은 것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거나, 화장하고 봉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반드시 비석을 세우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망자를 화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타지에 나간 자손들까지 의논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상의 묘를 영원히 모셔야 한다는 축과 더 일시적인 묘소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축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주장의 바탕에는 후대의 자손들이 벌초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판받을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가능한 한 현재의 질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변화는 묘소의 단기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도에 찬성하는 주민과, 조상이 모셔진 공간의 영원한 유지를 바라는 주민들 사이의 타협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조상의 묘를 모으면서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은 또 다른 타협을 내포한다. 이는 전통성과 영원성의 타협이다. 칠전리 주민들의 고민은 넓은 지역에 묘를 산재시켰던 방식과 기존의 큰 봉분을 만드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는 조상의 장소를 얼마나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납골당은 이 점에서 한때 주민들의 각광을 받기도 했고, 이후에는 기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단순히 편의를 위한 변화의 추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이는 조상의 장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상의 장소를 재편할 경우 전통적 질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새로 만든 조상의 장소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이는 “조상에 대한 성의가 있다”는 평가와 “별 묘한 것을 다 한다”는 것으로 구분된다. 보통 후자는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질 경우 이를 지적하면서 나오는 표현이다. 납골당 방식과 산골장 방식의 결합을 보여준 [사례Ⅳ-7]에 대해 칠전리 주민들은 한편에서는 그들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였다.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난 전통적 질서 중 강조되는 것은 개별성과 집단성을 담보하는 규칙이다. 칠전리 주민들이 [사례Ⅳ-7]에 대해 불편해하는 지점은 각각 이와 관련된다. 우선 개별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광산임씨의 새로 만든 문중 납골당은 한 곳에 산골을 하므로 차례차례 쌓아간다고 해도 개개인의 골분이 뒤섞일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망자의 개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즉 묘를 만들더라도 부부가 아닌 이상 합장을 하지 않고, 합장해도 부부의 뼈는 따로 구분하여 묻으며, 그 개인이 누군지를 명시하는 전통적 질서를 깨트릴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다른 한 문제는 집단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조상의 장소에서는 개별성이 강조되는 개별 묘를 중심으로 그 사이의 계보적 질서를 구현하면서 해당 장소의 집단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사례Ⅳ-7]의 경우 한 공간에 들어갈 망자들 사이에 위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집안의 산골 방식을 따를 경우 앞으로 죽을 후손들의 골분 축적 순서는 그들이 죽는 순서에 따라 먼저 죽은 사람이 아래로, 늦게 죽은 사람이 위로 쌓이는 구성이 된다. 그러나 소목의 법은 집안 계보에 따라 왼쪽 위에 손윗사람을, 우측 아래에 손아랫사람을 둘 것을 규정한다. 하지만 이 묘역에서는 이러한 규범이 깨질 위험이 큰 것이다.

이처럼 영속성을 추구하여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개별성과 집단성 모두를 담보해야 하는 전통적인 질서의 핵심을 깨트린다면 이는 칭찬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조상의 장소를 이전처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영속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전통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산골장을 결합한 앞의 사례와 달리 칠전리 주민들은 평지장에 대해서는 큰 호감을 보였다. 이들은 조상의 뼈를 수습하여 화장하고 이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미 뼈만 남은 조상의 몸이지만, 살이 썩은 상태에서 뼈만 화장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평지장처럼 봉분을 만들지 않는다 하여도 이미 남은 뼈만 묻기 때문에 짐승이 이를 파헤칠 걱

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지장은 더 좁은 공간에 모시긴 해도, 망자의 개별성이 유지되고 그 사이의 계보적 질서에 따라 배치하기에 전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칠전리 주민이나 진도에서 만난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선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영속적으로 묘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벌초가 편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조상을 모시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개별성과 집단성의 유지로 대표되는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는 점이었다.

[사례Ⅳ-10] 다양한 방식의 고안

“나는 생각에 이게 선산만 어느 정도 되어있는 집안인거 같으믄, 거그다 차라리 수목장을 해갖고 선조부터 그대로 뺄 돌려 한다던지, 제일 오야지(큰 어른인) 한암씨(할아버지)는 나무 하나 심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내려오믄 차라리 그놈이 좋을 것 같더만. (중략) 이녁(자기) 선산이나 뭐나 그런데 있으믄 선조부터 쭉 심어갖고 제일 큰 웃어른 하나 인자 선조는 나무를 하나를 심고 밑에다 한 분만 두고, 밑으로 벌어지믄서 여러 자연히 그 여러인께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쭉 심어서 이게 이케하믄...” (박수호, 70대)

이강환(70대)은 조상들을 모두 화장을 하고 이들을 한 곳으로 모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의 문중에도 납골당을 만들었지만 납골당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묘를 1:30의 비율로 축소하여 기존의 묘지 하나의 공간에 여러 조상을 한 번에 모실 생각을 하고 있었다. 봉분은 만들지 않고, 좁은 공간에 여러 조상을 모셔서 벌초도 쉽고, 찾기도 쉽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의 사례는 칠전리 내의 사례이며 아래 사례는 칠전리 외의 진도 사람의 계획이다. 이처럼 새로운 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 조상의 장소가 상실한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이 제안한 방식이 개별성과 집단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리해보면 현재 조상의 장소에 나타나는 변화는 두 차원의 대립이 교차하며 나타나고 있다. 한 차원은 조상의 장소를 한시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정부 정책과 이를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의도 사이의 타협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차원은 영속성과 전통성의 타협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 주민들이 조상의 장

소를 재편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어디까지나 칠전리 주민들은 혈연적 집단성의 핵심인 조상의 장소에서 영속성에 문제가 생겼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안으로 이들이 접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대안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전통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상의 장소가 강조하는 집단성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이는 칠전리 주민들이 묘지정리 과정에서 강조하는 의도와도 연관되기에 중요하다.

2. 혈연과 지연의 재확인

이 절에서는 묘지정리를 통해 칠전리 주변으로 재편된 조상의 장소가 어떤 의미로 이어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흩어진 조상의 묘를 한곳에 모으는 것은 단순히 조상을 잘 모시고, 전통적 질서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묘를 새로운 장소에 모으는 작업은 묘역의 집단성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이 장에서는 그 의미를 혈연적 차원과 지연적 차원의 두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지 조성”으로서의 묘지정리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여 마을 주변으로 묘지를 모으는 것은 조상을 영원히 모신다는 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 우선 흩어진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은 전통성의 핵심인 개별성과 집단성 중에서 후자를 보다 강조하게 된다. 명당을 중심으로 묘지가 흩어졌을 때, 묘지의 공간적 배치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개별성을 강조하게 된다. 초창기 선산을 제외한 칠전리 밖의 선산은 대부분 부부 단위이며, 자식이 있을 경우라도 거리를 두고 묘를 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별성을 넘어 계보적 질서를 보여주고 혈연적 집단성을 보여주는 것이 별초성묘이다. 이와 달리,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을 때에는 개별 묘 간의 질서를 한 장소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집단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집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묘지 정리가 형태상 묘를 모으는다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실천은 해당 사문중 혹은 가족 간 협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혈연적 집단성의 의미를 강화한다. 10기 이상의 묘소를 옮기는 대규모 이장(移葬) 과정은 기본적으로 많은 “정성”을 요구한다. 여기서 정성은 금전적인 부분과 구성원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봉사를 포괄한다. 우선 이장에 앞서 개별 가족 혹은 문중은 이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한다. 일단 문중원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도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의견이 통일된 이후에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C 사문중의 사례를 통해 이장 과정을 살펴보자. 이 문중에서 이장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문중 일을 이끌던 두 어른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터였다. 이장 방식을 놓고 납골당을 만들 것인가, 봉분을 만들되 좁은 공간을 둘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진행했던 두 어른의 타협으로 봉분을 작게 만드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 C 사문중은 이렇게 의견을 결정하고 난 이후의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었다. 이는 문중재산이 이장을 진행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기존의 문중 선산 중 적당한 곳으로 장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관을 부르지는 않았다. 당시 천만 원 이상의 돈을 소모하였는데, 대부분 대문중인 C 사문중과 내부의 사문중들이 돈을 부담하여 이장을 할 수 있었다. 2004년 이장 이후, 최근에는 당시 누락된 묘를 추가로 이장하였다. 이 추가 이장 과정에서도 C 사문중에서는 포크레인 비용을 제공하고, 그 안에 속한 소문중에서 석관과 비석 값을 제공하여 문중 구성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였다.

이와 달리 문중 구성원들이 함께 돈을 부담하여 새로 문중묘소를 조성하거나 납골당을 만드는 경우,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많아 이를 포기하고 가족묘소나 가족납골당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애초에 이장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설령 문중 내에서 이를 부담할 능력이 되더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획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금전적 부담은 이장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문중 구성원의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격적인 이장 과정에서는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문중 구성원 개인들의 많은 참여를 요구한다. 보통 이장은 ① 이장 계획 설립 및 기획, ② 이장 장소선정 및 행정절차, ③ 석재사 계약 및 시설물 건설, ④ 장의사 및 인부 고용과 이장, ⑤ 새로 모신 선영에 대한 제사 및 마을 잔치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과정에는 비용은 물론 문중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필수적이다. 위의 C 사문중의 사례

에서 보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문중 어른 외에 외지에 살던 후손들도 이장전 후로 칠전리에 와서 일을 거들었고, 마을에 거주하던 이들은 외지의 후손들과 인부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조상의 장소를 정리하는 작업은 금전적·육체적 봉사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결속하는 것은 죽은 조상만이 아니다. 칠전리 밖으로 이주하여 흩어진 자손들 역시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뭉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큰 노력을 들이는 이유는 조상의 묘를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흩어진 조상을 모으는 것과 함께 흩어진 자손들을 모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사례Ⅳ-11] 납골당을 만드는 이유

박연호(70대)는 납골당을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납골당을 만들어서 조상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자손들이 못해도 1년에 1회 정도는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 묘가 퍼져있을 경우 자손들은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납골당이 있으면 자손들이 이곳으로 모두 모일 수 있고, 서로 떨어져서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묘를 모으는 동기는 단순히 조상의 묘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계획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례Ⅳ-11]처럼,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선조들의 묘를 보다 수월하게 기억하기 위함과 함께, 지금은 칠전리를 떠나 각지로 흩어진 자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었다. 특히 이 지점에서 칠전리 주민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묘지 정리에 대한 의무감이었다.

[사례Ⅳ-14] 묘지 정리에 대한 의무감

“나한텐 아직 숙제가 하나 있어. 이거. 묘를 한 곳으로 모으려고. 내 고조 할아버지는 함장해 계시다고. 한 곳에. 근데 증조할머니는 딴 곳에 계셔. 외롭지 않겠어? 그니까 이분들을 합쳐야지. 모아야지. 그러면 나는 화장해도 상관없어. 화장을 해서 아래다가 작게 묻던지, 아니면 확 갖다 (그 아래다) 뿌려볼던지. 근데 이걸 내 자식이나 손자 대 가면 할 수 있겠어? (중략) 나만 해도 조상에 대한 느낌, 그런게 우리 부모님 때랑은 다르단 말야. 손자대로 가면 어찌 될까? 알 수 없어. 그니까 묘를 정리하고. 자 모여. 해서 한 번씩 오도록 하는 거지. 모이도록 하는 거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박성진, 50)

특히 이러한 의무감은 두 가지 측면에 걸쳐있다. 한 가지는 타지에 있는 후손들이 보다 수월하게 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조상의 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함이다. 다른 한 가지는 흩어진 후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사례Ⅳ-11]과 [사례Ⅳ-12]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연구자는 칠전리 출신으로 진도읍 주변에 사는 이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들 역시 공통적으로 점차 선산을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현실 속에서 묘지를 정리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자기 대에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타지로 나간 자식들이 별초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상의 묘가 어디인지조차 잊을까 걱정하고 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한 마을에 모여 살았던 이전과 달리, 서로 사는 곳이 흩어진 상황에서 친족이 뿔뿔이 흩어질 위험을 염려하고 있었다. 물론 이는 모든 개인이 동일하지 않으며, 그들의 문중 내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문중의 장손일수록 그 부담감 역시 크게 느끼고 있었고, [사례Ⅳ-12]처럼 지금 상황에서 장손으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강조하였다.

이런 의미의 연장에서 조상의 장소를 정리하는 것은 타지로 나간 친족 구성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공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된다. 즉, 조상의 장소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은 흩어진 친족 구성원 간의 돈독한 협력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나아가 새로 만들어진 조상의 장소는 흩어진 친족이 모이는 시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사례Ⅳ-13] 친족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조상의 묘소

“지금은 흙으로 시(세) 삼만 떠다가 딱 뿔(묘)을 요로케 묻드만. (중략) 가서 본께 밭 하나에다 그 뿔을 파다가... 성제(형제) 간 뿔을 파다가 뿔이라고 안 뿔고 요 주전자 식이로 요케요케해서 요만치 묻어. 여 쪼까냥게(작게) 요렇게. 그래갖고 여그다 이름 성명만 딱 앞에다 써놔드만. (중략) 거 좋은 일이더라? 밭 하나에다 집안 뿔 다 쓰고. 별초하든 딱 저그 집안 사람들이 나와서 별초 딱 하고, 술에 밥에 먹고 가고. 서울서도 오고 읍에서도 오고. 인제 형제간이 여그저그 산께. 그란께 밭 하나에다 뿔을 딱 쓰고. 그런께 우리도 요 우게 선산 있는께 우리도 그럴까(하고).”
(문옥순, 80대)

후손들의 협력과 결속은 조상의 장소를 모으는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례Ⅳ-13]은 조상의 장소를 한 곳으로 정리한 것을 넘어, 그 이후로도 집안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칠전리를 떠나 진도읍

으로, 멀리는 진도 밖 대도시로 떠났던 가까운 친족이 벌초를 위해 하루를 내서 모이는 것이다. 이들은 함께 벌초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술과 음식을 먹으며 문중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C 사문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역시 흩어진 자손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 이들은 선산을 정리한 2004년 이후 음력 7월 말이면 선산에 모든 일가친척이 모여 묘제를 함께 올린다. 음력 7월 말은 원래 칠전리 주민들이 타지로 뺏어난 조상의 묘를 둘러보던 벌초성묘가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벌초성묘의 새로운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칠전리 주민이 타지로 나간 조상의 묘를 살피던 것과 달리, 타지로 나간 자손들이 칠전리로 모인 조상의 묘를 살피러 돌아오는 양상으로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때 조상의 장소는 휴가를 맞은 자손들이 한 시기에 한 장소로 모여 조상을 기억하고, 문중의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칠전리에 재편된 조상의 장소는 단순히 조상들을 묻어둔 곳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된다. 재편을 통해 일련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흩어진 친족과 가족들이 협력하는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동시에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한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배경에서 조상의 장소를 모으는 활동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사례Ⅳ-14] 진도 의신면의 한 문중 선산 비문

聖地造成文(성지조성문)

이 세상 삼라만상이 뿌리 없이 생긴 것이 있으랴!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선조님의 은덕을 잊고 살아 왔으니 후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선조님을 섬기고 유해를 잘 보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사명으로 여겨 (중략) 묘소가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먼 훗날 관리소홀로 소실될 우려가 있어 (중략) 이장하여 세대 순으로 합장하오니 선조님은 부디 후손들을 굽어 살피시어 만사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극락왕생 하시어 편히 영면 하시옵소서! (중략) 이제 우리제족은 뿌리를 소중히 섬기며 이 성지를 잘 가꾸면서 송조정신 실행은 물론 제족끼리 화목하고 영원히 번창하기만을 바라며 뜻을 모아 이곳에 성지를 조성하는 바이다.

위의 사례는 칠전리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진도군 의신면의 한 문중 선산의 묘비에 새겨진 내용이다. 이들은 재편된 조상의 장소를 문중의 “성지”라 부른다.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행위는 칠전리 안팎으로 흩어진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

아 한 장소에 혈연적 집단성을 구현하는 행위인 동시에, 칠전리를 떠나 흩어진 친족 집단을 결속시키며 지금은 생활공간이 흩어져 멀리 떨어져 사는 자손들 사이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공간적 배경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조상의 장소는 흩어진 후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혈연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고향에 닿는 “마지막 고리”

흩어진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혈연적 측면에서 친족의 재결합을 의미한다면, 그 장소가 왜 칠전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우선 칠전리 주민들이 현재 느끼는 위기감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타지로 나간 사람들이 더 이상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사례Ⅳ-15] 줄어드는 구정 귀향객

박영호(70대): “이전이든 구정엔 사람이 겁나 겁나(매우 많았어). 저 농협 창고 앞애가 차가 그냥... 겁났어. 거만 그랬간? 차가 골목골목 다 들어찼제. (중략) 근데 지금은 아녀.”

연구자: “지금도 농협 창고 앞에 보니 차가 많던데요?”

박영호: “저거든 텅 빈 거제. 10년 전만 해도 짹 들어찼어. 근데 앞으로 더 줄거여. 아 사람이 와야지, 그러잖겠더라고.”

[사례Ⅳ-16] 거주자가 줄어드는 칠전리

박상호(80대)는 칠전리가 이전과 달리 밀양 박씨 마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전에는 밀양박씨가 아니면 들어와 살기 어려웠고, 마을 대부분 사람이 밀양박씨였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타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집도 이전에는 300호가 넘었던 마을이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가 입버릇처럼 반복했던 “마을에 빈 집이 짹 찼어”라는 말과 칠전리가 “완전히 폐촌이 되어 버렸어”라는 말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이는 [사례Ⅳ-15]처럼 명절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서 잘 드러난다. 칠전리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구정이나 추석 때 고향을 찾는 향우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명절이 되면 타지로 나갔던 향우들이 가족을 데리고 칠전리로 돌아오기에, 길목마다 차가 가득 차고 집집마다 북적이던 기억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명절 풍경과 달리 지금은

해가 갈수록 칠전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슷한 양상은 윗놀이⁵⁶⁾에서도 나타난다. 칠전리에서는 명절이 되면 마을 회관에 청년들이 모여 윗놀이를 한다. 강정원(2009)은 경기도의 한 마을의 세시를 검토하며 윗놀이가 구정의 대표적인 놀이 중 하나로 1970년대 이후 마을 출향인과의 화합을 위한 잔치로 변화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쇠퇴하여 2000년대에는 사라진 양상을 기술한 바 있다. 칠전리의 윗놀이는 명절 외에도 동회(마을 전체 회의)나 장례식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뤄지는 놀이로, 공식적 자리의 윗놀이는 보통 남자들이 참여한다. 칠전리의 윗놀이는 여전히 마을 단위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놀이의 규모와 지속 시간의 문제이다. 이전에는 윗놀이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 누군가 마을 회관 앞에서 덕석을 깔고 놀면서 자연히 사람이 모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람이 많이 줄면서 청년회에서 나서서 윗놀이 판을 만드는 형편이고, 모이는 사람도 많이 줄어 밤새 하던 윗놀이가 이제는 자정이 조금 넘으면 끝난다는 것이다. 이는 칠전리로 돌아오는 향우들의 수가 줄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칠전리의 장래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사례Ⅳ-16]의 맥락과도 연결된다. 이 사례는 80대 노인이 이전 칠전리에 대해 갖고 있던 인상과 현재를 비교한 것이다. 현재 노인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변화는 과거 밀양박씨 집성촌이던 칠전리에 타성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여전히 밀양박씨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임에도 “절반 이상이

56) 칠전리에서 하는 윗놀이는 바닥에 “덕석(명석)”을 깔고 그 위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의 작은 윗을 덕석 위에 던지는 방식으로 윗놀이를 한다. 윗을 던질 때에는 반드시 양철 “종지기(종지)” 안에 윗을 넣어 손바닥 위에 종지기를 얹은 후 이를 흔들어서 던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때 쓰는 윗을 “종지기 윗”이라고도 부른다. 놀이는 항상 두 명이 팀을 이뤄서 하며, 한 명이 중간에서 심판을 본다. 각 팀은 덕석 양 끝에서 놀이를 하며,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놀이 내내 쪼그려 앉는다. 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구경을 한다. 윗놀이는 재미를 위해 참여한 사람이 돈을 거는데, 돈은 양 팀의 팀원이 모아서 심판에게 맡긴다. 이때 구경을 하는 사람은 자기 돈을 함께 걸 수 있는데 이를 “찔림”이라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말을 움직이는 “말끔”을 놓는 과정에서 “훈수”를 두는데, “찔림”을 한 사람의 훈수는 더 큰 무게를 갖는다. 놀이에서 윗을 던지는 사람이 훈수를 듣지 않을 경우 “선수는 코치 말을 들어야제” 같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 훈수 두는 사람 말을 들을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윗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있으며, 심판은 그 결정에 따라 말을 움직인다. 한 경기는 보통 20~40분 가량의 시간이 걸리며, 이 윗놀이는 윗을 놓는 4명의 사람과 1명의 심판만의 놀이가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놀이가 된다. 연구자가 현장에 있을 때 윗놀이가 벌어지면 주변에는 15~20명가량의 주민들이 몰려서 놀고는 했다. 보통 이러한 윗놀이 판은 남성들이 벌이는 경우가 많고, 이때 여성들은 끼지 않는다. 다만, 여성들끼리 모이는 곳에서 윗놀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윗놀이는 남성들만의 놀이는 아니다.

타성”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다른 노인들의 인터뷰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다. 또한 인구가 너무 줄어 “폐촌이 되어 버렸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앞에 지정한 명절의 상황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마을에 거주하는 칠전박씨들은 자손들이 타지로 떠난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타성이 채워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홀로 남은 부모가 살다 죽은 뒤, 자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 현재의 양상에 대해서 사람 없는 마을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칠전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자라 타지로 나간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던 부모가 돌아가신 뒤 망자를 어디에 모시는가 하는 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것은 죽은 부모를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 모시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사례Ⅳ-17] 타지로 모신 망자에 대한 두 노인의 대화

김나심: “가네 어매(어머니)는 꼬실라서(화장해서) 읍내 어디다 모셨다는 구만?”

문옥순: “아부(아버지-여기선 남편의 의미)가 여겼는데는 것다 안 묻고 왜 글로 모셨디야?”

김나심: “몰르지. 다 아그들(자식들)이 알아서 하니.”

문옥순: “어째 뒷각금(뒷산)으로 안가서, 이상타...”

(문옥순, 80대; 김나심, 80대)

위 대화에서처럼 70대 이상의 칠전리에 살던 노인이 죽었을 때, 마을에 묻지 않고 타지에 묻게 되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선산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으나, 마을 주변에 선산이 있는 경우라면 그곳에 묻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례Ⅳ-18]의 경우 부부 중 남편이 먼저 죽어 칠전리 주변에 묻혔으나, 부인은 다른 곳에 묻혔던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두 80대 노인은 상당한 불편함을 표시했다.

때로는 타지에 나간 자식들이 마을 주변에 묻힌 부모의 묘를 파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문중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사례Ⅳ-18] 문중원의 독단적 이장에 대한 분노

(상황: C 사문중 묘소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대화 중)

“거그는 저기 여그가 묘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와서 파가지고 가서 모두 화장시켜갖고 바람에다 날려 부렸어. 아니 그 망할 놈들이... 와서 그 자

식 놔들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박문호, 70대)

위 사례의 경우 타지에 사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의 산소를 파고, 이를 화장하여 그 유해를 산골한 경우라 그 분노는 심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인 것을 넘어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거부감과 주변에 남아 있던 묘소를 타지로 이장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의미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례Ⅳ-19] 타지로 나가는 묘에 대한 평가

(상황: 노인회관에서 조도 출신 보건소 직원과 할머니들의 대화에서 이전에 계시던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화장하여 타지에 모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었다.)

보건소 직원: “아니 묘가 마을에 있어야 찾아 댕기기도 하고 그라제. 그래야 고향도 다닐거 아녀. 딴 데다 그렇게 가든 아주 고향에 마지막 고리를 꿰겠다는거 아녀? 그럼 완전 남남 되어버리는거 아녀.”

하순자: “그렇게 말여. (중략) 아배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묻어야지 요샌 밖에다 묘를 쓴다는구만.”

(보건소 직원, 30대; 하순자, 70대)

이러한 대화는 칠전리 주변을 벗어나 타지로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이장되는 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혈연적 의미 외에도 지연적인 의미가 함께 강조됨을 보여준다. 묘를 칠전리 주변에 둔다는 것은 타지로 나간 후손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칠전리로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읽히는 것이다. 즉, 부모의 죽은 몸이 칠전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칠전리에 들러 것이며, 이를 통해 타지에 나간 사람들과 칠전리에 남은 사람들이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중 시제가 있어도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가까운 혈연인 부모의 묘까지 타지로 옮기게 되면 더 이상 마을에 들릴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다. 결국 돌아가신 부모를 화장하여 도시의 납골당에 모시는 행위는 “고향과의 마지막 고리”를 꿰겠다는 과격한 선언으로 읽히는 것이다.

이는 칠전리 주변으로 새롭게 조상의 장소로 묘소를 정리한 집안에 대해 “조상에 대한 성의가 있다”는 칭찬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지점을 제공한다. 이는 조상을 한 곳에 모신 “성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인 동시에, 칠전리로 계

속 돌아온다는 선언이며, 약해져가는 지연(地緣)의 연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인 것이다. 특히 고령화된 주민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마을이 계속 공동화되고, 구성원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극복의 바탕이 이 지점에서 나타난다.

재구성된 선산은 부모님이 살던 집과 함께 타지에 나간 자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마을에 남겨둔 “고리”가 된다. 현재 칠전리 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박태준(50대)은 최근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그의 형제는 모두 은퇴 후 칠전리로 귀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칠전리에 있는 집들을 어떻게 개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는 칠전리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이곳에 남아있는 조상의 선산을 꼽았다. 고향 사람들과 함께 선산을 지키며 말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선산은, 마을에 팔지 않고 남겨 둔 부모님의 집처럼, 타지에 나간 이들에게 칠전리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칠전리 주민들이 말하는 “조상에 대한 성의가 있다”는 칭찬이 단순히 집안의 결속에 대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조상의 장소를 계속 유지하고,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부러움의 표현인 동시에, 흩어진 칠전리 사람들이 잊지 않고 고향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환영이기도 하다.

묘를 정리하는 것은 곧 친족 공동체의 일인 동시에 마을 전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준다. 특히 이는 규모가 큰 동족마을인 칠전리의 특징 때문에 더욱 강조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기서 조상의 장소는 혈연적 집단성의 표현인 동시에, 과거 조상들이 살아온 고향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 그렇기에 새로 만들어진 조상의 장소는 타지에 나간 자손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고리를 남겨 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칠전리에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행위의 의미가 혈연적 측면과 지연적 측면에서 일치하게 된다. 여기서 재편된 망자의 공간은 개별 사문 중의 구심점이자 혈연의 중심점이 되는 문중의 “성지”인 동시에, 고향 마을은 이러한 문중의 성지를 품어 안은 공간적 표지가 된다. 혈연과 지연의 맥락이 일치된 상황에서,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행위는 혈연적 집단성을 확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고향이라는 지연 공동체를 보장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한경구와 박경립(1998: 792~793)은 묘지에 고향으로서의 의미 부여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시도가 기존의 묘지 질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관점에서는 일시적일 수 있기에 한계가 크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다. 현재 칠전리에서 나타나는 양상 속에서 마을 주변으로 모인 묘지는

혈연적 연계만이 아니라 고향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의미 역시 함께 나타난다. 여기서 조상의 묘지가 갖는 혈연적 집단성은 고향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며, 이는 동성촌락에서 지연적 의미가 혈연적 의미를 내포함을 보여준다.

V 결론

이 논문은 진도의 한 촌락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망자의 공간에서 현재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주목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조상을 대하는 의례와 조상을 모시는 장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동시에, 기존의 연구에서 촌락은 전통적인 공간으로 도시는 현대적 공간으로 구분하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묘제의 변화와 망자의 공간 변화의 중심으로 자주 언급되고 다뤄져 온 도시가 아니라 많은 도시민의 고향이 있는 촌락 마을에 초점을 두어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산 사람은 칠전리 밖으로 흩어지고, 죽은 사람은 칠전리 주변으로 모이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한 점은 마을 주변의 전통적인 공간 질서가 현재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전통적인 공간 질서는 한 촌락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죽음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르츠가 양손의 상징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인 것처럼 죽음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망자를 그리워하고 그들과의 연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과 망자를 두려워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양면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망자의 공간에서도 동일한데, 망자의 공간은 전자의 태도가 강조되는 조상의 장소와 후자의 태도가 강조되는 소외된 망자의 장소라는 양극으로 구성된다. 칠전리에서 조상의 장소가 마을 주민들의 공통 조상인 밀양박씨의 선조가 묻힌 곳으로 정상적인 죽음과 조상과의 연결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라면,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어린아이의 죽음처럼 비정상적인 죽음이거나 다양한 양상으로 죽은 망자가 혼란스럽게 묻힌 곳이었다.

현재 망자의 공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양극적 태도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 망자의 공간에서 변화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공간적 배열의 변화로 나타났다. 변화의 한 흐름은 조상의 장소에서 나타난다. 이는 조선 후기 명당을 찾아 마을 밖으로 흩어졌던, 마을 안에 있더라도 명당을 찾아 따로 떨어져 있던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좁게는 부모와 형제들, 넓게는 자신이 속한 사문중 전체의 선조를 한 장소로 모시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산지기가 없어진 맥락에서 선조의 묘를 흩어진 채로 유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한 이들이 짜낸 해결책이기도 했다. 이들의 생활공간이 칠전리였을 때 진도 전역으로 조상의 묘가 퍼져나가던 양상이, 지금은 그와 반대로 칠전리 출신의 자손들이 밖으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조

상의 묘가 칠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양상을 보여준다.

변화의 다른 흐름은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을 구성하던 두 축 중에 하나가 마을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망자의 공간을 구성하던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마을 주변에서 사라지고, 다른 한 축인 조상의 장소만이 칠전리 주변에 남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망자의 공간에 대한 분류는 이전보다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조상의 장소가 칠전리 주변으로 모인다면,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타지로 흩어진다. 마을 안의 공동묘지나 아장터를 대신하는 장소로, 도시 주변의 공원묘지, 납골당, 수목장지 등이 이들에게 현대적 공동묘지로 읽히며 과거 칠전리의 소외된 망자의 장소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한 마을을 중심으로 분리되었던 망자의 공간이 더 넓은 맥락에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련의 과정은 현재 나타나는 장묘제의 변화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주민들의 의도가 충돌하고 타협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조상의 장소를 정리하는 과정은 기존의 묘가 차지하는 공간의 규모를 줄인다는 맥락에서 국가의 정책 의도와 일치한다. 하지만 칠전리 주민들은 영속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해 조상의 묘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묘지의 소멸을 원하는 국가의 의도와는 배치된다. 동시에 주민들은 전통성과 영속성이라는 또 다른 타협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주민들이 새로운 변화에 동참했던 지점인 영속성이라는 요소가 갖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영속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개별성과 혈연적 집단성의 구현으로 나타나는 전통적 규율에 계속 도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양자의 타협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평가하고 수용한다. 이 지점에서 주민들은 적극적인 변화의 주체로 나타나게 된다.

묘지 정리 과정에서 강조되는 전통성과 영속성은 사실 조상의 장소가 갖는 혈연적 집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이다. 재편된 조상의 장소는 집단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성격은 묘지를 정리하는 주민들의 의도와도 연관된다.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것은 혈연적 측면과 지연적 측면 모두에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재확인하기 때문이다. 즉,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는 것은 한 측면에서는 흩어진 친족을 모으는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것이며, 그 장소는 바로 그들의 고향 마을 주변이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타지로 나간 향우들이 고향과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조상의 묘가 있는 장소로 변화되는 칠전리의 공간적 의미가 확장된다. 즉,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의례적 행위는 흩어지는 혈연과 지연의 새로운 중심점을 만들어 이를 재생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도와 연결된다. 특히 칠전리는 밀양박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이 밀집

하게 뒤엎힐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는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망자의 공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제 강점기 이래 망자의 공간은 경제 개발을 위해 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묘지 변혁을 요구하는 많은 표어는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이 되고 있다”거나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이라는 말 등을 통해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에 대한 관념을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묘지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촌락 마을에서 전통적 조상의 장소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속적인 대안을 찾는 현재의 맥락은 이들의 행동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재편되는 조상의 장소가 흩어지고 사라져 가는 촌락 마을이 유지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으며, 마을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과 유리되지 않고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조상의 장소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촌락 마을의 망자의 공간이 더 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쇠퇴하는 촌락 마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강제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양자를 잇는 또 하나의 고리를 끊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조상의 장소를 재편하면서 영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칠전리 주민들의 의도는 묘지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방향성을 잘 맞출 경우 새로운 변화는 촌락 사회 안에 더욱 급격히 퍼질 파급력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촌락 마을을 중심으로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재편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다. 새로 재편된 망자의 공간이 마을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혈연적·지연적으로 뭉칠 수 있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망자의 공간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만이 아니라 도시와 촌락의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즉 촌락 마을은 변화의 주변이 아니며 이미 변화가 맹렬히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심인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에르츠의 양손잡이 비유처럼, 망자의 공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죽음을 규정하는 긍정적·부정적 성격의 공간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양극적인 공간 모두를 다루고자 했으나, 현재의 변화 양상을 촌락 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왼손이 소외되고 오른손만 다룬 결과로 이어졌다. 즉, 본 연구는 망자의 공

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한 측면만을 다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지에서 조상의 장소를 한 곳으로 모으고 소외된 망자의 장소가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소외된 망자의 장소는 본 연구의 전면에서 다시 사라졌다. 이는 전통적인 망자의 공간 질서와 달리 지금 망자의 공간이 개별 마을을 넘어서는 더 큰 규모에서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촌락 마을 주변에서 사라진 원손에 대한 관심을 기존의 도시 주변 망자의 공간에 대한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통합적 시각으로 한국에서 죽음이 어떻게 구분되고 구분된 망자가 어떤 장소에 어떻게 안치되며, 그것이 어떠한 공간 질서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촌락 마을에서 시작한 본 연구의 나머지 반쪽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분하며 수용하느냐는 죽음관을 알려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전통적인 관념과의 비교를 통해 죽음관의 지속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동시에 현재 장묘제와 망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촌락 마을이 칠전리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일부 섬마을의 경우 망자의 공간 자체가 마을 내에서 송두리째 사라지고 선산을 육지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변에 새롭게 조성하는 조상의 장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촌락 마을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이와 그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 역시 망자의 공간을 폭넓게 연구하려는 시도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돼야 할 지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론에 연장하여 파악할 지점도 있다. 현재 칠전리 출신의 향우들이 칠전리에 관심을 쏟는 것은 그들이 직접 칠전리에서 자랐고 칠전리에서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로 이주한 이주 1세대들이 고향을 잊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이러한 이들의 생애사적 맥락과 관련된다. 그러나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 2세대들의 시각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과는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한다. 한경구와 박경립(1998: 792)은 고향으로서 묘지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것이 도시에서 태어나 고향을 상실한 이주 2세대 이후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이 없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칠전리에 남은 주민들과 고향에 관심이 있는 이주 1세대에게 칠전리의 조상을 묻은 장소는 고향을 의미하며 이곳은 그들에게 중심이 되는 곳, 돌아가야 할 곳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주 2세대가 여전히 자신이 태어난 뿌리에 관심을 갖고 고향의 선산을 찾으며 이를 중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에 무관심할 것인가 하는 점은 30~40년 뒤 이들이 땅자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가 될 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의 한 지점을 포착한 것이며, 도시 생활에 자신의 뿌리를 둔 이주 2세대 이후의 새로운 변화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강정원, 2009, “마을공동체 세시의 쇠퇴: 서울 인근의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2(2): 3~33.
- 권선정, 2011, “전통 민묘 마을의 경관 분포와 장소 의미: 대전 광역시 이사동을 사례로,” 『문화역사 지리』 23(1): 26~41.
- 김명희, 2003, 『매장에서 화장으로: 죽음의 처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06, “진도 유배문화의 일고찰: 소재 노수신과 무정 정만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연구』 18(1): 151~169.
- 김시덕, 2005, “현대 도시공간의 상장례 문화,” 『한국민속학』 41: 51~94.
- 2006, “현대 한국 장묘문화에 있어 일본식 화장·납골의 영향과 그 문제점,” 『한국민속학』 43: 115~148.
- 김종대, 2004, 『도깨비를 둘러싼 민간신앙과 설화』, 서울: 인디북.
- 다카무라, 료헤이, 2010,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5: 131~165.
- 박광석, 1997, 『진도지역 문중조직의 연구: 의신면 칠전리 밀양박씨 문중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용, 2002, “묘지의 공간구성과 사회관계의 배열: 신촌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8(1): 29~60.
- 박태호, 2006, 『장례의 역사: 고인돌로부터 납골당까지, 송배와 기피의 역사』, 파주: 서해문집.
- 세네키 히데유키, 2012, “복장제(復葬制)의 납방기원설을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납방계 문화 인식,” 『일본문화연구』 42: 237~256.
- 송기태, 2011, “도깨비신앙의 양가성과 의례의 상대성 고찰,” 『납도민속연구』 22: 169~194.
- 송현동, 2001, 『한국 장묘문화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4, “한국 장례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문화인류학』 37(2):

- 90~114.
- 2005,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의 경관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1(2): 207~243.
- 2006a, “조선조의 죽음의례 정책,” 『종교문화연구』 8: 165~189.
- 2006b, “현대 한국의 장례의식에 나타난 죽음관,” 『종교연구』 43: 139~166.
- 이광규, 1994, 『한국 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97, “한국의 친족체계와 종족이론,” 『한국친족의 사회인류학』, 서울: 집문당, pp. 35~52.
- 장철수, 1995, 『옛무덤의 사회사』, 서울: 웅진.
- 전경수, 1997, “생태적 불균형과 공동체문화의 위기: 충제와 농약의 생태인류학,” 『환경친화의 인류학』, 서울: 일조각: 159~163.
- 정일영, 2013, “일제시기 장묘제도 변화의 의미: <묘지규칙>과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25: 73~114.
- 2014 “1910년대 묘지 통제에 담긴 일제 식민지배의 논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 75~120.
- 최길성, 1986, 『한국인의 조상숭배』, 서울: 예전사.
- 2010, 『한국인의 조상숭배와 효』, 서울: 민속원.
- 한경구·박경립, 1998, “한국인의 죽음의 공간에 대한 건축인류학적 고찰,”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서울: 집문당, pp. 775~808.
- 한상복·전경수, 1969, “이중장제와 인간의 정신성,” 『한국문화인류학』 2: 74~86.
- 홍대한, 2009, “조선시대 철비의 조형 연구,”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

2. 외국 논문 및 단행본

- Bloch, Maurice and Perry, Jonathan, 1982, *Death and the regeneration of lif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h, Maurice, 1986, *From Blessing to Violence: History and Ideology in the Circumcision Ritual of the Merina of Madagasc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79, *La distinction*, Paris: Minuit.

- Comaroff, Jean, and Comaroff, John, 1993, "Introduction," *In Modernity and Its Malcontents: Ritual and Power in Postcolonial Af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xi~x x x vii..
- Firth, Raymond, 1963[1936], *We, the Tikopia: a sociological study of kinship on primitive Polynesia*, Boston : Beacon Press.
-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ited by Gordon, C. New York: Pantheon Books.
- Hertz, Robert(Tr. Rodney and Claudia Needham), 1960[1909], *Death and the Right Hand*, Illinois : The Free Press.
- Janelli, Roger and Janelli, Dawnhee Yim, 1982,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성철 역, 2000,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서울: 일조각).
- Kwon, Heonik, 2006, *After the massacre : commemoration and consolation in Ha My and My Lai*,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유강은 역, 2012, 『학살, 그 이후: 1968년 베트남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인류학』, 서울: 아카이브).
- Malarney, Shaun Kingsley, 1996, "The Limits of 'State Functionalism' and the Reconstruction of Funerary Ritual in Contemporary Northern Vietnam," *American Ethnologist* 23(3): 540~560.
- Malinowski, Bronislaw, 1954, *Magic, Science and Religion*,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Metcalf, Peter and Huntington, Richard, 1991, *Celebrations of Death* (2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lph, Edward,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구동화·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 Van Gennep, Anold, 1960[1909] (Tr. M. B. Vizedom, G. L. Caffee), *The Rites of Passag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전경수 역, 2000,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岩田重則, 2006, 『「お墓」の誕生 : 死者祭祀の民俗誌』, 東京: 岩波新書 (조규현 역, 2009, 『일본 장례문화의 탄생』, 서울: 小花).

内堀基光·山下普司, 2006, 『死の人類學』, 東京: 講談社.

村山智順, 1940, 『朝鮮の風水』,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최길성 역, 1990, 『조선의 풍수』, 서울: 민음사).

善生永助, 1935, 『朝鮮の聚落(後編)』,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영인본, 2008, 『조선의 취락(후편)』, 서울: 민속원).

3. 기타 자료

단행본

밀양박씨 청재공파 족보 (1964년, 1985년, 2005년 판본).

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초분.

박태호, 2014, 『자연장』,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제60호).

의신면지 편집위원회, 2009, 『의신면지』.

장흥임씨 족보 (1980년 판본).

재경칠전리향우회, 2003, 『재경칠전향우회보』.

전라남도편, 『상주인구 조사보고』 (1968, 1979, 1983).

조영춘, 2014, 『내고향 변천사』.

진도군, 2007, 진도군지(상/하).

진도군, 『진도군 통계 연보』 (1999, 2009, 2014).

칠전리동지발간추진위원회(박명훈 편), 2002, 『칠전리 마을지』.

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제규칙, 1912, 1919.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81.

장사등에관한법률, 2001.

기사

박자량, 1996,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이 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 『한국논단』 9월호: 132~137.

사이트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다음 지도(<http://map.daum.net>)

Abstract

The Reform of the Space of the Dead, and Its Implication:

- The Case of the Chiljeon-ri, Uisin-myeon, Jindo-Gun, Jeollanam-do -

Lee, Doju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reforming the space of the dead in Chiljeon-ri, Korean farm village. This study also questions previous studies, which had only one side view of death. The dead is avoided sometimes and connected othertimes by the people alive. Previous studies mainly deals of the space of the dead with only positive side in traditional system, and with only negative side in changed one. In addition, the traditional system and the changed one of space are looked into. And it is questioned the view in which cities are thought to be the center of change in funeral system and rural villages are thought as the center of traditional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place and spatial arrangement of the dead body and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d condition of space of the dead and its implica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dead is gathered around rural village, when the people alive scatters from it, and that this change reconfirms kinship and regionalism of the village.

First,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ditional system of the space of the dead in the Chiljeon-ri and traces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space. The traditional space of the dead is composed of the place of ancestors which stresses the connection with the dead, and the ailenated place of the dead, which emphasizes the distance from the dead. Predecessors who died in a normal condition are buried in the place of ancestors. They

are buried individually and form collectivity through their tomb position. The alienated place of the dead where someone who died in an uncommon condition is buried, or is chaotic place where people who died in a normal or abnormal condition are buried in one place irrelevant to their relationship.

This study also follow the changes in the space of the dead. One side of the change occurs in the place of ancestors. When the residents of Chiljeon-ri lived around their village, the place of ancestors had spread to all of the area in Jindo, which is an island. Now, when many people from Chiljeon-ri are moving out into the city, the place of ancestors is being gathered around the Chiljeon-ri. The other side of the change is the unit of the space, which is reorganized from each village to be much broader. In the traditional space of the dead, one village covered both the place of ancestors and the alienated place of the dead. Now, the places of ancestors are gathered around the village and the alienated places of the dead are excluded from the village. For the place of the dead around the city is recognized as a public burial ground by the residents of Chiljeon-ri, this situation proposes some possibilities that the places of ancestors are in the rural site and the alienated places of the dead are near the city.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formation of the place of ancestors and grasps the process of spacial change and the meaning to the actors. In this situation, two sides of compromises occurs. One conflict is between the government that wants to reduce the space of the dead considerably and the residents who hope to maintain the place of ancestors eternally. The other conflict is between people wanting eternity interfering with the traditional view, which is represented by individuality of the tomb and collectivity through the allocation of the tomb. Spatial change in the places of ancestors is realized through these compromises.

The reason for the reforming of the place of ancestors lies in reconfirming their community of kinship and regionalism. On one side, this reforming makes the center for reuniting relatives who were scattered from the village. On the other side, reformed ancestor's place creates rings for regionalism because reformed places are near the home village. From this point, the place of ancestors that is the center of kinship is naturally

connected with the hometown which is the key of regionalism.

This study requires united research for the space of the dead of the rural village and the city for understanding its the change. And it is unchanged and still important that a bipolar viewpoint of death, which is positive on one side and negative on the other, is the key for understanding spatial changes of the dead. And this study requires a series of changes of how the government sees the space of the dead, which understands it as a target of termination, because it shows that the place of ancestors could be another ground for sustaining rural village which faces serious crisis of extinction.

Keywords: Communal Cemetery, family gravesite, space of the dead, place of ancestors, alienated place of the dead

Student Number: 2013-20089